하나님은 특별한 사랑으로 당신을 초대하고 계십니다.

그분이 초청하신 은밀한 공간에서 둘만의 사랑을 절실히 느끼게 되며
우리는 내면의 깊은 곳에서 일렁이는 고통의 마음을 비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특별한 사랑을 그분의 신부인 당신에게 이토록 부어 주기를 원하시는 만큼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이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도록 막으려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가 느끼는 부족은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 하나되지 못하는 것에서 비롯된다고 그분은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삶에서 죄를 발견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모습은 하늘의 아버지께로 달려가 추한 모습 그대로 그분의 품에 안기는 것입니다. 율법주의는 하나님을 위해 우리의 행동을 변화시켜야 한다고 강조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십자가로 가까이 나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 본문 중에서 –

당신을 너무도 사랑하시는 그분은 당신의 고통에 함께 아파하시며,
십자가의 고통에서 그리스도를 구해 주지 않으셨듯이 당신의 궁극
적인 목적을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03230
9 788957 880050
ISBN 89-5788-005-4
값 8,200원

당신을 향한 은혜의 초대

스티브 맥베이 지음 | 편집부 옮김

NCD 도서출판

A Divine

당신을 향한 은혜의 초대

스티브 맥베이 지음 | 편집부 옮김

하나님이 다독여 주시는
사랑의 손길과 은혜의 품으로
이서 오십시오.
우는 아기를 품에 안은
부모의 따뜻한 심정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품 안에서
당신의 영혼을 감싸는
잔잔한 평안을 경험하십시오.

NCD 도서출판

스티브 맥베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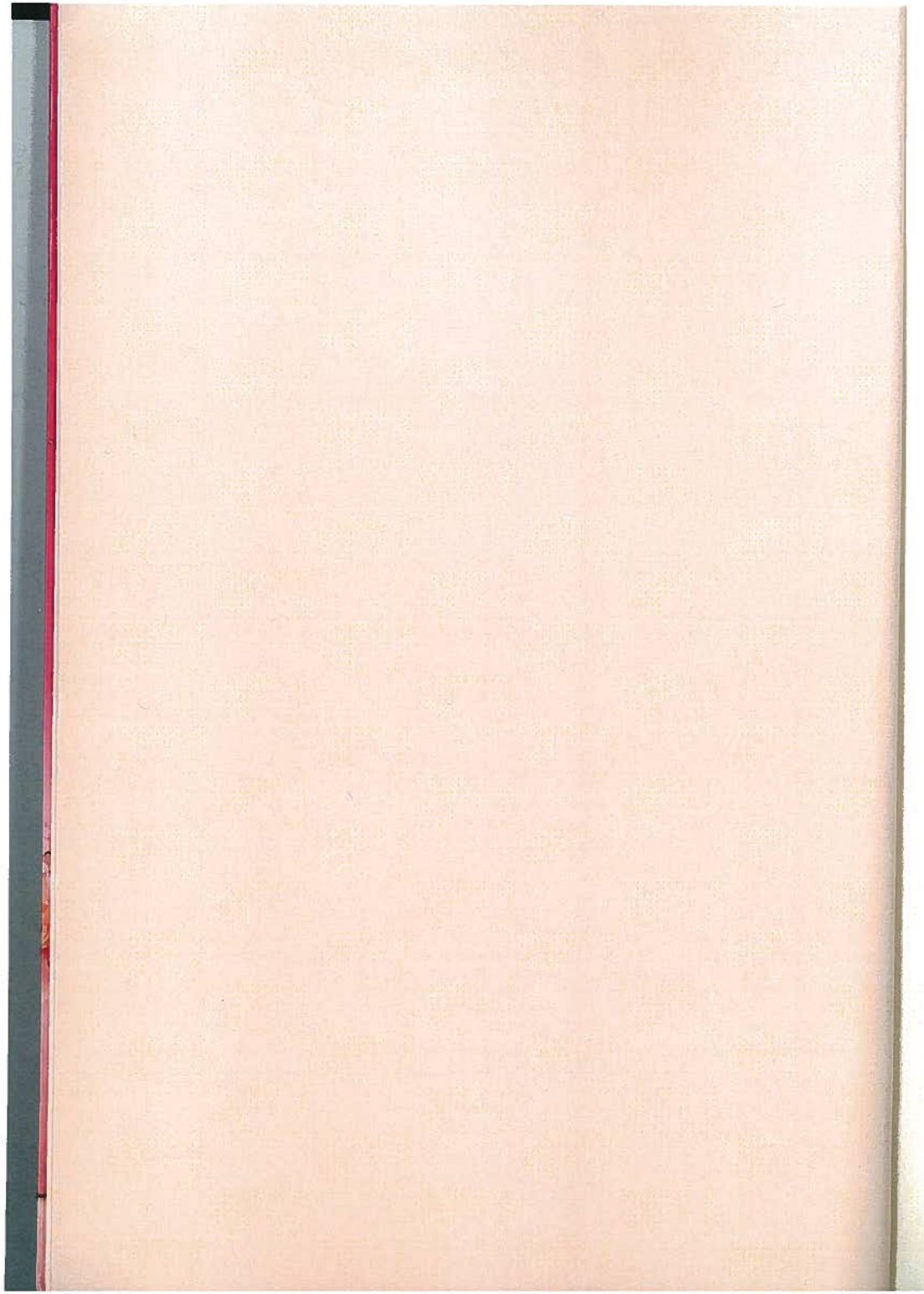
스티브 맥베이(Rev., Dr. Steve McVey) 목사는 미국의 초 베스트 셀러 작가로서 율법주의적 종교생활에 메말라 있는 많은 기독교 리더자와 평신도들에게 기독교의 생명력을 다시 회복시키는 전 세계적인 은혜운동의 대가이다. 현재 미국 애틀랜타에 소재한 'Grace Walk Ministries'라는 은혜운동을 (Grace Movement)을 주도하고 있다. 그는 아내 멜라니 (Melanie)와 네 명의 자녀와 함께 애틀랜타에서 살고 있다. 그의 베스트 셀러로는 『은혜 영성의 파워』, 『은혜의 영성』,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다수가 있다.

상처받은 영혼들이 이 책의 메시지를 음미함으로써 치유받고 새롭게 될 것을 나는 확신한다. 하나님은 당신에게 말씀하시길 원하시고 이 말씀을 통해 당신의 삶은 변화될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러한 일을 하시기 때문이다.

빌 브라이트 박사(CCC창시자 및 국제 총재)

"고난은 성령님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당신의 정체성을 가르치기 위해 사용하시는 가장 효과적인 도구입니다."

도서 출판 NCD 증정



당신을 향한 은혜의 초대

A Divine Invitation
Copyright © 2003 by Steve McVey
Published by Harvest House Publishers Eugene, Oregon 97402
All rights reserved
Korean edition copyright © 2002 by NCD Publishers
275-10 Sihungdong, Sujeonggu, Seongnam, 461-370, Korea

이 책의 저작권은 도서출판 NCD에 있습니다.
저작권법에 의하여 한국 내에서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므로
무단전재와 무단복제를 금합니다.

당신을 향한 은혜의 초대

지은이 | 스티브 맥베이
옮긴이 | NCD 편집부
초판 1쇄 펴낸날 | 2003년 10월 9일
초판 2쇄 펴낸날 | 2003년 11월 4일
등록번호 | 제2003-9호
등록일자 | 2003년 10월 15일
등록처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시흥동 275-10
발행처 | 도서출판 NCD

값 8,200원
ISBN 89-5788-000-3

▪ 잘못된 책은 바꿔 드립니다.
▪ www.NCDKorea.com에 개설된 카페 "출판 현장 365일" 에서 독자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립니다.

도서출판 NCD
주문 / 영업부 | (031) 723-6467, 팩스 (031) 723-8176
본사 / 편집부 | (031) 723-6534, 팩스 (031) 723-8176
한국 NCD / 사역부 | (031) 723-8174, 팩스 (031) 723-8176
선교부 | (031) 723-6531, 팩스 (031) 723-8176
평생전화번호 | 0502-099-0007

도서출판 NCD는 '자연적으로 성장하는 더 좋고 많은 교회 번식 운동' 을 펼치고 있는 한국 NCD(www.NCDKorea.com)와 터치코리아(www.TouchKorea.net) 및 이와 관련된 기관들의 사역을 문서로 지원하는 출판사입니다.

한국 NCD는 현재 전 세계 6대주 66개국 10,000교회 4,200만 자료로 검증된 설문 조사 자료를 토대로 하여 한국에서 8가지 질적 특성을 중심으로 교회의 건강을 진단할 뿐만 아니라 더 많은 교회들이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자료 및 도구 제공, 훈련, 세미나, 컨설팅, 코처 사역, 세계 선교, 지역 및 정보 네트워크를 위해 사역하고 있는 국제적인 전문 사역 기관입니다.

한국 NCD는 이와 같은 자연적 교회 성장 운동을 보다 효율적으로 펼치려는 목적으로 랄프 네이버가 창립한 국제터치셀사역의 한국 본부인 터치코리아(TOUCH Korea)를 비롯하여, 한국 NCDMission 선교회, 도서출판 NCD, G-12 코리아, NCD YOUTH, 리전트신학대학원 등과 함께 사역하고 있습니다.

※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

당신을 향한 은혜의 초대

스티브 맥베이

감사의 글

한 권의 책은 진공 청소기가 모아 놓은 미세한 쓰레기들처럼 여러 아이디어들을 모아 놓는 것만으로 집필되지 않는다. 여러 아이디어들은 하나님이 저자 주변의 사람들과 주위 환경을 통해 씨 뿌리시고, 뿌리를 내리게 하시고 자라게 하셔서, 마침내 열매를 맺으시는 것이다. 이와 같이 '거룩한 초대'는 수많은 친구들의 영향으로 쓰여졌으며, 나는 그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

세럴 부케넌, 팀과 데비 칠더스, 스티브 드레이크, 탐 그래디, 배리 그루수, 브랜다 호세, 밥과 제리 리켄스, 존 닐, 주디 리머, 존 기븐바크, 글레나 살스버리, 프레드 슈얼러 등에게 감사를 드린다. 이들은 모두 자신의 개인적인 이야기들로 나에게 풍부한 영감을 주었고, 조언을 아끼지 않았으며, 이 책을 쓰는 동안 여러 가지 방법으로 나를 격려했다.

특별히 안토니와 베스 로스 부부에게 감사를 드린다. 이들은 나에게 그들의 오두막을 빌려 주어,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스러운 목소리에 귀 기울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었다.

이 책에 대한 조언과 격려 그리고 관심을 아끼지 않았던 편집자 닉 해리슨에게도 감사를 드린다. 닉은 친절하고 따뜻한 사람으로 나와 비슷한 영적 견해를 지니고 있다.

밥 호킨스 2세를 비롯한 하비스트 하우스 출판사의 직원들은 내가 출판하는 모든 책들을 위해 많은 수고를 해 주었다. 나는 그들이 보여 준 열심과 전문성 그리고 열정을 통해 책을 출판하는 것이 이들에게는 일을 넘어선 사역임을 알게 되었다.

나는 브래넌 매닝(Brennan Manning)의 책들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 그의 저서들을 다독함으로써 그가 내게 미친 영향은 하나님께서 다른 것들을 통해 교훈하신 것들과 같은 정도이다. 그의 책을 통해서 성령님은 아바 아버지의 사랑에 대해 내가 알지 못했던 많은 것들을 배우게 해 주셨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내가 깊이 감사하는 사람은 나의 소중한 아내, 멜라니다. 그녀는 모든 면에서 남자가 바라는 가장 이상적인 아내다. 우리가 처음 만난 1970년부터 그녀는 나의 가장 소중한 친구이자 격려자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책을 통해 영광을 받으시길 바란다. 그리고 이 책을 읽는 모든 이들에게 그분의 아름다움과 사랑이 나타나기를 기도한다. 그분은 그 무엇보다 영광과 감사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시다.

스티브 맥베이

추천의 글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그분을 만난 첫 순간부터 지금까지 내 생애의 원동력이 되어 왔다. 내가 처음 이 사랑을 맛본 것은 젊은 사업가로서 많은 부를 축적하고 편안한 삶을 살고자 노력하던 때였다. 나를 향한 그분의 사랑이 과연 얼마나 크고 깊은지 깨달아 갈수록 이 사랑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고 싶은 마음도 점점 더 간절해졌다.

1951년, 나와 아내 보네트가 함께 하나님의 종으로 살기로 다짐한 지 24시간 만에 하나님은, 전 세계에 하나님의 사랑을 전파하는, 지금의 대학생 선교회(C.C.C)에 대한 비전을 주셨다. 하나님은 이 비전을 놀랍게 축복해 주셔서 지금은 수천 명의 간사들과 훈련된 자원봉사자들이 지구촌의 모든 나라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다. 매일매일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통해 온전히 구원받는 것을 보면서 나의 기쁨은 커져 갔다.

그러나 이러한 기쁨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맛본 그리스도인들이 그분의 사랑이 얼마나 강력하고, 열정적이며, 포용적인 것인지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 나를 슬프게 한다. 결국 그들은 좌절과 공허감 그리고 환멸에 빠지게 된다. 그리고 그들이 경험했던 사랑은 그들의 상상력이 만들어 낸 하나의 허구일 뿐이라고 결론짓는다.

이러한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위해 나는 이 책을 강력하게 추천한다. 스티브 맥베이는 분명하고 간결한 말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랍고 아름답고 완전한 것인지 우리에게 보여 준다. 스티브는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에 흥분되어 있고, 우리도 그와 함께 흥분하도록 만든다. 우리가 흥분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된 사람에게 나타나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반응이다.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이해한 사람은 그 놀라움에 무릎을 꿇게 될 것이다.

스티브는 또한 이 사랑을 얻거나 유지시키기 위해 우리가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거나, 그 사랑을 잃어 버렸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우스운 일인지를 보여 준다. 상처받은 영혼들은 이 책의 메시지를 음미함으로써 치유받고 새롭게 될 것이다.

이 감동적인 글을 마음속 깊이 받아들이기를 바란다. 하나님은 당신에게 말씀하시길 원하시고 이 말씀을 통해 당신의 삶은 변화될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러한 일을 하시기 때문이다.

빌 브라이트
대학생 선교회 창시자 및 대표

Contents

04 • 감사의 글

06 • 추천의 글

13 • 첫번째 이야기 사랑하기에는 너무 바쁘다

35 • 두번째 이야기 용서받고 잊혀짐

59 • 세번째 이야기 영원하신 팔

79 • 네번째 이야기 아버지의 품

101 • 다섯번째 이야기 다독여 주시는 손길

123 • 여섯번째 이야기 은혜의 춤

147 • 일곱번째 이야기 의무감에서 심리로

167 • 여덟번째 이야기 타워진 불

187 • 아홉번째 이야기 거룩한 피난처

207 • 열번째 이야기 열정적인 입맞춤

226 • 거룩한 초대의 노래

첫번째 이야기

사랑하기에는 너무 바쁘다

사랑하기에는 너무 바쁘다

조지아 주(洲) 남부의 호숫가에 있는 어느 산장에서 하나님은 나의 삶을 완전히 뒤집어 놓는 그 무엇인가를 시작하셨다. 아니, 정확히 말하자면 나를 바르게 되돌려 놓는 그 무엇이었다. 나는 어떤 모임에서 강의를 하기 위해 그곳에 간 것이었지만, 밀린 일들을 처리하기 위해 원래 일정보다 나흘을 앞당겨 출발했다. 내 계획은 잡지사에서 부탁받은 원고를 쓰고, 새로운 책에 대한 구체적인 작업을 시작하는 것이었다. 새로운 책에 대한 압박감이 점점 강해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책을 쓰기 위해 책상 앞에 앉자, 무엇인가가 잘못된 것 같았다. 나는 도저히 글을 시작할 수 없었다. 내 머리는 텅 비었고, 생각은 꽉 막혔다. 몇 시간 동안 작업에 들어가려 노력했지만 헛수고였다.

"주님, 도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마침내 나는 물었다. "제가 책을 쓰기 위해서 이 시간을 일부러 냈다는 것을 주님은 아시잖아요." 하나님을 웃게 만들려면 나의 계획을 말씀드리라고 누군가 말했던가. 그날 하나님은 내 말에 코웃음을 치셨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내 질문에 대답해 주셨다. 그 소리를 직접 귀로 들은 것은 아니었지만, 내 마음속에 드는 생각이 그분께로부터 온 것임을 알 수 있었다. "네가 이 곳에 있도록 한 내 계획은 그게 아니란다." 그분이 말씀하셨다. 그것으로 끝이었다. 나는 그곳에서의 나흘을 고독하고도 조용하게 보냈다. 주의의 풍경은 아름다웠음에도 불구하고, 그 나흘은 나에게 아주 긴 시간이었다.

나는 오랫동안 가만히 있지 못한다. 바쁘게 지내는 것을 더 좋아한다. 휴가를 떠나면, 정서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그 장소에 집중하기 위해서는 며칠이 걸린다. 집에서도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가만히 있지를 못한다. 가끔 나의 아내 멜라니는 내가 컴퓨터에서 TV로, TV에서 소파로, 또다시 소파에서 컴퓨터로 왔다갔다 하는 것을 바라보다가 "좀 가만히 앉아 있을 수 없어요?" 라고 말하곤 한다.

나는 활동적으로 사는 것에 보람을 느낀다. 사람들은 종종 이러한 태도에 박수를 보낸다. 나 같은 사람들은 "게으르다"는 소리를 듣지 않는다. "쫓긴다"라는 소리는 들을 수 있다. "둔하다"라는 말은 아주 가끔 듣는다. "참을성이 없다"라는 말은 종종 듣는 편이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하다. 필요한 일이든 필요하지 않은 일이든 일의 마무리를 꼭 짓고야 만다는 것이다.

시골의 산장에서 홀로 앉아 있던 어느 날, 나는 누군가가 그 곳에 놓고 간 잡지를 읽기 시작했다. 글쓴이는 『광부의 딸』(Coal Miner's Daughter, 컨츄리 가수 로레타 린의 생애를 그린 영화)이라는 영화의 한 장면에 대해 말하고 있었다. 그 장면에서 로레타 린(Loretta Lynn, 미국의 컨츄리 가수)은 공연무대에 서 있었다. 그녀는 항상 너무 많은 일들을 너무 일찍, 너무 서둘러서 하는 사람이었다. 그런 그녀가 좌절감에 휩싸여 눈물을 흘리면서 그 곳에 모인 팬들에게 이렇게 말한다. "팻시 클라인(Patsy Cline, 미국의 컨츄리 가수)이 나에게 들려주던 말이 있었죠. '이봐 로레타, 네 인생은 네가 다스릴 수 있도록 해야 해! 하지만 여러분, 이제 와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지금까지 제 인생이 저를 다스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잡지 속의 글을 읽으면서 내 마음속에서 어떤 감정이 일기 시작했다. 동시에 잡지 속의 로레타 린과 팻시 클라인의 말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인가를 말씀하실 수 있다는 것이 다소 놀랍게 느껴졌다(나는 컨츄리 음악을 그리 즐기지 않는다). "제 인생이 저를 다스리고 있어요." 이 말이 밤새도록 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4년쯤 전에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형성되는 우리의 정체성과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살아 계실 때 얻게 되는 안식에 대해 가르치는 사역을 시작했다. 사역의 초창기부터 나는 굉장히 많은 일들을 할 수 있게 되었다. 나의 첫 책 『내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은혜』(Grace Walk)의 성공으로 인해 강의 의뢰가

밀려들어 왔고, 이로 인해 나는 전 세계를 다닐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다. 나는 단 한번도 내 자신이나 내가 쓴 책 덕분에 이런 기회를 얻게 되었다고는 생각해 본 적이 없다. 그것은 나의 상상을 초월한 사역으로 나를 이끄신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였다.

나는 인도의 나환자촌(村), 중국의 지하 교회, 멕시코의 투우 경기장과 시내 광장 등에서 강의했었다. 강의 의뢰는 북미,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와 라틴 아메리카 등지에서 들어왔다. 나는 친구들에게 이 느낌은 마치 어린아이가 아무런 제약 없이 사탕을 마음대로 골라 먹을 수 있는 가게에 서 있는 것과 같다고 말하곤 했다. 나는 좋아하는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로 가득 찬 탄탄대로에 올라와 있는 것만 같았던 것이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그때 당시에는 큰 의미가 없을 것 같았던 일이 나에게 일어났다. 나는 발진으로 인해 머리가 가려웠다. 며칠 후에 발진은 사라졌고, 그것에 더 이상 신경을 쓰지 않았다. 얼마 지나지 않아, 같은 종류의 발진이 발목에 생겼다. 그것도 곧 없어졌지만, 종아리에 또 나타났다. 발진이 계속해서 나타나자 나는 결국 의사에게 갔다. 의사는 내 증상을 한번 훑어보고는 물었다.

"생활양식이 어떻게 되세요?"

"무슨 말씀이시죠?" 내가 되물었다.

"하시는 일이 스트레스가 많이 쌓이는 일인가요?" 그가 물었다.

"저는 제 일을 좋아합니다." 나는 다소 어이없다는 듯이 대답했다.

"좋아하는 일을 한다고 스트레스가 없는 건 아니죠." 의사가 말했다.

그는 이 끊임없는 발진의 원인은 단 한 가지, 스트레스라고 말했다. 스트레스라고?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하는 법에 대해 강의하는 사람에게 내려진 진단으로서는 그리 좋은 것이 아니었다. 의사는 나에게 좀 여유를 가지고 일하라고 충고했다. 병원을 나오면서 나는 좀 쉬엄쉬엄 일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했다.

방해받는 친밀감

시골의 한 오두막에서 하나님은 내 삶의 방식에 대해서 내가 인정하기 힘든 사실들을 보여 주기 시작하셨다. 나는 자신도 모르게 그리스도 안에서의 정체성을 제대로 알지 못했던 목회자 시절에 가지고 있던 자기 만족의 삶에 다시 빠져 있었던 것이다. 나는 눈에 보이는 것들에 의해 모든 것의 성공과 실패를 판단하고 있었다. 한 해 동안에 얼마나 많은 컨퍼런스들을 개최할 수 있는가? 얼마나 많은 그레이스 워크(Grace Walk) 사역 사무실을 열 수 있을까? 내년에는 얼마나 많은 나라들을 다닐 수 있을까? 나는 얼마나 많은 것들을 할 수 있을까? 내 동기와 목적은 순수한 것이었지만, 일상 생활과 사역에 쫓기던 나의 삶은 결국 발진이라는 형태로 하나님의 경고를 받게 되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일상생활의 작은 사건들을 통해서 내가 정도(定道)에서 벗어나 있음을 여러 가지로 보여 주고 계셨다. 어느 날 나는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었다. 갑자기 옆 차선에서 어떤 차가 내 앞으로 끼어들었다. 브레이크를 밟는 대신 나는 아무 생각 없이 기어를 주차 위치에 놓으려고 했다. 또 우리 사역의 행정 담당자 셔릴의 사무실에 용무가 있어서 들어갔다가 내가 그곳에 왜 왔는지 생각이 안 날 때도 종종 있었다. 이와 같은 작은 일들이 비일

비재했다. 어느 날 아침에는 세면대 앞에 서서 생각하기도 했다. "내가 이빨을 닦았던가?"

나의 생각들을 정리하고, 하나님께서 그 오두막에서 나에게 보여 주시는 것들을 기억하기 위해서 나는 노트북을 꺼내 다음과 같이 썼다.

나는 마치 사탕 공장의 생산 기계에서 일하는 루시 리카도(미국의 유명한 시트콤 I love Lucy의 주인공)가 된 느낌이다. 기계의 속도를 따라가지도, 더 이상 사탕을 먹지도 못해 절절매고 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걸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내 삶과 사역의 방향을 재조정하고 계신다. 그분은 내가 그분의 부르심에 더 초점을 맞추기를 원하시고, 좋은 것이기는 하지만 유익하지 않은 것에 더 이상 주의를 기울이지 않기를 바라신다. 나는 큰 것이 반드시 더 좋은 것이 아니며, 바쁜 것은 반드시 비생산적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나 자신에게 오는 기막힌 기회를 모두 받아들일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배워야만 한다.

나는 하나님과 그분의 방법을 더 알기 원한다. 나는 그분과 더욱 친밀한 관계를 맺고 싶다. 나는 그분으로 완전히 가득 차서 중요하지 않은 일은 중요하지 않게 생각할 수 있는 법을 배우고 싶다. 나는 내면 깊숙한 곳에서부터 안식을 누리고 싶다. 이제 더 이상 내 머릿속이 여러 잡다한 생각들과 계획, 아이디어들로만 가득 차 있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나는 나의 부족함 가운데서도 정신적으로나 정서적으로 편안하고 안정된 상태를 누리고 싶다. 나는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기쁨으로 소리치고 싶다!!

내가 써 놓은 글을 다시 읽자, 내 문제가 분명하게 보였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더욱 친밀한 관계를 갈망하고 있었지만, 너무 바쁜 삶의 방식 때문에 그러한 관계가 방해를 받고 있었다. 나는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사는 것과 사역을 이끄는 기술이 그리스도의 임재가 주는 기쁨을 앗아가도록 내버려 두고 있었다. 사탄은 그의 고전적인 무기를 사용하고 있었다. 그리스도 자체가 아닌 그리스도인다운 삶에 전념하도록 했던 것이다. 나는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었지만, 예수님과 사랑에 빠진 사람들이 누리는 연합의 참맛을 잠시 잊고 있었다.

당신도 내가 빠진 이 모순에 동감하는가?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들의 구체적인 모습들은 각각 다르겠지만, 현대 교회는 근본적으로 같은 유혹에 직면하고 있다. 살아가는 것에 너무 바빠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풍성함을 놓치는 것이다(요 10:10). 하나님은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당신을 주님의 신부로 선택하셨다. 주님은 자신의 사랑을 우리에게 쏟아 부으시길 원하신다. 주님은 자신의 사랑을 당신에게 쏟아 부으시길 원하신다.

은밀한 공격

예수님은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영생의 뜻은 '하나님을 아는 것' 이라고 말씀하셨다. '알다' 라는 이 단어는 마리아가 예수의 탄생을 예고한 천사의 말을 듣고 한 질문,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의 '알다' 와 같은 단어다. 이 말은 누군가와의 친밀한 관계를 경험하는 것을 의미한다. 하나님은 당신을 알기 위해서 당신을 구원하셨다. 하나님은 당신이 이제껏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랑으로 당신을 사랑하신다. 하나님의 관심과 위탁은 당신이 상상도 못할 정도로 대단하다. 그러나 현대 교회의 대다수 사람들은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맺을 시간이 없다. 해야 할 일들이 너무 많은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 특별한 사랑을 그분의 신부에게 이토록 부어 주기를 원하

시는 만큼, 사탄이 우리로 하여금 이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도록 막으려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전면 공격으로는 우리를 그리스도에게서 돌아서서 세상을 향하도록 만들 수 없다면, 사탄은 또 다른 전략을 가지고 우리를 공격하려 들 것이다. 그래서 사탄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무엇으로 바쁘게 만드는 것이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은밀한 공격으로 인해 사탄의 포로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포로라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다는 것은 참으로 슬픈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들은 분주함이라는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이다. 그들은 진심으로 영적 성장을 원하지만, 자신이 이러한 면에서 왜 아무런 진전을 보이고 있지 못하는지 의아해한다. 그들이 계속 같은 자리에서 빙빙 돌고 있는 데는 이유가 있다. 감방 안에 갇힌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방 안을 빙빙 도는 것 밖에 없기 때문이다.

리차드 포스터(Richard Foster)는 현대 문화에서 사탄이 세 가지의 주된 영역에서 우리를 공격한다고 말했다. 소음, 분주함 그리고 군중이 그것이다. 이 세 가지가 악한 것은 아니라고 반박할 수 있겠지만, 우리의 영적인 안녕을 위협하는 것이 될 가능성은 많다. 우리가 너무 분주해서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게 될 때, 우리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사탄의 포로가 되어 버린 것이다.

하나님의 임재는 우리가 이를 악물고 율법적인 훈련을 한다고 해서 계속 인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항상 머물러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다는 것은 모든 상황과 순간에서 그리스도가 우리 삶의 근원이심을 알고, 그분만을 의지하는 것이다.

우리가 느끼는 부족은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 하나 되지 못하는 것에서 비롯된다.

퀘이커교(Quaker) 선교사 토마스 켈리(Thomans Kelly)는 그의 책 『헌신의 약속』(A Testament of Devotion)에서 다음과 같이 썼다.

> 우리의 의식 세계에서 우리는 동시에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다. 의식의 한 단계에서 우리는 생각하고, 토론하고, 보고, 계산하고, 사람을 만나는 등 일상생활의 모든 필요한 일들을 해 나간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는 더 깊고 근본적인 단계에서 기도와 찬양으로 예배할 수 있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숨결을 받아들일 수 있다.

켈리는 사람들이 처음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의 상태를 묘사하고 있다. 당신도 처음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와 얼마나 깊은 사랑에 빠져 있었는지를 기억하는가? 당신이 계속적으로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있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분이 함께 하신다는 인식은 당신의 의식 바로 밑에서 흐르고 있었다. 난생 처음으로 당신은 그분이 당신 안에 계시고, 이제껏 경험하지 못한 사랑으로 당신을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다. 당신은 아주 작은 자극에도 금새 기도를 읊조리기도 하고, 친구에게 그리스도를 증거하기도 하며, 그리스도께서 당신에게 얼마나 의미 있는 존재인지를 생각하게 된다. 모든 순간마다 당신은 그분 안에 있었고, 그분도 당신 안에 존재하고 있었다. 켈리가 말했듯이 당신은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숨결을 받아들이고" 있었다.

그러나 그러한 종류의 믿음을 경험해 본 많은 사람들이 그 믿음을 잃어버

렸다. 그들은 그리스도에게서 돌아섬으로 그 믿음을 잃어버린 것이 아니다. 그들은 의무감 때문에 믿음을 잃어버린 것이다. 그들은 집과 일터, 교회에서 해야 할 많은 일들 때문에 너무 바빠서 그들이 한때 누렸던 그리스도와의 사랑이 사라져 버리게 된 것이다. 이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느냐고 물어보라. 그들은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그렇다고 대답할 것이다. 이전에 느꼈던 그리스도와의 친밀감을 여전히 누리고 있느냐고 물어보라. 그러면 그들도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변했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그들은 마치 "그냥 너무 피곤해요"라며 남편과 사랑을 나누려 하지 않는 초보 엄마와 같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와의 친밀성을 잃어버린 것은 그들이 예수님을 더 이상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다. 다른 것들에 너무 집중하다 보니 예수님을 위한 에너지가 남아 있지 않을 뿐이다. 당신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앉아서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언제였던가? 그리고 그때부터 해 온 종교 활동은 얼마나 많은가?

사랑 없는 섬김

"그리스도인이 봉사 일로 바쁜 것이 무엇이 나쁘단 말인가요?" 누군가가 이렇게 반문할지도 모른다. 이에 대해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이 대답한다.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 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고전 13:2~3). 사랑의 관계가 없는 것은 바로 종교 활동에 불과하다.

나는 어느 특별한 사랑을 소개하려고 한다. 이 사랑은 내가 오랫동안 알아왔던 그 어떤 사랑과도 다르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고 있는 사랑과도 다르다. 그 사랑을 정확히 설명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나는 그것을 최대한 자세히 묘사하려고 노력할 것이다.

이 사랑의 깊이와 넓이는 인간의 이해를 훨씬 뛰어넘는 것이다. 믿음의 눈을 뜨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비합리적이고 이상한 것으로 보일 것이다. 일반적인 상식이라는 좁은 이치에서 보면 이러한 종류의 사랑은 터무니없는 것이다. 이 사랑은 아무런 보상도 바라지 않는다. 그 사랑의 근원은 헤아릴 수도 없다. 이 사랑은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어떤 것으로도 표현될 수 없다.

이 사랑이 흐르는 통로는 십자가다. 십자가는 천년 동안 인류가 느낄 수 있는 최고의 고통과 수치심의 상징이었다. 역사적으로 십자가는 인간이라는 이름에 먹칠하는 사람들을 위해 준비되었다. 그것은 인간쓰레기들을 버리는 정의라는 이름의 소각로로 인식되었다. 아이들을 살해한 살인범들은 그 위에서 살해당하는 공포를 느끼게 되었다. 이곳에서는 냉담하고 완고한 범죄자들도 어린아이처럼 울었다. 십자가는 최고로 흉악한 범죄자들이 최악의 결과로 만나는 장소였다. 그러나 피로 얼룩진 이 제단 위에서 고통과 사랑이 만나 하나가 되었다. 그리고 그날 이후로 모든 것이 변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는 단순히 우리가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기로 결심함으로 생기는 것이 아니다. 이 관계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그분이 우리 안에 이루시려고 한 일들을 모든 피조물을 통해 이루어 가심으로 생겨난 것이다(롬 8:29~30). 십자가는 당신의 모든 것을 변하게 했다. 십자가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되었을 때, 당신은 하

나님의 사랑이라는 혜택을 받게 되었다.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라고 소리치셨을 때, 그분은 그리스도인들이 더 이상 하나님께 아무런 빚을 지고 있지 않음을 선포하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그렇게 많은 일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해야 하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말씀이세요?" 어느 목사님이 나에게 물었다.

"커트,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갚기 위해 당신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겠어요?" 내가 물었다. "하나님의 값없는 선물에 대한 대가를 우리가 어떻게 지불할 수 있겠어요?"

"물론, 우리가 그분에게 아무것도 갚을 수 없다는 사실은 알죠." 커트가 말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을 드려서 그분께 무엇인가 갚으려는 노력이라도 해야 하지 않겠어요?"

"그건 어떻게 하죠?" 내가 끈질기게 물었다. "우리가 무엇을 드린다 한들,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 조금이라도 갚을 수 있겠어요?" 커트의 관점은 새로운 것은 아니지만, 내가 던진 질문들에 대해서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의 대가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이 과연 무엇이 있겠는가?

아담과 조슈아는 베트남 전쟁에 함께 참전했던 절친한 친구였다. 그들은 치열한 싸움터에서 함께 싸우기도 했다. 어느 날 아담의 연대가 후퇴하는 바람에 아담은 전선에서 홀로 남게 되었다. 그는 부상을 입어 서 있을 수도 없었다.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조슈아는 퍼붓는 총알을 피해 아담이 절망적으로

누워 있는 참호 속으로 뛰어들었다. 조슈아는 아담을 어깨에 둘러매고 아군이 있는 곳으로 뛰어갔다. 아군의 진영으로 거의 다 왔을 때 조슈아는 등에 총을 맞았다. 그는 아군이 있는 참호로 쓰러지다시피 해서 들어갔고, 두 명 다 동료들의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조슈아는 등 수술과 재활 치료로 한 달을 병원에서 지냈다. 그는 친구를 구하기 위해서 큰 값을 지불했던 것이다. 하지만, 그에게 있어서 아담은 그러한 대가를 치를 만한 친구였다. 그들은 절친한 친구가 아니었던가!

그 후 그들은 고향으로 돌아왔다. 어느 날 조슈아가 집에 돌아왔을 때, 아담은 잔디 깎는 기계를 막 차고에 집어넣고 있었다. "뭐 하고 있는 거야?" 조슈아가 물었다.

"그냥 잔디 좀 깎아 주려고 왔어." 아담이 대답했다.

"왜?" 조슈아가 물었다.

"응, 생각해 봤는데, 네가 베트남에서 내 목숨을 구해 주었잖아. 그래서 잔디 깎는 것으로 빚을 좀 갚아 볼까 하고" 아담이 말했다.

아담의 말을 듣고 조슈아가 어떤 느낌이 들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이 이야기는 실제로 있었던 일이 아님을 밝혀 둔다. 우리를 위해 크나큰 희생을 감수한 사람에게 빚을 갚겠다고 작은 행동들을 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예를 들기 위해 내가 지어낸 이야기일 뿐이다. 아담이 잔디를 깎음으로 조슈아에게 진 생명의 빚을 갚을 수 있다는 생각은 말도 안 되는 것이다. 아니, 오히려 친구를 위해 목숨을 아끼지 않은 조슈아에게 모욕이 될 것이다. 조슈아는 잔디 깎는 사람이 필요해서 아담의 생명을 구한 것이 아니다. 그는 친구를 사랑했기 때문에 아담을 구한 것이다.

우리는 모두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 멸망의 길을 걷고 있다. 하지만 믿는 사람들은 조슈아,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을 얻었다.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 생명을 걸었을 뿐 아니라, 아예 내어 주셨다. 우리가 무엇을 해서 그분께 진 생명의 빚을 갚을 수 있겠는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그분이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뿐이다. 그분의 사랑이 우리의 행동을 변화시킬 수 있는가? 물론이다! 그러나 우리의 행동은 그분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에 대한 자연스러운 반응일 뿐이지 우리가 무엇인가를 행한다고 우리의 빚이 갚아지는 것은 아니다. 값없는 선물의 값을 치르려고 노력하지 말기 바란다. 그렇게 하는 것은 우리가 그 선물의 진정한 가치를 모른다는 사실을 나타낼 뿐이다. 더 나아가서 그것은 그 선물을 주신 분에 대한 모욕이다.

복음이라는 단어의 뜻은 좋은 소식이다. 좋은 소식 중에서도 가장 좋은 소식은 우리가 하나님께 갚을 빚이 없다는 것이다. 무언가를 갚으려는 시도는 하나님과 고용인 – 피고용인의 관계를 맺는 것과도 같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관계가 아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그분의 사랑을 더 깊이 알고, 당신이 그러한 사랑을 받을 만한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기를 원하신다. 당신이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드려야 한다는 생각은 잊고, 모든 값은 이미 치러졌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길 바란다.

어떤 특별한 삶에 대해서 상상해 보자. 이 특별한 삶은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는 삶이다. 그분은 오히려 당신이 완전히 만족스러운 삶을 살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주기를 원하신다. 이 삶에서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을 지금보다 더 받거나 덜 받기 위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당신이 무엇을 하든지 간에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감정을 아주 조금이라도 바꿀 수 없다는 사실을 한 번 생각해 보라. 하나님께서 조건 없이 당신을 영원히, 열정적으로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음미해 보라.

이러한 삶은 상상 속에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실제로 있는 것이다. 당신은 예수님이 영원 전부터 꿈꿔 오신 신부다. 하나님의 소망과 계획은 당신 안에 있다. 비록 교회에서 배웠던 사실이나 영적으로 부족하다는 스스로의 자격지심이 내가 묘사한 이러한 삶을 거부하게 만든다 할지라도, 당신의 영혼 깊숙한 곳에서는 하나님께서 당신이 매일매일 경험하기를 원하는 이러한 삶에 이미 매력을 느끼고 있을 수도 있다. 토마스 켈리(Kelly)는 이것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 우리의 내면 깊숙한 곳에는 영혼의 지성소가 있다. 이곳은 거룩한 곳이며,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다. 그곳에서 우리는 그분의 음성을 듣는다. 우리는 계속적으로 그곳에 돌아가고 싶어 한다. 영원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속에 계신다. 그분은 시간에 쫓기는 우리의 삶에 다가와 놀라운 운명에 대한 소망을 갖게 하고, 영원한 고향으로 우리를 부르신다. 그분의 이러한 초청에 반응하고, 기쁨으로 가득 찬 우리의 몸과 영혼을 온전히 빛 되신 그분께 드리게 될 때 참 인생이 시작되는 것이다.

나는 내가 묘사한 이러한 경험이 특별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나는 20년 넘게 한 교회에서 목사로 섬겼으며, 1994년 교회를 떠난 이후에 여러 지역을 다니며 여러 교회에서 말씀을 전했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 현대 교회에서는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인과의 친밀한 사귐이 현저하게 부족함을 발견하게 되었다. 많은 사람들은 믿음 생활에서 행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믿는 여러 규범들을 의무적으로 행하고 있을 뿐이었다. 우리는 믿음 그 자체의 놀라움을

잃어버렸다. 우리는 우리와의 친밀한 관계를 누리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어 주신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을 잃어버렸다.

수년 동안 나는 하나님을 더욱 사랑할 수 있게 해 달라고 기도했었다. 내가 영적으로 더욱 성숙해지자, 나는 그분을 더욱 사랑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나를 향한 그분의 사랑을 더 많이 알아 가는 것임을 깨달았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요일 4:19).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보여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그분께 이끄는 유일한 방법이다.

당신도 하나님과 친밀하게 동행하기를 원하는가? 이제껏 경험했던 그 어떤 것보다도 더 친밀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누리고자 하는 갈망이 당신의 내면 깊숙한 곳에서부터 솟아오르지 않는가? 당신이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은 그분의 은혜가 당신 안에서 작용하고 있다는 증거이다. 불행하게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한 이러한 갈망을 갖고 있지 않다. 그러나 당신이 하나님을 갈망하고 있지 않다면, 이 책을 읽고 있지도 않을 것이다. 당신은 하나님을 찾기에 갈급하고 있다. 당신이 뭔가 특별한 것일까? 우리가 그분을 갈망하는 것은 우리의 본성이 그렇기 때문이 아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분을 찾도록 우리 안에 갈급함을 불어넣으셨기 때문이다. 그분만이 그 갈급함을 만족시킬 수 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더욱 친밀하게 알고 싶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일하고 계시다는 증거다. 그분은 시작하신 일을 반드시 끝마치실 것이다.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빌 1:6).

나의 바람은 당신이 이 책을 읽을수록, 당신이 이제껏 바라보지 못했던 새로운 관점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 책을 읽어 나

가면서 당신이 기억해야 할 사실은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묘사하는 것에는 어떠한 과장도 있을 수 없다는 것이다. 도리어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나이다" (시 57:10). "나는 너를 이만큼 사랑한단다!" 하나님은 하늘 너머로 팔을 뻗으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은 인간의 유한한 말로 온전하게 묘사될 수 없다. 그러나 성령님은 인간의 언어를 넘어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 있다. 내가 기도하는 것은 이 책이 당신에게 가르쳐 줄 수 있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말씀하시는 것이다. 이 책을 더 읽어 나가기 전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당신이 갖고 있던 생각들을 내려놓고, 당신이 새하얀 백지가 되어 성령님이 직접 러브레터를 쓰실 수 있도록 마음을 열기 바란다. 이렇게 하는 것이 도움이 많이 될 것이다. 당신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다고 상상하든 간에, 실제 하나님의 사랑은 그보다 훨씬 크다. 마음과 생각을 활짝 열어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말씀하시고 보여 주시기를 원하시는 모든 것을 받아들이길 바란다. 이 책을 읽는 것이 단지 생각을 훈련시키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마음에도 깊은 영향을 줄 수 있도록 하라. 성령님이 당신의 생각과 감정 모두를 만지실 수 있도록 하라.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신 믿음과 갈망이 당신을 그분의 사랑과 열정에 대한 크나큰 깨달음으로 이끌어, 당신이 절대로 잊을 수 없는 – 영원히 잊을 수 없는 – 사랑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길 바란다.

함께 나아가기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를 배워 갈 때는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자. 하나님께

서 진리를 보여 주시는 단계마다, 당신의 삶에 역사하시는 순간마다 하나님과 함께 일하자. 매 장의 마지막에 나오는 기도들이 당신의 마음을 표현한다고 느낀다면, 당신의 생각과 소망도 동일함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도록 하라. 다음 장으로 넘어가기 전에 잠시 책을 내려놓고 하늘의 아버지와 교제하는 시간을 가져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진리가 당신에게 하나의 실체가 될 때까지 시간을 가져라.

사랑하는 아버지,

일상생활의 작은 일들에 너무 바쁜 나머지, 나는 하나님께서 주기를 원하시는 사랑의 기쁨을 잃었습니다. 주님이 저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진리를 발견할 수 있도록 저의 마음과 생각을 열어 주시옵소서. 제가 주님의 사랑을 더욱 새롭고 큰 사랑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시옵소서. 성령님이여, 나에게 말씀하소서. 제가 듣겠습니다.

>>> 초대의 응답 <<<

다음의 질문들을 숙고함으로써, 이 책 속에 담긴 진리들이 당신의 삶에 계속적으로 영향을 주게 될 것이다.

1.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것을 경험했던 마지막 순간을 묘사해 보라. 오늘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다양한 방법들에 대해 논의해 보라. 성경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여러 방법들 중에서 세 가지를 찾아보라.

2. 현대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와의 친밀함을 방해하는 것들은 무엇인가? 당신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방해하는 요소는 무엇인가?

3.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성경의 말씀들 중에서 당신이 가장 좋아하는 구절은 무엇인가? 하나님 안에 속한 자들을 위한 하나님의 사랑과 로마서 8장 29~30절의 말씀이 어떤 연관성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가?

4. 당신이라면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어떻게 정의하겠는가?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경험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 묘사해 보라

두번째 이야기

용서받고 잊혀짐

용서받고 잊혀짐

최근에 나는 한 이야기를 들었다. 이 이야기는 내가 항상 믿어 왔던 신념과 반대되는 것이었기 때문에 오랫동안 받아들이기 힘들었다. 존(당사자의 비밀 보장을 위해 이름을 바꿨다)과 그의 아내 사라는 외국의 어느 나라를 여행하고 있었다. 존은 오랫동안 자신이 하나님을 섬기노라고 말해 왔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해 큰일을 행하실 것이라고 친구들에게 자주 말하던 사람이다.

어느 날, 존과 사라는 어느 도시를 지나던 중에, 있지 말아야 할 장소에 자신들이 있음을 알게 되었다. 아니,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었다면 그들은 분명 그 장소에 갈 생각조차 하지 않았을 것이다. 어떤 면에서 그들이 한 일은 그리 새로운 것도 아니었다. 가지 말아야 할 장소에 가고,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을 한 사람이 그들만이 아닌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아무튼, 그 장소에 들어서자 존은 당황하기 시작했다. 사라는 아름다운 여

성이었고, 자신들이 결혼한 부부 사이라는 것이 이 지역의 사람들에게는 그리 중요한 사실이 아닌 듯했다. 주위에는 온통 그 도시의 우범지대에서나 볼 수 있을 것 같은 험악하고, 잔인하고, 힘세 보이는 남자들뿐이었다. 이 남자들은 존의 아내를 손에 넣기 위해서는 무슨 일이든지 할 사람들로 보였다. 그래서 존은 생각도 할 수 없는 일을 저지르고 말았다. 그는 아내 사라에게 그 남자들이 무슨 짓을 하든지 가만히 받아들이라고 말했던 것이다. 그들이 원하는 대로 해 주는 것이 이 두 부부가 살아서 그 도시를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으로 보였던 것이다.

존이 두려워했던 일은 일어나고 말았다. 이 이야기를 들려준 친구의 말에 의하면, 존은 사라가 그 도시의 남자들 중의 한 사람을 따라가도록 내버려 두었다는 것이다. 더 믿을 수 없는 사실은 이러한 일이 있고 난 뒤에도 여전히 존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고 말하고, 그분을 따르기 원한다고 말하는 것이었다. 어떤 사람들은 그러한 행동을 한 존이 참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말하겠지만, 존은 많은 사람들이 위대한 영적 지도자로 칭송하는 사역자다.

이 사람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어떤가? 그가 진정 영적인 지도자일 수가 있겠는가? 한 가지 덧붙일 사실은 그가 저지른 이 일이 비밀에 부쳐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결국 모든 사람들이 이 사실을 알게 되었다. 존을 아는 사람이라면 모두 이 일에 대해서 알았다. 또 중요한 사실은 이 사건은 존이 하나님을 믿기 전에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 사건은 존이 구원받은 후,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겠노라고 결심한 이후에 일어난 일이다.

잠시 책 읽는 것을 멈추고, 존이 처해 있는 상황에 대한 당신의 생각을 정리해 보길 바란다. 하나님은 그를 여전히 사역자로 사용하실 수 있겠는가, 아니면 그는 영영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했는가? 당신이라면 이 사람으로부터 영적인 조언을 받고 싶겠는가? 하나님께서 이 사람의 삶을 사용하고 싶어 하신다고 한다면 당신은 어떤 반응을 보이겠는가? 만약 존이 또 다른 남자로부터 자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이러한 일을 다시 저질렀다고 한다면, 이 사람에 대한 당신의 생각이 달라지겠는가? 그는 다시 한 번 이러한 일을 저지르고 말았다. 이러한 사실을 알 때, 존이 다른 사람들에게 영적인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

이 이야기에서 빠진 사항들을 이제 덧붙이겠다. 이 이야기를 나에게 들려준 친구는 성령님이다. 그분은 창세기 12장을 통해 이 이야기를 들려주셨다. 이 이야기를 전하면서 나는 주인공의 이름을 존이라고 불렀지만, 그의 진짜 이름은 아브라함이다. 이 이야기는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어떻게 애굽으로 내려가 죄를 짓게 되었는지를 보여 준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같은 사람도 사용하신다는 것은 그분의 은혜로 인한 놀라운(그리고 혼란스럽기도 한) 면이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사용하셨을 뿐 아니라, 창세기에서 그를 이렇게 깎아 내리셨던 것을 잊어버리기라도 하신 듯, 히브리서 11장에서 그를 믿음의 영웅으로 칭송하기까지 하신다. 많은 사람들은 아브라함을 '올해의 남편상' 후보로도 생각하지 않겠지만, 하나님은 그를 위대한 믿음을 가진 자로 부르신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 자

신이나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것과는 상당히 다른 관점으로 사람을 판단하신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그분은 행위를 넘어서,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더 깊숙한 내면의 중심을 보신다.

이 이야기를 적용할 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관점에 두려움을 느낀다. 그들은 이러한 논리가 사람들이 더욱 죄를 짓도록 부추긴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인간은 죄를 지으라고 누군가가 부추겨야 하는 존재가 아니다. 사람들은 이러한 이야기를 듣든지, 안 듣든지 죄를 짓게 마련이다.

새롭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교회에 들어설 때, 우리는 죄를 짓지 말라는 이야기를 많이 듣게 된다. 한 젊은 그리스도인이 나에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다. "제가 자란 교회는 하나님과의 친밀감이나 영적 성장 같은 것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었어요. 그 교회는 온통 술을 마셨느냐 안 마셨느냐에만 관심을 기울였거든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 죄를 안 지을 수 있는지에 대한 수많은 방법들에 대해 들어 왔다. 세상은 우리가 죄를 짓도록 유혹한다. 다른 한편에서 교회는 우리가 죄를 짓지 않도록 격려한다. 하지만 나는 어느 곳에서도 이미 죄를 지은 사람(우리 모두가 여기에 해당된다)에 대해 위로하는 것을 보지 못했다. 아브라함과 같은 죄를 저지르지 않았다고 해서 당신에게는 아무 죄가 없다고 생각하지 말기를 바란다. 간음은 분명 끔찍한 죄다. 하지만 20년 넘게 지역 교회에서 목회를 하면서 나는 헛소문과 수근거림이 얼마나 큰 해악을 끼치는지 너무나 많이 보아 왔다. 간음은 죄다. 하지만 수근거림도 마찬가지로 죄다. 다른 사람의 삶에 있는 수치스러운 죄를 발견하면서도 우리 삶에 있는 가벼운 죄에 대해서 눈이 멀어 버리기는 쉽다.

실패하고 낙심한 사람들을 겸손하게 대하는 듯 하면서도 실상은 그들을

정죄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들은 마치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첫째 아들과도 같다. 그들은 비웃음으로 어리석게 죄를 지은 사람들을 멸시하지만, 죄인이 자신의 어리석은 잘못에 대해 낙심하는 것만큼이나 자신들도 '충실한 섬김'의 삶을 살면서도 참된 기쁨을 누리지 못한다. 방탕과 율법주의는 모두 행위에 바탕을 두는 삶이 지니는 양면이다. 둘 다 사람의 영혼을 메마르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하게 만든다.

이 장(章)은 가장 심각한 죄(자신이 지은 죄를 알지 못하는 죄)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위해 쓰여진 것이 아니다. 대신 나는 성령님이 이 책을 통해서 자신이 죄를 저질렀음을 이미 알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위로와 격려를 주시기를 기도한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죄보다 크시다 – 그것도 아주 많이 – 는 메시지를 주신다. 당신이 아무리 큰 죄를 지었다고 해도,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친다"(롬 5:20 참조). 율법적인 사고방식에서는 다소 충격적으로 느껴지겠지만, 다시 한 번 간단하게 말하겠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을 능가할 만한 큰 죄를 저지를 수 없다!

오해는 하지 말기 바란다. 나는 죄의 심각성을 약화시키려는 것이 아니다. 죄는 심각한 문제다.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셔야 했다. 그러나 이 장(章)은 이미 죄를 지었고,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 쓰여졌다. 이 장은 자신의 죄를 이미 인식하고 이로 인해 죄책감과 영적 열등감에 싸여 있는 사람들을 성령이 자유롭게 하시기를 바라며 쓰여졌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과거에 지은 죄들에 묶여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주는 기쁨을 느껴 보지도 못했다. 내 의도는 사람들이 죄에 대해 유연한 태도를 갖게 하는 것이 아니다. 나는 죄로 인해 상처받은 사람들에게 관대하고 싶은 것이다!

은혜를 강조하는 것이 죄를 부추긴다고 염려하는 사람들을 조금 안심시켰으니, 이제 당신에게 눈을 돌려보자. 이미 죄를 지었고, 그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당신에게로 말이다. 예수님은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없으며 그들을 도우실 수 없다고 말씀하셨다. 그러나 자신이 죄라는 병에 걸렸으며, 의사의 처방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들을 예수님은 찾으신다. 당신도 대다수의 그리스도인들과 같다면, 당신을 부끄럽게 만드는 현재의 행동이나 과거의 사건들로 아파하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기억하라. 당신에게는 좋은 의사가 있다.

명예의 전당에 오른 특이한 명단

히브리서 11장에서 하나님은 그분이 믿음의 모범을 보인 사람들이라고 판단하시는 사람들을 열거해 놓으셨다. 그 곳에 명시된 이름들을 쭉 한번 훑어만 봐도 하나님은 그분이 사용하시고자 하는 사람들을 고르시는 데 그리 까다롭지 않으시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현대의 교회가 이러한 명단을 작성한다면, 11장에 있는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그 명단에서 제외되었을 것이다. 아니면 우리가 그 명단에 그들의 이름을 넣기로 결정했다면, 그들의 삶에 있었던 잘못되고 세속적인 사건들은 성경에 기록하지 않았을 것이다.

물론 아벨이나 에녹, 사무엘 등과 같이 잘못을 찾아보기 힘든 예외적인 사람들도 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 아니 그 명단에 있는 대다수의 사람들의 삶은 성경인물의 삶이라기보다는 저급 영화에나 나올 법한 그런 삶이었다. 아브라함이 그 좋은 예다. 11장의 다른 사람들도 현대 교회의 기준으로 본다면 별다를 것이 없다.

노아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불리웠지만, 땅이 다 말라 방주에서 나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아 술에 취해 누워 있었다. 창세기 8장 20절에서 노아는 방주에서 나와 단을 쌓았지만, 9장 21절에서는 술에 취해 벌거벗은 채로 누워 있는, 현재까지도 성경학자들의 논란거리가 되고 있는 추한 장면을 연출하고 있다.

히브리서 11장에 나와 있는 믿음의 영웅들의 삶을 연구해 보고 용기를 갖길 바란다. 그 명단에는 아버지 아브라함과 같은 죄를 저지른 이삭이 있다(창 26:6~9). 또 오늘날까지도 꾀 많고 약삭빠른 사람으로 기억되는 야곱도 있다. 모세도 한 사람을 죽인 살인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명단에 들어 있다(출 2:11~12). 삼손과 다윗도 현재까지 기억되는 간음 사건들에 연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명단에 들어 있다. 11장 31절에서는 '기생 라합' 이라는 표현도 서슴지 않고 사용한다.

만약 이 명단에서 부끄러운 죄를 지은 사람들을 제외시킨다면, 히브리서 11장은 훨씬 더 짧은 장이 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이 성경의 저자에게 이 명단에 대한 감동을 주셨을 때, 이들을 모두 포함시키시기로 결정하셨다. 이들의 찬란했던 업적뿐만 아니라, 추악한 죄도 모두 알려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그 명단에는 마치 다음과 같은 숨겨진 메시지가 있는 것 같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온전히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지 말라. 또한 당신이 죄를 지었다고 해서 당신의 삶을 사용하실 수 없다고 생각하지 말라. 이 사람들을 보라."

나는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에 죄를 지었어요

"제 말을 이해 못하고 계시네요." 제스가 말했다. "저는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에 그 죄를 저질렀단 말이에요. 제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모르고 있었던 것도 아니었다고요. 저도 그게 죄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그때 당시에는 상관없었죠. 저는 단지 가난이 지긋지긋했을 뿐이었어요. 회사의 회계원으로 근무하면서 저는 용돈을 좀 만들어 보려고 숫자 놀이를 했었죠. 하지만 들키지 않자, 저는 빼돌리는 돈을 조금씩 늘려 갔어요. 저는 사장님이 아무것도 모르시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제가 그곳에서 일하기 시작한 이래 처음으로 사장님은 외부 회계 감사를 실시하기로 하셨어요. 잡혔을 때에는 이미 수만 달러를 빼돌린 뒤였어요."

내가 제스를 만났을 때는 그가 감옥에 들어간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였다. 감옥에서 그는 다시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고, 하나님을 향한 강한 열망을 갖게 되었다.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그는 자신이 저지른 일에 대한 죄책감으로 괴로워하고 있었다. 그는 하나님이 어떻게 자신을 사랑하실 수 있으며, 더 나아가서 영적인 일들에 자신을 어떻게 사용하실 수 있을지 상상조차 할 수 없었다. 그가 말한 대로 그가 범죄를 저질렀을 때에 이미 그리스도인이 아니었던가.

당신은 아마도 감옥에 갈 만한 죄를 저지르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당신도 제스가 말한 것과 마찬가지로 계속적인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을 것이다. 현대 교회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 지었던 죄에 대해서는 너무도 쉽게 용서하는 경향이 있다. 그 죄가 살인, 동성연애, 이혼, 마약, 간음, 도둑질 등 등 무엇이었든지 상관하지 않는다. 한결같이 "그래요. 하지만 그것은 당신이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의 일들이잖아요"라며 관용을 베푼다. 이 말은 지극히 맞는 말이다.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 저지른 죄는 물론 용서받았다. 십자가의 공로로 그 죄들은 영원히, 돌아올 수 없는 곳으로 보내졌다. 하나님은 동(東)이 서(西)에서 먼 것처럼 우리의 죄를 하나님과 우리에게서 멀리 떨어지게 하셨다. 마치 일어나지도 않은 일처럼 되어 버린 것이다.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사실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데 그리 큰 어려움을 느끼지 않는다. 그렇지만 구원받은 후에 저지른 죄들에 대해서는 어떠한가?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에 저지른 죄에 대해서 우리는 자신이나 다른 사람들을 쉽게 용서하지 못한다. 우리는 이중적인 기준을 세우고 말았다. 그 이유를 찾는 것은 그리 어려운 게 아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시간관념과 관련이 있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용서를 온전히 이해하는 것은 우리에게 어려운 일이다.

알버트 아인슈타인은 말했다. "과거와 현재, 미래의 구분은 한낮 환상에 불과하지만, 사람들은 그것을 구분하려고 부단히도 노력한다." 인간으로서 우리는 가공의 시간선 상에서 살고 있다. 우리의 인생은 세상이 창조되었을 때부터 세상의 마지막 순간까지 이어져 있는, 시간이라는 연장선에 있는 작은 단편일 뿐이다. 시간의 지배를 받는 존재들로서 우리는 연속적으로 일어나는 사건들을 경험한다. 그러므로 아인슈타인이 시간을 환상이라고 말한 것은 맞는 말이다. 그리고 시간이라는 연장선 너머로 그것에 제약을 받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계신다. 그분은 영원히 현재에 존재하시면서 모든 역사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를 한 눈에 바라보고 계신다. 그분은 또한 시간의 개념을 넘어서

과거의 방향으로, 또한 미래의 방향으로 무한대를 바라보기도 하신다. 시간을 초월한 존재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든 사건을 동시다발적으로 바라보신다. 당신이 태어나기도 전부터 하나님은 당신의 인생이라는 시간을 바라보신다. 전지하신 그분은 당신이 생각하게 될 모든 것, 당신이 말하게 될 모든 것을 알고 계심에도 여전히 당신을 죄에서 구원하시고 그분의 자녀로 삼기로 작정하셨던 것이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창 12:1)고 명령하실 때 그가 애굽으로 내려갈 줄을 미리 알고 계셨는가? 하나님이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명령하셨을 때 그가 방주에서 나오자마자 술에 취해 누워 있게 될 것을 알고 계셨는가? 하나님은 모세, 야곱, 삼손, 다윗의 죄들을 미리부터 알고 계셨을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 대한 모든 것들을 미리 알고 계시는가? 물론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을 가까이 오도록 부르고 계신다.

하나님은 당신이 태어나기 전부터 당신의 모든 것에 대해서 알고 계셨다. 시간에 속박되지 않으시는 그분은 당신의 삶에 대한 모든 것을 바라보고 계실 뿐 아니라, 한번에 당신의 삶의 모든 상황들에 관여하실 수도 있다. 당신이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 당신의 과거 죄들만 용서된 것이 아니다. 당신의 삶 전체에 있게 될 모든 죄들이 십자가를 통해 해결되었다(골 2:13~14).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당신의 죄를 감당하셨을 때 그 죄는 미래적인 사건이었다. 당신이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 당신의 죄는 완전히 용서받았다. 당신이 이미 지었던 죄도, 앞으로 짓게 될 죄도 이미 용서받았다. 마치 일어나지 않은 일이 되어 버린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관대한지를 알고, 우리가 짓게 될 모든 죄악들이 이미 용서되었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자신들을 "경건치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근심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세상에 살게 하심"(딛 2:12)을 알게 된다. 우리의 모든 죄악이 용서받았다는 것은 역사적이고도 영원한 사실이다. 우리는 의롭게 되었을 뿐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영화롭게 되었다(롬 8:30). 우리가 어떻게 영화롭게 되어 그리스도와 함께 앉아 있을 수 있겠는가? 그것은 이미 영원한 나라에서 다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가능하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간에서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틀림없이 이 일은 이미 완성된 일이다.

이러한 사실을 깨달을 때 우리는 과거의 죄가 주는 죄책감이나 앞으로의 죄에 대한 의무감에서 벗어나게 된다. 우리는 마치 지뢰밭을 지나가는 것처럼, 유혹이라는 지뢰를 밟아서 우리의 믿음이 통째로 날아갈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으로 인생을 살 필요가 없는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된 정체성을 아는 그리스도인은 죄와 유혹으로 인해 노이로제에 걸릴 필요가 없다. 우리의 책임은 오로지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하는 것뿐이다. 어떻게 안식할 것인가? 예수님은 우리가 그분 안에서 쉬고, 그분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그분이 주는 참생명을 누리도록 우리를 부르셨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땅 위에서 사는 짧은 기간 동안 우리를 찾아오는 유혹과 죄악을 잘 감당하게 하신다. 하나님은 그분의 사랑에 반응하도록 우리를 이끄는 성령님의 임재의 능력을 통해 그분이 우리 안에 시작하신 선한 일을 이루신다.

하나님은 당신의 죄를 모두 용서하셨고 잊으셨다. 그처럼 간단한 일이다.

당신에게 너무 엄격하지 않기 바란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다! 당신이 거듭난 이후에 지은 죄는 당신이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 저지른 죄들과 같은 상황에 놓여 있다. 용서받고 잊혀진 것이다!

하나님은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을 사랑하실 수 있단 말인가

"저는 하나님이 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사실을 정말 믿어요." 웬디가 말했다. "저는 단지 아직까지 완전히 이기지 못한 죄들과 씨름하고 있어요. 제가 죄로부터 완전히 돌아서지 않았는데도 저를 그만큼 사랑하신다는 사실은 받아들일 수 없어요. 저도 잘 하려고 노력하지만, 자꾸 넘어지게 돼요. 하나님은 저한테 많이 실망하셨을 거예요." 자신의 삶이 보이는 모순에 온통 신경을 집중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웬디의 이러한 생각에 모두 동의할 것이다. 그녀는 자신이 처신만 좀 더 잘한다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더 기뻐하실 거라고 믿었다. 우리의 행동에 따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생각이 바뀐다는 사실이 정말일까?

복음의 좋은 소식들 중 하나는, 우리가 우리의 약함과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 가지고 나올 수 있으며, 그것들을 솔직하게 인정할 수 있다는 사실이다. 우리는 우리의 죄를 부인할 필요가 없다. 그것들에 대해 변명을 늘어놓을 필요도 없다. 앞으로 더 잘할 것이라는 약속을 할 필요도 없다. 오히려 우리는 우리가 노력하면 할수록 더 잘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우리가 더 잘할 수 있다는 생각은 믿음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자기 노력에서 기인한 생각이다. 율법주의는 하나님을 위해 우리의 행동을 변화시켜야 한다고 강조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십자가로 가까이 나오라고 말한다. 우리의 삶에서 죄를 발견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하늘의 아버지께로 달려가서 추악한 모습 그대로 그분 앞에 내어놓는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하나님"(시 68:20)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말이다.

어느 날 나는 아직 아기인 어린 손자를 무릎 위에 앉혀 놓고, 그 아이를 웃게 하기 위해서 계속 그를 향해 웃었다. 효과가 있었다. 내가 웃을 때마다 조나단은 내 기뻐하는 얼굴을 보고 따라 웃었다. 소파에 앉아 같이 웃으면서 벅차오르는 감동과 함께 생각했다. '이 애를 향한 사랑이 이렇게 크게 일어날 수 있다니 참 놀랍군.'

그때 떠오른 생각은 분명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었다. '너를 향한 나의 사랑에 비하면 너의 그 사랑은 아무것도 아니란다.' 내가 내 자녀나 손자들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크고 무한하신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나는 그 사랑에 감격할 수밖에 없었다.

소파에 앉아서 조나단과 함께 놀고 있을 때, 나는 조나단이 나에게 '죄를 지었다'는 사실을 점점 확신하게 되었다. 기저귀에 실례를 한 것이다. 그것도 아주 크게. 내가 그 애를 무릎에 앉혀 놓고 사랑과 관심을 이토록 쏟아 붓고 있는데, 감히 이런 짓을 나한테 하다니! 내가 그때 취한 행동이 무엇이었겠는가? 화가 나서 그 애를 집어 던지며 "내게서 떠나라, 이 사악한 종아!"라고 소리쳤겠는가? 절대로 아니다. 나는 아기의 특성을 이해하고 있었다. 그들에게 이러한 짓은 당연하다. 그 아이의 행동을 즐거워한 것은 아니지만, 그것이 우리의 관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친 것은 전혀 아니다.

조나단은 곧 그러한 습관에서 벗어나 성숙한 행동을 하게 될 것이다. 훗날

이 사건에 대해 생각하면서 나는 하늘 아버지의 인내와 인자하심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었다. 그분은 우리가 그분 안에서 기뻐할 수 있도록 항상 우리와 교제하시기로 결단하셨다. 그러나 그때에도 우리는 그분에 대해 죄를 저지르게 된다. 우리가 잘 되라고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많은 것을 망쳐 버린다.

우리가 그분께 대하여 죄를 지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내치시는가? 절대로 아니다! "이는 저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진토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시 103:14). 조나단이 아기로서 경험했던 문제 – 실례한 기저귀 – 는 그의 기분을 바꿔 놓았다. 행복했던 그는 언짢아지기 시작했다. 그는 곧 울기 시작했으며, 본능적으로 자신보다 그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았다. 그리스도인들이 죄를 지었을 때도 같은 일이 일어난다.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빠지게 되었든지 간에 우리보다 크고 우리를 깊이 사랑하시는 분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그 상황에서 구해 주신다. 우리는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소리쳐 부르기만 하면 된다. 나머지는 그분이 알아서 해 주실 것이다.

죄 다루기

우리의 일생 동안에 짓게 될 모든 죄를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다면, 성경은 우리가 죄에 대해 어떻게 반응하도록 가르치고 있는가? 한 마디로 말한다면, '극복하라!' 고 한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기를 단번에 제사로 드려 죄를 없게 하셨음" (히 9:26)에도 불구하고 현대 교회가 죄에 대해 그토록 연연해하는 사실을 보면 놀라지 않을 수 없다. 예수님께서 '없게 하시려고' 하신 것을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논의하고, 연구하고, 토론하고, 꾸짖고, 강조하고, 그것에 동참하고, 대부분의 시간을 그것에 대해 생각하며 보낸다. 예수님께서 없애신 것을 우리는 왜 그토록 다시 끄집어내려고 하는가?

때로 우리는 죄를 경험해 보기 위해 그것을 다시 끄집어낸다

그리스도인들이 비록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옷 입었다고 하더라도(롬 5:17, 19),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과 투쟁해야 한다(롬 7:23). 은혜 가운데 걸어가는 것은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있게 하지만, 그것이 죄를 지을 가능성을 완전히 없애 주는 것은 아니다.

전혀 벗어날 수 없을 것 같은 죄가 당신에게 있는가? 율법주의는 자유를 얻기 위해 당신이 할 수 있는 것들을 수천 가지 알려 주지만, 사실상 하나님은 당신이 영원한 자유를 누리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들을 이미 취해 놓으셨다. 자유를 위한 열쇠는 바로 우리 안에 내재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다. 그리스도께서 죄를 없이하신 사역이 이미 완성된 것이라고 믿는다면, 그분만이 우리의 승리가 되심을 또한 이해해야 할 것이다.

나는 최근에 스테판이라는 한 젊은이로부터 이메일을 하나 받았다. 그의 어머니는 그가 10살 때 자살했다. 그로 인한 고통을 덜기 위해 그는 일찍부터 포르노에 심취하기 시작했다.

> 저는 어머니의 죽음이 주는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 포르노를 찾았고, 제가 11살이 되었을 쯤에는 이미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심하게 중독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문제의 심각성을 느끼지 못했어요. '그림일 뿐이잖아' 하고 저는 스스로에게 말하곤 했습니다.
>
> 고등학교 때 친구 몇 명이 나에게 복음을 전했고, 제 인생에 처음으로 제 자신이 죄인이고, 구세주가 필요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저의 구주로 받아들였

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 살며, 제 인생의 모든 영역에서 그분께만 순종하기로 결단했습니다. 정말 저는 올바르게 살려고 무지하게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포르노에 너무 얽매어 있어서 제 의지로는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저는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시도했습니다. 기도도 하고, 금식도 해 보고, 성적인 죄와 관계된 모든 성경구절들을 암송해 보기도 했습니다. 치유 세미나에도 참석해 보고, 십일조를 꼬박꼬박 냈으며(마치 자유를 돈을 주고 살 수 있기라도 한 것처럼 말입니다),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해 보기도 했습니다. 인터넷에서 성인 사이트는 차단했고, 음란 전화선들도 끊었습니다. 이는 제가 한 것 중의 일부에 지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여전히 포르노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저는 자살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때, 친구 하나가 선생님의 책 『내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며 읽어 보라고 권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책을 통해 저에게 그리스도 안에서의 정체성에 대해 가르치기 시작하셨고, 저에게 필요한 유일한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임을 더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드디어 알게 된 것이었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만 제가 자유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자유로워졌고, 지금도 자유합니다. 제 문제의 해답이 더 많은 종교 규범이 아닌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그것들은 더 깊은 죄책감과 죽음의 수렁으로 이끌 뿐입니다). 제 문제의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받는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입니다.

스테판이 한 말들을 한번 생각해 보라.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리스도 안에서의 정체성에 대해 가르치기 시작하셨고, 저에게 필요한 유일한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임을 저는 더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스테판의 자유는 계시에 의해 얻어졌다.

그가 책을 통해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과업에 대해 읽어 나갔을 때, 성령님은 그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도록 도와주셨다. 그리고 기적이 일어났다.

스테판은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드디어 알게 된 것이었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만 제가 자유할 수 있습니다." 스테판은 자신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볼 때, 그가 죄에 포로로 잡혀 있는 모습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삶과 승리를 보심을 믿었다. 그는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보게 된 것이다. 이러한 계시는 큰 기쁨과 자유를 주었다.

당신의 삶 속에도 벗어나기 힘든 죄가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그분은 스테판에게 주셨던 기쁨과 자유를 주는 계시를 당신도 경험하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시작하신 일을 끝내시기로 약속하셨다.

때로 우리는 자기 정죄를 경험하기 위해 죄를 다시 끄집어낸다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정죄에 호감을 가진다는 사실은 실로 불가사의한 일이다. 자기 정죄는 우리가 스스로를 벌하는 것으로,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과업에 도전하는 것 이상의 그 무엇도 될 수 없다. 스스로를 미워함으로 자기에게 벌주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었다"라고 선포하셨을 때, 그분이 틀렸다고 말하는 것이다. "아직 제가 해야 할 일이 남아 있어요. 바로 제 자신을 멸시하는 것이죠." 믿음 없는 자는 계속해서 이렇게 말한다.

자기 정죄는 율법주의적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마치 거룩한 의식(儀式)과도 같다. 그것은 자신의 죄를 보상하는 하나의 방법이다. 의식하든 못하든지 간에, 그는 자신이 충분히 후회하고, 언짢아하고, 스스로를 충분히 채찍질하고, 충분한 모욕감을 느끼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용서하실 거라는 이론을 갖고 있다.

그의 행동은 뉘우침으로 가득 찬 것같이 보이지만, 실상은 아주 비열하고 외식적인 최고의 교만을 품고 있다. 그는 자신이 죄를 용서받을 수 있을 만한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죄책감이라는 대가로 스스로 죄의 값을 치를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러한 자기중심적인 생각은 그리스도께서 이미 완성하신 과업에 정면으로 대항하는 것이다.

그는 경건하게 들리는 말들을 하지만, 그의 자기혐오는 그가 율법과의 외도(外道)를 더 사모한다는 사실을 나타낼 뿐이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자로서 율법에 대해 죽임을 당하였을지는 모르지만(롬 7:4), 여전히 자기 판단의 침대 위에서 율법과 함께 뒹굴어 육신의 어둡고 깊은 내면에서는 은밀한 쾌락을 누리고 있는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하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 예수님께서 그 부분에서 성공하지 못하셨다면, 우리의 소망은 헛된 것이다. 그분께서 성공하신 것이라면, 자기 정죄의 모든 말들은 십자가의 능력을 희석시킬 뿐 아니라 부인하는 것이다.

당신은 과거나 현재의 죄에 대해 스스로를 정죄함으로 하나님께 죄를 짓고 있지는 않는가? 자기 정죄는 불필요한 것일뿐더러 그 자체가 죄다. 브래넌 매닝(Brennan Manning)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우리 스스로에게 행하는 학대를 우리는 우리가 기르는 개에게도 하지 않을 것이다." 죄를 끊어 버리고 하늘 아버지의 품으로 뛰어들어 그분 앞에 당신의 죄와 자기 정죄 모두를 내려놓으라. 그 모든 것을 그분의 발 아래 내려놓고 그분이 당신을 사랑할 수 있도록 하라. 당신에게 심판은 없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그렇게 선포하셨을 때 이미 없어진 것이다. 사랑과 용납의 말들 이외에 하나님이 당신에게 하실 말씀은 없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죄를 끊어 버릴 수 있는 것일까? 이 믿기지 않는 진리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당신의 눈과 귀를 열어 달라고 간구하라. 찰스 K. 로빈슨 박사(Dr. Charles K. Robinson)의 말을 나는 좋아한다.

> 나는 너를 안다. 내가 너를 창조했다. 나는 네가 태중에 있을 때부터 너를 사랑했다. 네가 지금 깨달았듯이 너는 나의 사랑으로부터 떠나갔었다. 하지만 나는 네가 얼마나 멀리 떠나 있든, 변함없이 너를 사랑한다. 네가 도망갈 수 있는 힘도 모두 내가 주는 것이고, 나는 너를 절대로 놓지 않을 것이다. 나는 너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 너는 이미 용서받았다. 나는 너의 모든 고통을 알고 있다. 나는 항상 그것들을 알고 있었다. 네가 고통당할 때, 네가 이해할 수 없는 수준에서 나도 고통 받는다. 나는 네가 네 인생과 다른 사람들의 인생에 있는 추악한 모습들을 가리려고 부리는 자그마한 속임수들도 모두 알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너무도 아름답다. 네가 보는 네 모습보다 더욱 아름답다. 너는 이 세상의 유일한 존재이기 때문에 아름답다. 나의 거룩함을 아주 특별한 방법으로 나타내는 존재이기 때문에 아름답다. 오직 나만이 네가 이루게 될 아름다움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더욱 아름답다. 너의 약한 것 가운데서 더욱 강해지는 내 변화의 능력으로 너는 너만의 독특한 아름다움을 갖게 될 것이다. 이 일은 내가 혹은 네가 혼자 이룰 일이 아니다. 우리가 함께 이뤄 갈 일이다.

당신의 죄는 사라졌다. 그것은 용서받고 잊혀졌다. 당신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의 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서 이미 사라졌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랑의 교제를 방해할 어떠한 장애물도 없다. 당신이 아름답다는 말은 진리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당신 안에 있는 모든 추함이 사라져 버렸기 때문이다.

당신은 새로운 피조물이다(고후 5:17). 당신에게 죄책감을 주고 근심하게 만드는 모든 옛것은 영원히 사라졌다. 당신의 죄를 적어 놓았던 장부에는 '결제 완료'라는 도장이 찍히게 되었다. 하나님도 더 이상 당신의 죄를 문제 삼지 않으실 것이다. 이제 당신의 죄를 모두 날려 버릴 수 있게 된 것이다. 하나님이 이미 잊으신 것에 당신의 에너지를 소비하지 말기 바란다. 대신에 그분 안에서 기뻐하라. 모든 죄책감과 정죄에서 온전히 자유하라.

사랑하는 아버지,

제 인생의 모든 죄는 사해졌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의 과거와 현재, 미래의 모든 죄악에서 돌이켜 주님만 바라봅니다. 제가 붙들고 있었던 모든 자기 정죄도 끊습니다.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다 이루었다"는 말씀이 저의 모든 죄를 없애기에 충분함을 감사드립니다. 제가 항상 온전한 용서가 주는 기쁨 가운데 걸어갈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고, 아버지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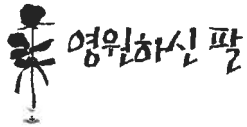
>>> 초대의 응답 <<<

다음의 질문들을 숙고함으로써, 이 책 속에 담긴 진리들이 당신의 삶에 계속적으로 영향을 주게 될 것이다.

1. 창세기 12장 10~20절에 나오는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야기를 읽어 보라. 그 이야기가 보여 주는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것인가? 현재 큰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들에 대한 예를 찾아보자. 그들의 이야기를 당신의 삶과 어떻게 연관시킬 수 있겠는가?
2. 믿음의 영웅들이 명시된 히브리서 11장의 목록을 읽어 보라. 그들이 각각 저지른 죄들을 성경에서 찾아보라. 그들은 자신들의 죄를 어떻게 극복했는가?
3. 우리 일생의 모든 죄가 완전히 사해졌다는 사실을 어떻게 교회에 효과적으로 가르칠 수 있는지 논의해 보라. 골로새서 2장 13~14절을 읽고, 당신의 말로 다시 표현해 보라. 그리스도인들의 완전한 용서를 말해 주는 구절이 또 어디 있는지 찾아보라.
4. 자신의 삶에 있는 죄를 발견했을 때 그리스도인이 취할 수 있는 행동으로 이 장(章)에 소개된 방법은 무엇인가?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에 지은 죄에 대한 죄책감에 시달리는 그리스도인에게 당신은 무슨 말을 해 주겠는가?
5. 왜 자기 정죄가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완성하신 일에 대한 모욕이 되는가? 자기 정죄로 씨름하고 있는 사람에게 당신은 어떤 성경구절을 제시하겠는가?
6. 히브리서 9장 26절을 읽어 보고, 예수님께서 "죄를 없이 하셨다"는 말이 무슨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 논의해 보라. 어떠한 부분에서 예수님은 죄를 없이 하셨는가?

세번째 이야기

영원하신 팔



영원하신 팔

근본주의 성경학교(Fundamentalist Bible College)의 한 유명한 학장은 다음과 같이 말한 적이 있다. "내 인생을 다시 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나는 내가 한 일을 그대로 반복할 것이다." 나는 이 말에 다소 당황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고백을 진심으로 할 수 있을까! 그가 내렸던 모든 결정들은 완벽한 것들이었을까? 이 학장의 삶에 대해서 내가 할 수 있는 말은 없지만, 내 삶을 뒤돌아보면, 다시 기회가 주어진다면 하고 싶지 않은 어리석은 일들이 많이 있음을 볼 수 있다.

결혼한 후 얼마 되지 않아, 나는 노숙자들에게 사역하는 뉴욕의 어느 단체에서 함께 일하도록 부르심을 받았다고 생각한 적이 있었다. 나는 이것이 우리의 부르심이라고 새신부인 멜라니를 설득해서, 침대와 냉장고(갓 결혼한 부

부에게 필수적인 것들)를 제외하고 모든 것을 팔아 버리는 믿음의 행위까지 했다. 몇 달 후, 뉴욕의 그 단체가 우리의 지원을 받아들이지 않자, 우리는 한동안 가구라고는 일체 없이 거의 텅 비어 있는 집에서 살아야만 했다.

이것은 내 인생의 여러 실수들 중 한 가지일 뿐이다. 당신이 나를 바보로 생각하지 않도록 그 모든 실수들을 나열하지는 않을 것이다. 내가 초창기의 이러한 실수를 나누는 이유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리석은 결정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주고 싶기 때문이다. 뉴욕으로 가고자 했던 나의 바람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과는 달리 우리의 충동적인 결정들 중 상당 부분은 실제로 이루어지기도 한다. 그러나 이러한 결정에 따라갔다가 많은 낭패를 본 후에야 우리는 이러한 어리석은 선택을 하지 않았으면 어땠을까 하고 후회한다.

어느 날 내가 설교를 마친 한 교회에서 룻이 다가와 말했다. "저는 제가 바라는 것만큼 하나님과의 친밀감을 느껴 본 적이 한번도 없어요. 아마도 제 결혼 생활이 그 원인이겠죠. 저는 남편 이외의 사람과 데이트도 제대로 해 보지 못하고 어린 나이에 제 남편과 결혼했어요. 결혼 생활 20년 내내 우리의 관계는 흔들렸어요. 사실 저는 남편을 만나기 전에 선교사가 되기로 결심했었어요. 때때로 이 결혼이 사랑 그 자체와 사랑에 빠져 버린 어린 소녀의 충동적인 결정에 의한 것이 아니었나 생각해 봐요. 저는 선교사가 되지 않은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실망하셨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인생에서 실수했을 때 우리의 반응

룻은 자신의 선택이 평생 동안 하나님과의 관계를 방해할 것이라고 믿고 있었다. 그녀가 하나님께 일부러 죄를 지은 것은 아니었다. 그녀도 그것은 실수였다는 것을 인정하지만, 한 번의 잘못된 선택이 평생토록 하나님의 차선책의 은혜만을 받을 수 있도록 만들었으며, 자신은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최선의 삶이 무엇이었을까 궁금해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 믿고 있었다.

이러한 태도는 하나님과의 깊은 친밀함을 방해하기 위해 사탄이 잘 사용하는 속임수일 뿐이다. 우리의 실수를 잊지 않고, 우리가 한 실수는 돌이킬 수 없으며 자신의 계획을 수정하게 만들었다는 사실을 계속 상기시키는 사람과 어떻게 깊고, 사랑스러운 관계를 유지할 수 있겠는가? 하나님의 인정을 받지 못할 만큼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저질렀다고 믿기 시작할 때, 하나님과 당신의 깊고 친밀한 교제는 방해를 받게 된다. 우리가 모든 것을 망쳐 버렸다고 생각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여전히 최선의 것으로 우리에게 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기가 어렵다. 우리는 아무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셔도, 우리가 실수하지 않았을 때 받는 축복같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게 된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탓하며 우리 자신의 잘못에만 초점을 맞춘다. 이러한 태도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받아들이는 데 악영향을 미친다.

당신은 좋은 기회를 망쳐 버린 결정들을 내린 적이 있는가? 그랬다면 이런 파괴적인 시각에서 당신을 벗어나게 할 수 있는 좋은 소식이 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실수보다 더 크시다는 것이다! 당신이 이미 저질렀거나 앞으로 저지를 수 있는 어떠한 실수도 당신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삶에서 당신을 벗어나게 할 수는 없다.

당신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이 제위치에 있는 것은 당신의 책임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사항이다. 모든 것이 당신

이 아닌 하나님께 달렸다는 뜻의 말인 은혜라는 단어에서 이 사실은 증명된다. 당신은 여러 번 우회할 수는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지정하신 길이나 당신의 삶을 위한 하나님의 뜻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는 없다.

주권자이신 하나님

시편 기자는 하나님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노래했다. "여호와께서 그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 정권으로 만유를 통치하시도다"(시 103:19). 이 세상의 모든 일은 우연하게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초월적인 통치 하에서 움직인다. 큰 관점에서 보면,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골 1:16). 하나님은 모든 것을 통제하시는 크신 하나님이다. 하늘의 별들은 허공에 그냥 떠 있는 것이 아니다.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전능하신 뜻에 따라 하늘에 달려 있는 것이다. 바다의 밀물이 들어왔다가 우연한 곳에서 멈추고 다시 바다로 빠져 나가는 것이 아니다. 하늘의 특별한 계획에 따라 불려 나가는 것이다. 지구도 그저 우연히 자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신 것이다.

하나님은 이렇듯 우주의 거대한 법칙에 관여하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생사의 세세한 순간들에까지도 세심한 관심을 보이신다. 예를 들어, 성경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머리카락 수도 알고 계신다고 말씀한다. 이것은 우리에게 세심한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것이다. 둥지에서 떨어지는 아기 새도 하나님은 모두 알고 계신다(마 10:29~30).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는 세상과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을 만큼 작은 세상 모두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직접적인 통치에서 벗어날 만큼 너무 크거나 너무 작은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인간이 하나님의 창조물 중에서 가장 존귀한 것이며, 특히 그리스도인들은 그분이 특별히 지으신 것임(엡 2:10 참조)을 생각해 볼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개인적이고도 세밀하게 관여하신다는 사실을 확신할 수 있을 것이다. 성경에는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에 있다"(잠 5:21)고 말씀하신다. 이 말은 누군가가 당신 옆에서 당신과 함께 걸으며, 당신이 하는 모든 행동을 조심스럽게 관찰하고, 세밀하게 검사하고, 분석하는 것을 의미한다. 하나님은 당신의 행동만을 보고 계신 것이 아니다. 당신의 마음가짐, 어떤 행동을 하게 된 동기들까지도 하나님은 보고 계신 것이다(잠 21:2). 의심의 여지가 없다. 하나님은 당신을 늘 지켜보고 계셨으며, 앞으로도 지켜보고 계실 것이다.

내 머릿속에서 어떠한 사람에 대해 끊임없이 계속적으로 생각해 본 적은 없다. 하지만 당신은 언제나 하나님의 의식 속에 있으며, 언제라도 하나님의 즉각적인 관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하나님은 당신 생각으로 영원히 가득 차 있으시며, 당신에게서 생각을 돌리실 수 없다. 그분은 당신을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그분의 모든 재원을 당신이 잘되는 데 사용하신다(이것은 극히 당연한 것이다). 하나님은 잠시도 당신에게서 눈을 돌리신 적이 없다.

거짓의 아비, 속이는 자 사탄은 당신으로 하여금 당신의 선택으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거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당신을 사용하시는 것에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믿게 만든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정반대다. 선지

자 다니엘이 땅의 모든 거민을 다 모아도 하나님을 측정할 수 없다고 말했을 때 그는 이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었다. 그는 다니엘 4장 35절에서 "……땅의 거민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누가 그의 손을 금하든지……"라고 썼다.

이 진리를 이해하기 전, 나는 내가 한 실수 때문에 나 자신을 책망하던 때를 기억한다. 나는 '내 자신의 어리석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들을 온전히 이루실 수 없다' 고 생각했다. 그 순간에 또 다른 생각이 머릿속에 떠올랐다. '속지 마라. 네가 그런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냐.' 나는 후자의 생각이 누구의 목소리였는지 안다. 당신도 그렇지 않은가? 하나님은 그분이 계획하신 것들을 반드시 행하시는 분이시다. 우리가 그것을 막을 만큼 크고 능력 있다고 생각함으로 우리 자신을 속이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통제하시지 않는다면, 누가 모든 것을 통제하겠는가? 바울은 하나님을 "홀로 한 분이신 능하신 자이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딤전 6:15)라고 표현했다. 하나님만이 유일한 통치자라는 사실을 명확히 선포하는 말씀이다. 그분은 누구의 허락도 받지 않으시며, 누구의 충고도 필요로 하지 않으신다. 그분은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을 행하시며, 그 이유를 굳이 우리에게 설명하셔야 할 필요가 없다.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이 많다. 왜 하나님은 어떤 것은 허락하시고 어떤 것들은 막으시는지 말이다.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거나, 불경스런 의도가 있어서 하는 말은 아니지만, 내가 모든 것을 통치할 수 있었다면 나는 다르게 했을 것이다. 하지만 모든 통치권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며 오직 한 분이신 그분께 있는 것이다. 그분의 보이지 않는 동기와 방법들을 우리가 완전히 이해할 수는 없다. 우리가 그분의 방법을 온전히 이해한다면, 우리는 그분을 다 아는 것일 테지만, 하나님은 다 알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현대의 종교는 인간의 이성과 가치에 순복하고, 예상 가능한 행동만 하는 신을 이야기한다. 그들은 안락하고 따뜻한 삶을 제공하는, 요술 램프 속의 지니와 같은 신을 제시한다. 그러나 성경 속의 하나님은 그러한 분이 아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통제권 밖에 계시며, 어떤 때는 열정적인 관심과 사랑을 보이시다가, 우리가 그분을 가장 필요하다고 느낄 때, 머나먼 휴가를 떠나 버린 것처럼 잠잠하시는 분이시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분을 완전히 이해할 수 없다.

14세기의 어느 무명작가가 말한 것처럼, 하나님은 미지의 구름 속에 존재하신다. 그분의 기준은 우리의 것을 훨씬 넘어서는 것이기 때문에 이 세상은 물론 우리의 삶에 관여하시는 방법을 이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우리 중에 영적으로 가장 성숙한 사람들도 종종 "하나님의 의도가 도대체 뭘까? 하나님이 이 상황에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무엇일까? 이러한 정황들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 하고 묻곤 한다.

때때로 우리는 우리가 살아온 인생을 돌아보면서, 그때 당시에는 불합리해 보였던 하나님의 방법을 시간이 흐른 뒤 이해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인생의 많은 일들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대부분이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그분의 통치를 신뢰할 수 있는 힘을 준다. 이러한 믿음으로 우리는 계속적인 좌절과 혼돈, 의심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다. 우리는 그분의 신실하심 안에서 그분의 방법들을 신뢰할 수 있다. 그 방법들이 우리의 것과 다르더라도

말이다.

하나님의 영원하신 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를 이해하기 시작할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과 그분의 주권을 신뢰할 수 있게 된다. 당신이 하나님 안에 속해 있기 때문에, 당신이 이미 내렸던 결정들이나 앞으로 내리게 될 결정들에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의 기본적인 필요들을 채우신다. 성경의 기본적인 메시지를 두 단어로 표현한다면,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서"가 될 것이다. 이 표현은 신약에서만 77번 쓰였다.

최근 기독교의 가르침은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에 들어오심을 강조하지만, 신약의 강조점은 우리가 그분의 생명에 참여했다는 것이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있느니라"(행 17:28)고 누가는 썼다.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은 우리의 옛 생명을 죽이셨고(갈 2:20, 롬 6:1~7, 골 3:3),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우리의 것으로 주셨다.

하나님은 당신을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그분께로 당신을 부르셨고, 영원히 그리스도 안에 있게 하셨다. 당신의 선택들이 당신을 그리스도 안에 있게 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그분의 판단에 의해 이루어졌다. 그분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는 그분 안에서 안식할 수 있는 고향에 온 것이다.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선포하며 하나님의 안식 안으로 그들을 이끌겠다고 약속했을 때, 그는 "영원하신 하나님이 너의 처소가 되시니 그 영원하신 팔이 네 아래 있도다"(신 33:27)라고 말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성경은 말한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원하신 팔이 그들 아래 있다.' 하나님의 영원하신 팔이 당신 아래 있다는 말이 무슨 의미인지 알겠는가? 나는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내가 어렸을 때의 기억을 떠올린다.

교회 학교에서 수영장 파티를 열었을 때였다. 나를 제외한 모든 아이들이 수영을 할 줄 아는 것 같았다. 우리 선생님은 수영장 한쪽 구석에 서 있기만 하는 나를 발견하시고 다가오셨다.

"스티브, 수영할 줄 모르니?"

"네." 나는 창피해하며 대답했다.

"내가 가르쳐 줄까?" 그분이 물으셨다.

나는 동의했고, 선생님은 곧 강습을 시작하셨다. "첫번째로 기억해야 할 것은 말이지, 네가 가라앉거나 익사할 거라고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란다. 네가 긴장을 풀면 몸이 물 속에서 뜰 거야. 그냥, 물 속에 편안히 누워 있어 봐." 그분은 말씀하셨다. 나는 물 속에 누워서, 그분이 알려 주신 대로 하려고 했다. 하지만, 물이 귀 속으로 들어온다는 느낌이 들 때마다 나는 고개를 들었다. 그러면 내 몸은 가라앉기 시작하는 것이었다. "고개를 들지 마." 선생님은 나를 격려하시면서 말씀하셨다. "그냥 긴장을 풀고, 귀가 물 속에 잠기도록 해. 그래도 가라앉지 않아." 다시 한번 나는 그분의 말씀대로 해 보려 했지만, 물이 귀를 넘어 얼굴로 올라온다고 느끼자 나는 또다시 고개를 들었고, 가라앉기 시작했다.

결국 그분은 말씀하셨다. "누워 봐. 네가 가라앉지 않도록 내가 팔로 잡아

줄게." 나는 다시 누웠고, 약속하신 대로 선생님이 밑에서 나를 잡아 주시는 것을 느꼈다. 그분이 잡아 주시는 것을 느끼자, 나는 다소 긴장을 풀 수 있었다. 시간이 조금 흐르자 나는 편안해졌다. 마침내 선생님이 말씀하셨다. "좋아, 이제 팔을 내려서 네가 느낄 수 없게 될 거야. 그래도 내 팔이 여전히 네 아래에 있어서 네가 가라앉으려고 할 때마다 잡아 줄게. 나 믿지?" 나는 그렇다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분은 팔을 내리셨고, 나는 내 생애 처음으로 물 속에서 떠 있었다. 나는 선생님의 팔이 여전히 내 몸 아래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조금도 무섭지 않았다. 그분이 장담하신 대로 나는 물 속에 가라앉지 않았다.

때때로 살다가 내린 결정들로 인해 내 자신이 물 속에 가라앉는 것 같을 때가 있었다. 그럴 때마다 "어머 어떻게, 나 가라앉고 있어!"라며 두려워했었다. 하지만 나의 이러한 생각은 곧 틀린 것으로 판명 났다. 내가 느낄 수 있든지 없든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팔이 내 밑에서 내가 가라앉을 때 잡을 수 있도록 기다리고 계셨다. 당신의 삶에서도 마찬가지다. 당신이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일어난 것이다.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의 팔은 그분이 우리 삶의 세세한 부분까지 평생 책임지실 것이라는 보험과도 같은 것이다. 그분의 팔은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곳에 빠져들지 않도록 붙들어 주실 것이다. 당신은 긴장을 풀고 물을 즐기기만 하면 된다.

하나님은 어떠한 팔을 갖고 계신가? 성경은 자주 하나님의 팔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믿는 분이 어떠한 성품을 가지신 분인지를 깨닫게 한다. 하나님의 팔을 표현하는 다음의 구절들을 상고하기 바란다.

하나님의 팔은 뻗어 있다

성경의 가장 보편적인 표현이 바로 하나님의 팔이 뻗어 있다는 것이다. 하나님의 팔이 뻗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 수동적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한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능동적으로 관여하셔서, 우리가 잘되고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도록 모든 사건들을 지휘하신다. 하나님의 팔이 뻗어 있다고 표현하는 성경의 대부분은 하나님께서 그분이 사랑하시는 사람들을 위해서 일하시며, 사람들이 멸망하는 상황에서 그들을 구하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알게 한다.

언젠가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재앙에서 구하시려고 수없이 팔을 뻗치셨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험에서 수없이 구한 사실에 대해서 찬양한다. 하나님이 당신에게도 같은 일을 행하셨을 때, 당신은 잠시 머물러 서서 그 사실을 인정한 적이 있는가? 시간을 내어 앉아서 하나님이 당신을 재앙에서 건지신 때들을 보여 달라고 간구해 보라. 당신을 위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깨닫게 되면서 당신은 끝없는 기쁨과 감사를 느끼게 될 것이며, 이러한 간단한 일들을 통해서 그분의 사랑이 얼마나 크신지 더 알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팔은 강하다

다윗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수많은 때를 기억하면서 다음과 같이 노래했다. "주의 팔에 능력이 있사오며 주의 손은 강하고 주의 오른손은 높으시니이다!" (시 89:13~14). 뉴스를 보다 보면 때때로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하려다 자기 목숨마저 잃고 마는 사람을 볼 수 있다. 그들의 의도가 선하지 않

다는 것은 물론 아니다. 하지만 그들은 물 속에 빠진 사람에게 다가가서 그를 건져 낼 힘이 부족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두 사람 모두 익사하게 된 것이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능력을 넘어선 때를 아시고, 언제든지 우리를 건져 내려 하실 것이며, 그럴 만한 능력도 갖고 계신다! 당신의 선택으로 인해 감당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른 적이 있는가? 당신을 사랑하시는 분은 당신을 구해 내실 만한 힘을 갖고 계시며, 당신의 성숙을 위해 이러한 상황을 허락하셨다는 사실을 깨닫고 용기를 갖기 바란다. 사도 베드로가 물에 빠져 허우적거릴 때의 상황에 대해 성경은 이렇게 말한다. "…… 빠져 가는지라 소리질러 가로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저를 붙잡으시며"(마 14:30~31).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믿음을 가르치고 계셨으며 자기 스스로를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소망 없는 것인지를 보여 주고 계셨다.

당신의 모든 행위를 보고 계시는 분은 항상 당신을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 당신이 만약 도움을 청하지 않았다면? 그렇다 하더라도 그분은 뒤로 물러서서 당신이 잘못된 선택이라는 바다에 빠지는 것을 바라만 보고 계시지 않는다. 하나님이 바라만 보고 계신다고 당신이 느낀다 할지라도 말이다. 하나님의 강하신 팔이 당신을 위해 항상 뻗쳐 있다는 사실을 믿기를 바란다.

하나님은 소매를 걷은 팔을 가지셨다

이사야는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위로하셨고…… 여호와께서…… 그 거룩한 팔을 나타내셨으므로"(사 52:9~10)라고 말씀하셨다. 하나님은 건성으로 당신의 삶에 관여하시는 것이 아니다. 그분은 소매를 걷어 부치시고 당신의 삶에 뛰어드신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라!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능력의

하나님, 한 마디의 말로 사탄을 멸하실 능력의 하나님, 세상의 모든 것이 그로부터 존재하는 능력의 하나님이 당신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시는 모습을 바라보라!

당신이 저질렀던 어리석은 실수들 때문에, 잠시라도 당신에게 갖고 있는 – 그분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역사하시는 소매를 걷어 부친 팔의 – 하나님의 계획이 수포로 돌아갈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기 바란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갖고 계신 완벽한 계획을 망치려는 사탄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사탄이 자신의 계획을 완전히 망쳐 버리도록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 마틴 루터가 1529년에 썼던 말을 인용해 보자.

> 악한 세력이 가득한 이 세상이
> 우리를 망치려고 달려들지라도
>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으리.
> 하나님께서 그분의 진리가 우리 안에서 승리하도록 계획하셨으니.
> 어둠의 왕자가 미소 지을지라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으리.
> 그의 분노도 우리를 쓰러뜨리지 못할 것은
> 오호라! 그의 멸망이 확실하기 때문이리라.
> 단 한번의 말로 그는 추락할 것이니.

당신이 만약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얻을 수 있는 하나님과의 친밀감을 경험하기를 원한다면, 당신의 삶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 알고 그 능력을 믿어야 할 것이다. 비록 당신은 여전히, "네, 맞아요. 주님, 하지만……?"이라는 식의 질문들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향한 온전한 믿음을 세우기 전에 그 해답을 찾으려고 노력하지 말기를 바란다. 하나님은

완전히 통치하시거나 아예 통치하시지 않으신다. 당신은 어떤 것을 믿겠는가? 아마도 지금 잠시 책을 내려놓고 불신의 죄를 회개하는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을지도 모르겠다. 또한 당신의 선택이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영원하신 계획을 훼방할 수 있다는 거짓말을 믿어 왔음을 인정해야 할지도 모르겠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잘못된 선택을 했다고 하는 거짓을 믿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영적인 속박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나도 하나님 아버지의 주권에 대한 진리를 알기 전에는 가끔 이렇게 말하기도 했다. "쏟아진 물은 다시 주워 담을 수 없다." 하지만 하나님은 쏟아진 물도 다시 주워 담으실 수 있다. 그분은 당신이 저지른 실수들을 가지고 당신을 위해 지은 인생의 심포니를 연주해 나가신다. 이 장의 첫 부분에서 나는 기회가 다시 주어지기만 한다면 다른 선택을 할 일들이 있음을 언급했었다. 그 말은 사실이다. 지금이라도 기회만 주어진다면 그렇게 하고 싶다. 그러나 나는 내 인생을 다시 쓸 수 없다. 이러한 사실을 알 때,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확신을 가지고 주 안에서 안식하는 것이다. 맥베이 주연의 이 드라마를 연출하시는 그분에 대한 확신말이다. 물론 아직까지도 내 인생에 대해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몇 가지 있다. 하지만 언젠가는 알게 될 것이다. 그때까지 내게 남은 길은 믿는 것뿐이다.

누군가가 한 말이지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벽걸이용 양탄자에도 디자이너가 의도적으로 넣은 어두운 색의 실이 있다고 한다. 하나님은 당신이 한 어리석은 실수라는 어두운 색의 실을 가지고 당신의 삶이라는 양탄자를 짜고 계신다. 그분은 당신이 어떠한 실수를 저질렀다 할지라도 상관하지 않으신다. 어떠한 것도 하나님을 놀라게 하지 못한다. "……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나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되었다"(시 139:16)고 성경은 말한다. 언젠가 누가 물은 적이 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즉흥적으로 하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문뜩 떠오른 적이 있나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대해 쓰신 책을 망쳐 버릴 만큼 우리는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천국에 올라가서 그리스도와의 연합된 모습을 직접 보게 될 때, 우리는 우리의 삶이 예수님과 가졌던 친밀한 관계를 묘사한 하나의 러브스토리였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게 될 것이다. 여느 사랑이야기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이야기 속에도 좋은 때가 있을 것이고, 나빴던 때도 있을 것이다. 때때로 우리의 이야기를 보는 사람들이 '이 사랑이 과연 지속될 수 있을까?' 하고 궁금해할 만한 시간들도 있을 것이다. '그가 그녀를 지킬 수 있을까? 그녀가 배신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되지는 않을까?' 등등의 의문이 계속 일어날 것이다. 그러나 작가는 그 결말을 잘 알고 있다. 그분이 그렇게 정하셨기 때문이다.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마음을 졸여가며 바라볼 수 있겠지만, 작가는 전혀 그렇지 않는다. 작가는 자신의 창조적인 기술에 의해서 드라마가 자신의 눈앞에서 펼쳐지는 것을 즐길 뿐이다. 결론을 알고 있는 그에게 있어서 그 이야기는 이미 끝난 이야기이기 때문이다.

인생의 드라마와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오르막도 내리막도 있을 것이다. 우리가 선택하는 대사가 드라마 전체를 망쳐 버린 것 같은 때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우리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분은 이미 과업을 마치고, 수고하여 얻은 열매를 즐기기 위해 보좌에 앉으셨다(히 12:2). 우리는 하늘의 로망

스에 참가하는 등장인물로서, 작가가 이미 완성한 대본을 가지고 우리가 대사를 잘 외울 수 있도록 지켜보고 계시는, 우리가 믿는 그분은 드라마를 즐거운 마음으로 시청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사랑하는 아버지,

주님이 제 삶을 통치하시는 주권자이심을 깨닫습니다. 제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내린 결정들이 주님의 사랑보다 더 강하지 못하다는 사실을 인정합니다. 저는 제 인생, 제 과거의 선택들과 현재의 상황, 미래의 삶 모두를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 써 놓으신 사랑이야기를 온전히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이제부터는 이 이야기의 작가가 나 자신이라고 생각하여 우쭐대지 않겠습니다. 매일매일의 갈림길에서 주님만을 바라볼 것이며,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믿고 따르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통제하고 계십니다. 이 사실을 이해할 수 있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초대의 응답 <<<

다음의 질문들을 숙고함으로써, 이 책 속에 담긴 진리들이 당신의 삶에 계속적으로 영향을 주게 될 것이다.

1. 당신이 내렸던 인생의 중대한 결정들 중에서 기회가 주어진다면 바꾸고 싶은 것이 있다면 그것을 이야기해 보라. 그 결정으로 인해 생긴 상황에서 하나님이 긍정적으로 이끌어 내신 결과 두 가지를 생각해 보라. 그리고 당신의 잘못된 선택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다는 견해에 대해서 논의해 보라.

2. 시편 139장 19절과 다니엘 4장 35절을 읽어 보고 그 내용을 요약해 보라. 이 세상의 불의와 이 말씀들은 어떻게 연관될 수 있을까?

3. 신명기 33장 27절을 읽어 보라. 하나님의 영원하신 팔이 당신 아래에 있다는 사실을 정말로 느꼈던 때를 이야기해 보라.

4. 이 장(章)은 하나님의 뻗은 팔에 대한 구절들을 인용하고 있다. 하나님의 팔에 대한 다른 구절들을 찾아보고, 그것들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생각해 보라.

5. 당신의 인생 드라마에서 좋았던 때와 나빴던 때를 이야기해 보고, 그러한 순간들에서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 설명해 보라.

네번째 이야기

아버지의 품

아버지의 품

2001년 9월 11일은 미국 역사상 가장 암울한 날로 영원히 기억될 것이다. 지구 반대편에 있는 한 사람의 지휘 아래,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이 잿더미 아래 파묻혀 버리게 되었다. 부시(Bush) 대통령이 범국가적인 기도로 사람들을 이끌자, CNN의 뉴스에서 한 여성이 분통을 터뜨리며 말했다. "기도하자구요? 누구한테요? 이런 일이 일어나도록 아무 대책도 없이 가만히 서서 바라만 보고 있었던 신에게요? 난 절대로 기도하지 않겠어요!"

테러리스트들의 공격이 있은 후 며칠 동안, 근대 미국의 역사상 가장 많은 공적인 기도가 이루어졌고, 이로 인해 기도에 대한 논쟁도 한층 뜨거워졌다. 미국의 모든 사람들이 빈정댄 것은 아니었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많은 사람들, 특히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을 끈질기게 괴롭히는 질문이 대두되었다는 것이다. 이 고전적인 질문이란 바로,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이런 끔찍한 일

들이 무고한 사람들에게 일어나도록 두고 보실 수 있느냐는 것이다.

이 세상에서 끔찍한 일들이 일어나는 동안, 전능하신 하나님은 왜 바라만 보고 계셨을까? 테러 공격이 있은 지 삼일 후, 대통령이 "기도와 추모의 날"로 정한 그날, 워싱턴 D.C의 대성당에서 있었던 모임에서 빌리 그래햄(Dr. Billy Graham)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 우리는 이러한 사건들을 어떻게 이해해야만 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왜 이렇게 악한 일들이 일어나도록 내버려 두시는 것일까요? 아마 지금 당신의 머릿속은 이러한 질문들로 가득 차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분노하고 계시는지도 모르겠군요. 하지만 하나님은 이러한 당신의 감정들을 모두 이해하고 계심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텔레비전에서나 라디오에서 우리를 눈물짓게 하고, 분노하게 만드는 사건들을 너무나도 많이 보고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인생의 가장 어두운 날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인생의 가장 어두운 시점에서도 하나님은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당신은 이 말이 진리라고 믿을 수 있는가? 우리 삶의 모든 것들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은 순간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정말로 믿을 수 있는가? 감당하기 힘든 어려운 순간만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는다고 느껴지는 때도 없을 것이다. 굳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대한 예로서 범국가적으로 비극적인 사건을 언급한 필요는 없다.

어느 날, 개인적으로 아주 어려운 일에 부딪친 친구가 나에게 말했었다. "나에게 이러한 일을 막을 만한 힘이 있다면, 나는 내 자녀들이 이러한 일을

겪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거야. 근데 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이러한 일을 막으실 만한 능력도 있으시면서 나에게 이러한 문제를 안겨 주시는 거지?" 이러한 질문들은 당연한 것이고, 마땅히 해답을 찾아야 하는 것이다. 우리 믿음의 근본마저 흔들리게 만드는 이러한 상황들을 허락하시는 하나님과 어떻게 친밀한 관계를 누릴 수 있겠는가? 어떤 사람이 크게 상처를 받았고, 그의 믿음조차도 그 상처의 고통을 덜어 줄 수 없을 때,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리겠는가?

"진리를 알찌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요 8:32)고 예수님은 말씀하셨다. 우리 삶에서 경험하는 고통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진리는 과연 무엇인가? 우리 인생에 닥쳐오는 재난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게 하는 몇 가지 진리들을 한 번 살펴보기로 하자.

지구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에덴 동산에 뿌려졌던 죄의 씨앗은 오늘날까지도 그 열매를 맺고 있다. 넓은 의미에서 인간의 고통은 인간의 타락에서부터 유래한다. 우리가 하늘나라의 고향으로 돌아가게 될 때 더 이상의 고통은 없을 것이다(계 21:4). 하지만 이 세상이라는 이방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는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다. 이방 땅에서 외국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적응하는 방법을 배워야만 한다. 예를 들어서, 내 아내 멜라니는 해산물을 싫어한다. 하지만 해산물이 식탁에서 빠지지 않는 아시아의 여러 나라에 갔을 때에는 먹을 수밖에 없다.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것이다. 다른 문화에 갔다면

그 곳에 적응해야 하는 것이다.

고통은 지구에서의 생활이 갖는 문화적인 성질이다. 그러므로 아무리 큰 믿음을 갖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없애지는 못한다. 개인적인 재난으로 인해 생의 밑바닥까지 내려간 욥은 다음과 같이 말하기도 했다. "인생은 고난을 위하여 났나니 불티가 위로 날음 같으니라"(욥 5:7). 욥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최고의 삶에서 조차도 "날이 적고 괴로움이 가득하다"(욥 14:1)는 것을 알게 된 것이다.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해서 인생의 문제를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예수님도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란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요 16:33)고 말씀하셨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인생의 험난한 파도들을 막아 주지 않는다.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힘든 상황들을 이겨 나가도록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확신만이 인생의 문제들을 직면할 수 있게 해 준다. 믿음은 우리의 문제에 대해 우리가 갖게 되는 왜라는 질문에 대한 해답을 주기보다는 어떻게 이 상황들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지를 알려 준다.

"스티브, 빨리 병원에 가 보셔야겠어요. 사고가 있었어요." 갑작스러운 소식에 나는 피가 얼어붙는 것 같았다. "앤드류가 일하다가 떨어졌대요…… 등이 부러지고…… 뇌출혈이……" 전화기를 통해 들리는 아내의 말은 내 귓가에서 맴돌 뿐 그 의미가 머릿속에 정확하게 전달되지 않고 있었다. 나는 전화를 끊고 서둘러 병원으로 향했다.

"상황이 아주 심각합니다." 의사가 말했다. "우리 병원은 이렇게 큰 부상을 치료할 만한 장비가 없어요. 그래서 더 큰 병원으로 옮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얼마 후 20살짜리 우리 아들이 일하고 있던 공사장의 계단에서 떨어졌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부상에 따른 후유증이 확실히 나타나려면 며칠이 걸리겠지만, 예상 가능한 것은 아들에게 마비가 올 수도 있고, 정신 이상이 올 수도 있으며, 최악의 경우 아들이 사망할 수도 있다고 했다. 그 병원 의사로부터는 이러한 사실만을 들을 수 있었다. 그리고 그의 말대로 큰 병원으로 가기 위해 우리는 구급차에 실린 아들을 뒤따라갔다.

시내를 운전해 갈 때 눈물이 두 볼을 적셨다. 나는 살아오면서 내 인생을 뒤바꿔 놓을 수 있는 여러 시나리오들을 상상해 봤지만, 이러한 일은 상상 밖의 일이었다. 응급실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나는 멜라니의 손을 잡았다. 그녀가 눈물에 젖은 눈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오늘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될지 우리는 모르오. 앤드류가 죽을지도 모르지. 아니면 전신이 마비될지도 모르고. 어쩌면 정신 이상자가 될지도 모르오. 그렇지만, 병원에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만 기억하기로 합시다. 이 사고로 우리 아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다고 해도, 하나님이 그 아이의 삶에 대한 주권을 갖고 계시며, 하나님은 선하시다는 것을 믿으며 들어갈 수 있겠소?" 멜라니는 그렇다는 의미로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는 차에서 내려 손을 굳게 잡은 채, 병원으로 들어갔다.

그 이후의 나날들은 결코 쉬운 것들이 아니었다. 앤드류의 뇌는 부어올랐고, 계속 출혈이 있었다. 등의 부상으로 인해 12시간이나 걸리는 대 수술도 받았다. 그는 한달이나 병원에 입원해 있었고, 재활 치료를 위해 3년이라는 긴 시간을 보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그는 회복되었다. 그 날의 사고로 인한 몇 가지의 후유증이 남아 있기는 해도, 지금은 평범한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다.

"어째서 나에게 이러한 일이 일어난건가?" 이렇게 묻고 싶겠지만, 보다 정확한 질문은 "어째서 나에게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 걸까?"가 되어야 할 것이다. 사고는 발생하기 마련이며, 사람들은 다치고 때로 죽기도 한다.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이러한 현실을 막을 수는 없다.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인생의 어려운 문제에서 우리를 보호해 줄 것이라는 생각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에 대해 그리고 인생에 대해 오해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잘못된 믿음은 어려움이 닥쳤을 때 의심과 혼란만을 일으킬 뿐이다. 어쨌든지 어려움은 닥치게 마련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최종 답변

우리가 인생의 괴로운 문제에 부딪쳤을 때에도 한 가지 사실을 이해한다면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어떤 인생의 문제가 닥친다 해도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에 대한 잣대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이다. 우리가 현재 처해 있는 상황들이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의 정도를 나타내는 잣대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우리의 마음은 점점 굳어질 것이고, 어려운 순간에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는다고 생각하게 될 것이다. 우리의 어려움이 하나님의 사랑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에 대해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38~39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최종적이고도 확실한 증거는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다. 예수님 자신도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사 53:3)셨다.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싶다면 십자가에 달린 그분의 얼굴을 바라보라. 그분은 당신이 없는 세상에서 살기보다는 차라리 당신을 위해서 죽는 것을 택함으로써 자신의 사랑을 증명하셨다. 그분은 자진해서 십자가의 고통에 스스로를 내던지셨다. 당신을 향한 불타는 사랑과 열정에 이끌리어 당신을 영원히 그분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 예수님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하셨다. 고통 받는 그리스도인을 붙들어 주는 가장 강력한 진리는 바로, 예수님이 꺼지지도 사그라들지도 않는 열정으로 당신을 영원히 사랑하신다는 사실이다.

고통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기

구원은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 속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다. 이러한 관점은 사람의 변화에 초점을 맞추는 자기중심적인 관점이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생명에 참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의 옛 사람은 죽었다(갈 2:20, 롬 6:1~6, 골 3:3). 그 후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생명에 참여해 그 안에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다(행 17:28).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통해 그분의 생명을 나타내기 원하신다는 성경의 가르침을 거부하는 몇몇 그리스도인들이 있다. 우리가 승리의 삶을 살고, 영적인 평안 가운데 거하며, 초자연적인 능력을 지닐 수 있음을 믿는다. 이 모든 것은 물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 누리는 삶이 분명하다. 그러나 현대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이 주는 것들 중에서 누리고

싶어 하지 않는 것이 있다. 바로 고난이다.

당신이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는 그분의 삶에 있는 모든 요소들과 하나가 된 것이다. 고난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에서 필요한 것이다. 그것은 성령님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정체성을 가르치는 데 사용하는 가장 효과적인 도구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 안에 있고,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게 하신다. 그런 일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내가 겪었던 일을 예로 들어보자.

몇 년 전에 나는 아침 일찍 일어나 샤워를 했다. 샤워를 마친 후, 샤워실의 미닫이문을 열고 나가려고 할 때, 갑자기 문이 미끄러져 마치 교수대의 칼날처럼 내 엄지발가락을 강타했다(이 사건이 내 순발력을 시험하는 것이었다면, 나는 결코 전쟁영웅이 될 수 없을 것이다).

미닫이문이 내 엄지발가락을 강타했을 때, 나는 누군가가 내 머리에 총을 쏜 것 같은 충격을 받았다. 엄지발가락을 내려다보자 깊은 상처 사이로 피가 철철 흘러 넘치고 있었다. 나는 샤워실에서 방까지 한 발로 뛰면서 멜라니를 불렀다. 병원에 가서 상처를 꿰매야 할 정도로 상처는 심했다.

멜라니가 이미 나를 사랑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얼마나 다행이었는지 모른다. 왜냐하면, 물에 빠진 생쥐마냥 벌거벗은 채, 손가락 사이로 피가 흘러 나오는 한쪽 발을 잡고, 나머지 한쪽 발로 이리저리 뛰어다니는 내 모습에서 남성다운 매력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아내의 도움으로 나는 몸을 말리고, 옷을 입고, 병원 응급실에 가서 발가락의 상처를 꿰맬 수 있게 되었다.

샤워실의 문이 내 발가락에 상처를 냈을 때, 내 인생에서 중요했던 모든 것들은 그 의미를 상실해 버렸다. 나는 중동의 갈등도, 아프리카의 기근도, 심지어 우리나라 미국의 영적인 상태에 대해서도 더 이상 생각하지 않게 되었다. 그 순간 나에게 중요했던 것은 단 한 가지였다. 내 머릿속은 온통 엄지발가락으로 가득 차 있었던 것이다. 내 머리를 사로잡은 생각은 바로 "병원에 가야 해, 그것도 빨리"였다. 나는 피 흘려 죽고 싶지 않았다. 또 천국에 올라가 그 곳에 있는 순교자들에게 "발가락의 상처 때문에 왔는데요"라고 말하고 싶지도 않았다. 물론, 누군가가 천국에서 크게 비웃음 당해 쫓겨났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은 없었지만, 내가 첫 타자가 되고 싶은 마음은 정말이지 눈꼽만큼도 없다.

지금은 이 사건을 웃어넘길 수 있지만, 그때 당시에는 매우 심각했었다. 나는 고통으로 인해 한 가지의 필요에만 집착하게 되었다. 상처를 치료하러 병원에 가야 한다는 필요말이다.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고난의 역할도 이와 같은 것이다. 고난은 그리스도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해야 한다는 한 가지 필요성에 집중하게 한다. 고난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보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손길을 느끼고 싶어 하게 만든다. 고난 받는 그리스도인들이 붙들 수 있는 또 다른 진리가 바로 이것이다. 우리의 아픔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한다.

고난은 평안한 날들 가운데서는 알 수 없었던 예수님을 믿음이라는 것을 통해 느끼고, 볼 수 있도록 한다. 엄지발가락에 상처가 났을 때, 나는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오직 나의 필요를 채울 수 있는 누군가를 갈망하기 시작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하나님은 우리 삶

의 힘겨운 문제들을 통해 우리가 예수님께 집중하게 하신다. 그리스도인의 마음은 고난 중에서 그리스도께 집중된다. 내가 사고를 당했을 때 의사를 만나러 가는 것에만 집중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말이다. 고난에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우리를 멀어지게 했던 인생의 불필요하고 잡다한 문제들로부터 우리의 생각을 되돌려 놓게 하는 무엇인가가 있는 것이다. 우리가 내면의 깊은 곳에 상처를 받았을 때, 존재의 밑바닥까지 아파올 때, 그때에야 비로소 우리는 "아바! 아버지!" (롬 8:15)를 소리쳐 부르게 되는 것이다.

아바(Abba)의 자녀가 아파할 때, 우리의 아버지는 즉시 우리에게 다가오신다. 때로는 우리의 고통이 너무나도 커서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때도 있다. 또 말할 힘조차 없을 때도 있다. 몸이 좀 불편한 사람들은 누군가가 옆에 있어 주기를 원하지만, 심하게 아픈 사람은 자신이 누군가의 간호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혼자 있고 싶어 한다. 우리가 아바 아버지에게 부르짖을 때, 그분은 우리의 소리를 들으신다. 그러나 인생을 살다 보면 도와달라고 소리칠 수도 없을 때도 있다. 그러한 때에는 다음의 말씀을 상기하라.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 [아바 Abba]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롬 8:25~28).

하나님은 당신을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당신이 고난 중에 있을 때에도 항상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의 고통을 줄여 주시지 않는다고 우리에게 아무런 도움도 주시지 않는다고 생각하지 말기 바란다. 때로 우리의 삶 속에 가장 큰 도움은 하나님이 우리를 그 고난 중에서 건지시는 것보다 우리와 함께 그 고난을 견디시는 것이 될 수도 있다. 나는 고난을 겪을 때 다음과 같이 기도한다. "아버지여, 이 고난은 그냥 흘려버리기에는 너무나도 힘든 것입니다. 이 상황에서 취할 수 있는 모든 것으로 내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계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나타내는 것이다. 워치맨 니(Watchman Nee)가 지적했듯이, 값진 향유가 담긴 옥합이 깨져야만 그 아름다운 향기가 주위에 퍼질 수 있는 것이다 (막 15:3~9).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 자신의 삶을 운영해 나가고 있다고 믿는 모든 생각을 깨뜨리시고, 그분이 운영하시는 삶을 경험하게 하도록 계속적으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신다. 고난을 통해 우리가 깨어지는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당신의 삶을 사용해 달라고 기도해 왔다면, 고난이 닥쳐와도 놀라지 말아야 할 것이다. 세례 요한의 시대에서처럼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우리)는 쇠하여야 할" 것이다. 우리가 쇠하는 유일한 방법은 환란과 고난을 포함한 우리 삶의 모든 것들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그분께 맡기는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심지어 우리 자신으로부터 우리를 구하실 것이다. 우리가 괴로움을 받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관심 때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환란 가운데 있을 때 사탄은 우리에게 와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무런 관심이 없다고 속삭인다. 이것은 참으로 아이러니컬한 일이다.

사도 베드로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예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벧전 4:12~13).

하나님을 경험하고자 갈망하는 그리스도인에게 고난이 찾아오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다. 고난을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를 알기 때문이다. 사도 베드로가 말하는 하나님의 영광, 우리에게 나타났을 때 우리를 기쁨으로 가득 차게 만드는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이겠는가?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1장 27절에서 그 영광을 정의했다.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이 소망이니라". 이러한 계시는 성령님께서 예수님과 우리의 연합에 대한 초자연적인 이해를 허락하실 때 일어난다.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 계신 생명이 아니다.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생명 그 자체인 것이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임을 이해하게 될 때, 우리는 무슨 문제든지 당당하게 직면할 수 있게 된다. 우리는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다이아몬드가 어두운 곳에서 더욱 빛을 발하듯이, 극심한 고난은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더욱 빛나게 하는 배경이 된다.

때때로 고난은 믿음이라는 미명하에 부인되거나 거부된다. 하지만 고난에 대한 이러한 이해는 기독교 정설에 위배되는 것이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예함을 알도록" (빌 3:10) 기도했다. 사도 바울이 간구한 이것을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없애 달라고 기도한다. 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예함을 알도록 기도했을까? 왜냐면 사도 바울은 고난이야말로 예수 그리스도와의 사귐이 자랄 수 있는 온실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하나님 아버지의 품

고난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가능하게 하는 환경을 만든다. 극심한 고난에는 하나님의 임재를 더욱 느끼게 하는 무엇인가가 있는 것이다. 우리 삶에 닥쳐오는 문제는 우리의 인생을 최소의 기본적인 단위로 줄어들게 만든다. 우리 삶에 있는 문제들은 우리의 손을 잡고 십자가 밑으로 우리를 이끈다. 그러한 의미에서 고난은 우리의 가장 친한 친구가 될 수 있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예하는 것만큼 그분의 생명에 참예할 수 있는 방법도 없다.

당신이 아파할 때, 그리스도는 당신의 고통 속에서 당신과 함께 아파하신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당신을 사랑하신다면 당신을 고난에서 건져 주셔야 한다는 어리석은 믿음을 갖지 않기 바란다. 하나님은 예수님도 십자가의 고통에서 구해 주시지 않으셨다. 그 궁극적인 목적을 아셨기 때문이다. 그 목적은 바로 우리의 구원이었다. 하나님은 고난의 결과가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이라면 우리를 고통에서 구해 주시지 않을 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 대신에 그분은

고통 속에 있는 우리와 함께 동행하신다. 우리의 위로자이신 보혜사(요 14:16)가 우리의 걸음걸음마다 우리를 붙드시고 계신다.

사탄이 신자들에게 사용하는 효과적인 도구 중의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에 상관하시지 않는다는 거짓말이다. 그러나 고난이 닥쳐올 때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도우심인 줄 알고 있다"(시 56:9)는 시편 기자의 진리를 기억하고 선포해야만 한다. 잠시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는 말씀을 묵상해 보라. 정말로 이 사실을 믿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라는 진리를 우리가 붙잡기 시작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관심을 기울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이해하기 어렵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관심을 근본적으로 이해하기 시작하면,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편안히 안식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 삶의 모든 순간에 일어나는 세세한 일들까지도 아시고 관심을 가지신다. 이 사실을 우리가 정말로 믿기 시작한다면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이해하기 시작한다면(히 4:15), 우리가 아파할 때 하나님도 아파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며, 이러한 사실들을 진정으로 깨닫는다면, 고난 당하는 중에서도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할 수 있을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인생의 가장 어두운 나날들 속에서도 그분의 사랑을 느끼기를 원하신다.

몇 년 전에 내 친구가 끔찍한 경험을 한 적이 있다. 어느 날 아침 프레드는 그의 젊은 아내 레이첼이 자신의 옆에서 죽어 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녀에게 무슨 질병이 있었다거나 어떤 건강상의 문제가 있었던 것도 아니었다. 그냥 평소처럼 침대에 들어가 잠든 뒤 다음날 아침에 깨어나지 못한 것이었다.

레이첼의 죽음에 대한 소식을 들었을 때 왈칵 눈물이 쏟아졌다. 그리고 곧바로 프레드를 위해 기도하기 시작했다. 나는 프레드의 입장이 되어서 그러한 일이 나에게 일어났다면 내가 견뎌 낼 수 있었을지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다. 어느 날 갑자기 아침에 일어나서 배우자가 죽어 있는 것을 발견하는 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견디기 힘든 문제일 것이다.

그 일이 있은 후 어느 날, 나는 프레드와 점심을 함께 하게 되었다. 그동안 어떻게 지냈는지 내가 물었다. 아내가 죽은 후 찾아온 어두운 나날들 속에서 예수님이 자신을 어떻게 위로하셨는지에 대한 프레드의 간증은 나를 감동시켰다. "처음에 나는 혼자 있고 싶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사람들의 북적거리는 소리와 관심을 갈망하고 있었어." 프레드가 말했다. "사람들에 둘러싸여 있으면서도 나는 혼자 있는 것처럼 외로웠지. 욥처럼 나는 하나님께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를 물었어. 그분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어. 나는 절망했지. 하지만 친구들과 가족들의 사랑을 받으면서 그분이 우리 가운데 계심을 느낄 수 있었어."

그는 계속해서 말을 이었다. "레이첼이 죽은 지 일주일쯤 지났을 때, 나는 가까운 친구의 집에서 저녁 식사를 함께 했어. 식사 시간 내내 친구들은 나에게 끊임없는 사랑과 관심을 보여 주었고, 그 자녀들도 나에 대한 사랑을 아낌없이 보여 주었지. 나는 크게 위로를 받았고,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가면서 이렇게 좋은 친구들을 많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어. 그런데 집에 돌아와서 침대에 눕자 다시 기분이 가라앉으면서 슬퍼지더라고.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 12월이었기 때문에 추운 밤이었고, 나는 떨면서 절망과 씨름하며 기도하게 되었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울부짖는 것뿐이었어. 하나님, 당

신의 도움이 필요해요!"

이야기를 이어 가는 프레드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그 순간 갑자기 나는 곁에 계시는 하나님을 느낄 수 있었어. 나는 옆으로 누워 있었는데, 그분이 내 옆에 누워 계심을 알 수 있었지. 그분의 팔이 나를 꼭 안아 주셨어. 그리고 내 몸 전체에 따뜻한 기운이 흘러 들어왔지. 그 느낌은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친밀감을 그때 느낄 수 있었어. 일주일 만에 처음으로 나는 평안한 마음으로 깊은 잠에 빠져들 수 있게 되었어. 다음 날 아침에 일어나면서 나는 나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을 찬양했다네. 그때부터 왠지 모르게 내 모든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지. 하나님은 나의 고통으로부터 나를 구해 주시지는 않으실 것이지만, 궁극적으로 그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어. 지금에 와서 알게 된 것이지만, 하나님은 내 기도에 응답하고 계셨던 거야. 주위가 온통 어두워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에도 나를 위해 일하고 계셨던 거지."

프레드는 아내가 죽은 이후 절박하게 찾았던 평안을 예수님의 품 안에서 발견하게 된 것이었다. 당신은 예수님의 팔에 안겨 본 적이 있는가? 그분은 당신 삶의 모든 상황 속에서 베푸시는 그분의 사랑을 당신이 느끼기를 원하신다. 하나님과 동행할 때, 감정을 너무 강조하는 것을 주의하라고 성도들에게 말하는 영적 지도자들도 있다. 물론 감정에 치우치는 것이 때로 위험할 수 있지만, 그것과는 반대의 극단으로 치달아 그리스도와의 관계에서 감정을 완전히 배제시키는 것도 좋지 않다.

그리스도의 임재는 우리 존재의 모든 면에서 우리에게 영향을 준다. 누군가가 우리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은 중요하다. 하지만 그 사랑을 느끼는 것도 똑같이 중요한 것이다. 건전한 사랑의 관계는 우리의 생각과 감정 모두에게 영향을 준다. 삶이 우리를 속인다고 느낄 때 우리는 이성적인 논리 이상의 것을 필요로 한다. 우리는 누군가의 포옹을 필요로 하며, 사랑의 주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정서적인 위로를 주시기 위해 항상 준비하고 계신다.

9 · 11 사태 이후 빌리 그래햄(Billy Graham)이 우리들에게 메시지를 전할 때, 그는 다음과 같은 말로 끝을 맺었다. "제가 기도하는 것은, 오늘 우리를 감싸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팔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분을 신뢰할 때, 그분은 우리를 결코 버리시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마음으로부터 아는 것입니다." 그의 기도는 비극적인 순간에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한다. 우리는 하늘 아버지의 사랑어린 포옹을 필요로 하는 것이다.

혼란스럽고 어려운 순간에 당신을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에 잠겨 보도록 하라. 예수님이 당신을 안고 계심을 믿음으로 바라보라. 그분은 당신을 안고 조용히 속삭이신다. "괜찮아. 내가 여기 있잖니. 너를 사랑한단다. 모든 것이 다 잘될 거라고 약속할게. 그냥 여기 내 품에 안겨 있으렴. 내가 너를 돌봐 줄게." 개인적인 고난이 닥쳐올 때 영원히 우리를 감싸고 있는 하늘 아버지의 팔이 있다는 사실만큼 우리를 편안하게 해 주는 것은 없다. 그분의 품 안에서 우리는 이해를 초월하는 평안을 맛보게 된다.

조지 로빈슨(George Robinson)은 1876년에 지은 시에서 다음과 같이 노래했다.

한때 요란한 알람과도 같던 것들은

더 이상 나의 안식을 방해할 수 없다네.
영원한 팔에 안겨
사랑스러운 가슴에 파묻혀 있는 나의 안식을.
이곳에 영원히 누워 있을 때
의심과 걱정 그리고 내 자신조차 사라진다네.
그분이 내 귓가에 속삭일 때
나는 그의 것 그분은 나의 것이 되네.
그분이 내 귓가에 속삭일 때
나는 그의 것 그분은 나의 것이 되네.

예수님은 당신의 어려움들을 모두 알고 계신다. 이제 당신이 처한 상황에 대해 왜라는 질문을 멈추고, 그 상황들 뒤에 계시는 누군가를 바라봐야 할 때가 된 듯 하다. 왜라는 질문에 대한 해답은 당신이 앞으로 살아가는 동안 주어질지도 모르고 안 주어질지도 모른다. 중요한 것은 당신이 그 상황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계시는 분을 믿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당신에게는 최선이며, 그분께는 영광이 되는 모든 상황을 허락하실 것이다. 어려움 가운데서 당신을 붙들어 줄 마지막 진리는, 하나님께서 당신을 품에 안고 당신의 고통을 함께 나누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이다.

나의 자녀들이 어렸을 때, 우리 집의 전기가 나가는 일이 많았다. 아이들이 깨어 있을 때 불이 나가면, 하나같이 "아빠!"하고 소리 질렀다. 그럴 때면 멜라니와 나는 그들의 방으로 일일이 찾아가 그들을 우리 방으로 데리고 왔다. 그리고 우리 침대에 함께 눕혔다. 우리 부부와 4명의 아이들, 이렇게 여섯 명이 한 침대에 누워 서로를 꼭 끌어안았다. 그리고 우리가 곁에 있을 것이라고 그들을 안심시켰다. 그러면 아이들은 곧 잠이 들곤 했다. 그들은 우리가 그들의 곁에 있으며 어둠 속에서 그들을 지키고 있다는 사실에 안심하고 잠이 들 수 있었던 것이다.

당신도 같은 이유로 안심할 수 있다. 하늘의 아버지는 당신을 그분의 두 팔에 안으신다. 당신이 어둠 가운데 있을 때 그분은 당신 곁에 계신다. 그분의 사랑을 느끼고 그분이 항상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깨닫길 바란다(벧전 5:7). 지금은 당신 주위가 칠흑같이 어둡다 할지라도 해는 또다시 떠오를 것임을 확신하길 바란다. 해가 떠오를 때까지 당신은 아바 아버지의 품에 안겨 편안하게 쉬고 있으면 된다. 그분은 절대로 당신을 놓지 않으실 것이다.

사랑하는 아버지,

제 인생의 어두운 순간마다 함께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섭리를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당신을 신뢰합니다. 어떠한 것도 저를 주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음을 압니다. 저의 고통스러운 순간들을 사용하셔서 제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제 안에 있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더욱 잘 알 수 있도록 가르쳐 주옵소서. 아버지를 사랑합니다. 그리고 신뢰합니다.

>>> 초대의 응답 <<<

다음의 질문들을 숙고함으로써, 이 책 속에 담긴 진리들이 당신의 삶에 계속적으로 영향을 주게 될 것이다.

1.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성경의 가르침에 근거하여,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테러들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는가? 성경에 나오는 범국가적인 비극 3가지를 찾아 다음의 질문들에 답해 보라. 그 비극 가운데서 하나님은 어떻게 행하셨는가? 사람들의 반응은 어떠했는가? 성경에 나타난 비극과 현재 국제 사회에서 일어나는 비극들과의 유사점은 무엇인가?

2. 고난에 대해 가르치고 있는 신약의 말씀을 5가지만 찾아보라. 성경은 고난의 이유에 대해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그리스도인들은 개인적인 고난에 어떻게 반응해야 할 것인가? 당신의 대답을 뒷받침할 만한 구절들을 제시하라.

3. 당신이 가장 최근에 경험한 고통은 무엇인가? 같은 고통을 다시 경험한다면 당신은 다르게 반응하겠는가? 만약 다르게 반응할 것이라고 대답했다면,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4. 베드로전서 4장 12~13절에서 베드로가 말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심"이 무엇인가? 이러한 계시에 이르게 하는 데 고난은 어떤 작용을 하는가?

5. 당신은 갑작스럽게 아내가 죽은 내 친구 프레드를 어떻게 위로하겠는가? 고난 중에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기 위한 좋은 방법들에는 무엇이 있을까? 성경에서 고난을 겪은 사람 세 명을 골라 다른 사람들이 그들을 어떻게 위로했는지 설명해 보라.

6. 잠시 멈춰서 상처받고 있는 그룹원들을 위해 기도하라. 기도 외에 당신이 그들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그들에게 물어보라.

다섯번째 이야기

다독여 주시는 손길

다독여 주시는 손길

아기들은 태어난 순간부터 울기 시작한다. 의사들의 말에 따르면 세상에 갓 나온 아기가 울어야만 호흡기에 있는 점막이 제거되고 허파가 팽창하여 아기가 호흡할 수 있게 된다. 아기가 우는 것에 대한 의학적인 이유가 이런 것이라고 치고, 그렇다면 정신적인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 마치 태어난 순간부터 꼭 채워져야 할 필요가 있다는 듯이 아기가 자지러지게 우는 이유는 무엇일까?

아마도 아기가 우는 이유를 가장 잘 설명하는 방법은 그 아이의 울음을 그치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보는 것일 것이다. 울고 있는 아기를 달래는 가장 좋은 방법 중의 하나는 엄마의 품에서 아기를 다독여 주는 것이다. 엄마의 품에서 젖을 배불리 먹은 아기는 특별히 신경질적인 아기가 아닌 이상 곧바로 평안히 잠들게 된다. 어떤 사람들은 아기들이 이 세상에 나오자마자 애

정 어린 손길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우는 것이라고 말하기도 한다. 사랑하는 부모로부터 받는 긴밀한 애정 표현은 그 어떤 것도 줄 수 없는 평안함으로 아기를 인도한다. 갓 태어난 아기를 엄마가 품에 안고 다독이며, 귓가에 사랑의 말들을 속삭이는 것을 한 번 보라. 그 결과는 전 세계 어디에서나 똑같다.

사랑을 갈망하는 인간

우리는 사랑해 달라고 우는 아기의 요구가 평생 계속될 것임을 알고 있다. 아이가 어느 정도 컸을 때에는 또래 집단 속에서 인간으로서의 본인의 가치를 인정받고 사랑을 얻으려고 할 것이다. 십대가 되면 사랑받고자 하는 열망은 더욱 타올라 그 열망을 충족시키기 위해 마치 불꽃처럼 어떠한 방향으로든지 활활 타오르게 될 것이다. 어디에든지 소속되고 싶어 하는 마음은 극단적인 패션이나, 그 세대에 유행하는 요란한 음악에 심취하는 것으로 나타날 것이다. 때로는 어른들이 이해할 수 없는 그들만의 은어를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날 수 있다. 지난 수년 동안 고전적인 용어 '좋다'는 '캡이다'를 거쳐 '캡숑' 등에서, 이제는 '짱이야'로 진화되어 왔다. 하지만 이런 말을 사용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중요한 것은 인간의 내면 깊숙한 곳에는 사랑받고 용납되고 가치 있는 사람으로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무엇이든지 하고 싶어 하는 채워지지 않는 공허감이 있다는 것이다.

사랑에 대한 이러한 갈망이 성인이 되면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오늘날 점잖은 사람이라면 캐쥬얼 정장을 입고 다니지 않겠지만, 30년 전만 해도 캐쥬얼 정장과 다르게 입으면 오히려 예의에 어긋나는 것이었다. 어느 아버지가 아들한테 말했었다. "내가 어렸을 때는 야구모자의 챙이 앞으로 오게 쓰고 다녔단다." "모자를 거꾸로 쓰고 다니셨단 말이에요?" 놀란 아들이 대답했다고 한다. 이렇게 모든 세대에 걸쳐서 사람들은 소속감을 느끼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하려고 한다.

젊은 사람들은 누군가와의 친밀감을 느끼기 위해서 아무나 가리지 않고 만남을 가진다. 결혼 정보회사들은 의미 있고 특별한 만남을 이루고 싶어 하는 젊은이들로 호황을 누린다. 그들은 평생 동안 자신들을 사랑하고 용납하고 가치 있게 여겨 줄 바로 그 사람을 찾고 싶어 한다.

사랑받고 싶어 하는 갈망은 평생 계속된다. 갓 태어난 아기든지, 처음으로 장난감을 사 달라고 조르는 어린아이든지, 고급 승용차를 몰고 아침 일찍 할인해 주는 메뉴들을 찾아다니는 아줌마든지, 인간은 사랑받고 싶어 하고, 가치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고 싶어 하며, 소속감을 느낄 수 있는 곳을 찾아 헤맨다. 이러한 필요는 정상적인 것이다. 또한 전 세계적이라고 할 수 있겠다.

이 세 가지 필요는 – 사랑받고, 가치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고, 소속감을 느끼는 – 인간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갖는 본능이다. 이러한 것들은 배우는 것이 아니라, 태어나면서부터 생겨나는 본능이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그러한 본능을 갖도록 사람을 창조하셨을까? 간단히 결론만 말하자면, 그러한 필요를 하나님이 직접 채워 주시기 위해서다. 마치 인간의 내면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플러그만이 꽂힐 수 있는 특별한 콘센트가 따로 있는 것과 같다.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우리의 이러한 갈망은 완전히 채워지지 못하고, 우리는 영원토록 무엇인가 부족함을 느낄 것이다.

브래넌 매닝은 우리 모두의 내면에 있는 관심과 애정을 갈구하고 남들에게 용납받고자 하는 숨겨진 자아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표현했다.

숨겨진 자아는 용납되고 인정받는 데에 모든 신경을 쏟는다.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고자 하는 강한 필요성 때문에 그들은 '네' 라고 대답하는 것만큼 자신 있게 '안 돼요' 라는 말을 못한다. 따라서 그들은 다른 사람, 일 그리고 타인의 주장에 끌려 다니게 된다. 그들은 자발적으로 행동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두려움에 쫓겨 행동한다.

매닝의 숨겨진 자아에 대한 솔직한 고백을 읽으면서 나는 내 안의 숨겨진 자아는 어떻게 생겼을지 궁금해졌다. 이러한 일로 기도를 시작하자 하나님은 그 모습을 내게 보여 주셨다. 내 안에 있는 숨겨진 자아를 바라보면서 나는 일기에 다음과 같이 적었다.

내 안에도 숨겨진 자아가 있음을 알고 있다. 다른 사람이 모르는 가면 속의 내가 있는 것이다. 그는 나의 내면에 너무나도 깊숙이 숨어 있어서 나조차도 그의 존재를 간헐적으로 느낄 뿐이다. 그러나 그는 분명히 존재한다. 그는 내 무의식이라는 그림자 속에 웅크리고 앉아 내 삶에 간섭하고, 내가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는 만큼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게 방해한다.

그는 늘 두려움에 휩싸여 있다. 그러므로 모든 것을 통제하려고 든다. 그는 스스로에게 완벽함을 요구하고, 그렇지 못한 모습에 안달한다. 그는 불안한 마음을 달래기 위해 삶을 분주하게 만들려고 한다. 요란하고, 활동적인 삶, 심지어는 사역이라는 방패를 들고 나온다. 그는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할지 너무나 염려한다.

내가 편안히 휴식하려고 할 때면, 게으름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과 인도를 받을 수 없을 것이라고 내게 속삭인다. 그는 내 사역, 건강, 가족, 심지어 재정적인 문제에 대한 최악의 상황들을 상상하게 만듦으로써 나를 두렵게 만든다. 그에게 악의가 있어서 이러한 행동을 하는 것은 아니다. 그는 다만 두려울 뿐이다. 그러므로 그는 자신을 향한 하나님 사랑의 깊이를 깨달아야 할 필요가 있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필요한 이유

우리가 꿈꾸는 이상적인 삶이란, 애정이 풍부한 부모가 있는 가정에서 성장해 일평생을 같이 살아 온 배우자의 손을 잡은 채 숨지는 것이다. 이 두 가지의 관계 사이에는 다른 수많은 관계들이 있다. 이 모든 관계들은 성도가 하나님과 나눌 수 있는 관계를 조금씩 맛볼 수 있게 해 주는 맛보기다.

당신이 이 세상에서 갖는 모든 관계가 지니는 좋은 면들은 하늘의 하나님과 나누는 관계에 대한 그림자가 될 것이다. 당신이 이 세상의 모든 관계들 속에서 얻은 좋은 것들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산 증거가 되어 주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탄은 우리의 관계들을 깨뜨리려 한다. 우리는 깨닫지 못하고 있지만, 사탄은 모든 인간관계가 하나님이 우리와 갖기를 원하시는 관계의 단면을 보여 주는 것임을 이미 알고 있는 것이다. 하나의 관계만으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갖는 비밀을 모두 알 수 없다. 우리가 맺는 많은 관계들의 좋은 점들이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갖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힌트를 주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허락하신 관계들을 통해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더 느낄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기 바란다.

아버지로서의 하나님

복음서에서 예수님은 182번이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신다. 이것은 신약에서 언급하고 있는 하나님의 가장 보편적인 호칭이다. 아버지라는 단어는 사랑과 보호 그리고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는 사람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인간이 지구상에 존재한 이래로, 아버지는 항상 강인한 사랑과 필요의 공급자라는 이미지를 갖고 있다. 사랑하는 아버지의 존재 속에서 아이들은 안정감을 느낀다. 어린아이가 위협을 느끼거나 두려움을 느끼게 되면, 본능적으로 "아빠!"를 소리쳐 부르게 된다. 어떤 성경 사전에서는 아버지를 모든 것의 창조자 혹은 시작이라고 정의하며, 이 단어를 지도자나 인도자 혹은 어른에 대한 존경으로 부르는 호칭이라고 한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늘 아버지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안정감을 준다. 만약 당신의 육신의 아버지가 당신을 조건 없이 사랑하고, 애정을 계속적으로 쏟아 주며 당신을 인정하고, 당신이 모든 상황에서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격려를 아끼지 않는다면, 당신은 하늘 아버지에 대한 건강한 개념을 이미 갖고 있는 것이다. 어린아이가 하나님을 처음으로 인식하게 되는 것은 육신의 아버지에 대한 인상에서부터 출발하기 때문이다. 아버지를 통해 얻게 된 하나님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은 평생 동안 그 아이를 따라다니게 될 것이다.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사랑이 많은 아버지 밑에서 자란 것은 아니다. 어느 날 한 남자가 나에게 다가와서 말했다. "오늘 강의에서 선생님은 하늘의 아버지가 사랑이 많으시고 우리를 용납하시는 분이시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 사실을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저의 아버지는 항상 엄하고 비판적인 분이셨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이와 같이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간섭이 심하고 권위적인 아버지 밑에서 자랐을 수도 있다. 그런 아버지들은 항상 자녀에게 완벽함을 요구하고, 칭찬에는 인색하면서 자신이 세운 기준에 이르지 못했을 때는 바로바로 벌주는 사람이다. 또 어떤 이들은 함께하는 시간이 적다 보니 자신에게 관심이 없다고 느낄 수밖에 없는, 항상 바쁜 아버지 밑에서 자라기도 했을 것이다.

하나님은 당신의 육신의 아버지와 같은 분일 수 있다. 하지만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당신의 육신의 아버지와 전혀 다른 분이실 수도 있다는 것이다. 만약 아버지라는 단어가 당신의 마음이나 생각에 부정적인 모습으로 남아 있다면, 당신은 스스로에게 하늘의 아버지가 어떠한 분이신지를 계속적으로 상기시켜야 할 것이다. 하나님 아버지는 과연 어떤 분이신가?

빌립이 예수님께 물었다. "아버지는 어떤 분이십니까? 아버지를 보여 주세요. 그러면 충분할 겁니다." 그의 요청은 하나님의 인격에 대한 질문이었다. "우리가 아버지를 보게 해 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알고 족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다음과 같았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요 14:9). 하나님이 어떠한 아버지이신 줄 알고 싶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보면 된다.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에게 어떻게 행하셨는지 다음 구절들을 통해 알아보자.

- 예수님은 그들을 조건 없이 사랑하셨다(요 13:1).

- 예수님은 그들의 약함을 인정하셨다(마 8:25~26).
- 예수님은 그들이 아파할 때 같이 아파하셨다(요 11:33~35).
- 예수님은 당신 자신이 내린 명령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능력을 주셨다(마 28:17~20).
- 예수님은 절대로 그들을 버리거나 떠나지 않겠다고 약속하셨다(마 28:20, 히 13:5).

하늘의 아버지에 대한 그림이 조금씩 그려지고 있는가? 예수님은 "나와 아버지는 하나"(요 10:30)라고 말씀하셨다. 어떤 사람들은 삼위일체 중에서 하나님은 엄하고 비판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분으로, 예수님은 그러한 하나님과 우리의 중간에서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진노를 진정시키는 중재자 정도로 생각한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은 바로 예수님의 그것과 동일하다. 그분을 당신을 사랑하시고, 당신을 위해 영원토록 일하실 것이다.

하나님을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로 바라보기 힘들다면, 복음서를 천천히 읽어 보기를 바란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떤 분인지를 언급하는 구절이 있다면 잠시 읽기를 멈추고 노트에 적어 보는 것도 도움이 될 것이다.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개념만큼 성도의 기쁨을 빼앗아 가는 것도 없다. 하나님이 나의 모든 행동을 비판하시는 분이라고 믿는다면, 그분이 주시는 생명 안에서 기뻐하고 안식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마다 즐거워하신다(습 3:17 참조)는 사실을 깨닫게 될 때, 우리도 마치 어린아이가 "아빠 나 좀 봐요! 나 좀 봐요!" 하고 소리치는 것처럼 기뻐하게 될 것이다. 당신의 아빠(아바 Abba)는 당신을 바라보시며 기쁨을 감추지 못하신다!

어머니로서의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하늘 아버지로서뿐만 아니라, 하늘 어머니로 생각할 수 있게 되기까지는 매우 어려운 작업을 거친 후였다. 나에게는 넘어야 할 문화적인 장애들이 많았던 것이다. 여성 운동에 동참하는 자유주의 신학의 많은 개념들이 바로 하나님을 어머니로 생각하는 데서 비롯되었다. 아주 보수적인 배경에서 자란 나는 하나님의 모성애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움찔했다. 하나님에 대해서 말할 때 여성형의 대명사를 사용하는 사람들을 종종 보기도 했는데, 나는 그들의 표현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

하나님에 대해서 여성형의 대명사를 쓰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과의 친밀성을 표현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기존 신학에서 보이는 성차별에 대해 반발하고 성적 평등을 부르짖기 위한 하나의 행동에 불과하다고 생각했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이 정말로 부성애뿐 아니라 모성애적인 부분도 갖고 계심을 인정하게 되었다. 하나님이 자녀들에게 어머니같이 다가오시는 것에 대한 표현이 성경에 많다.

이사야 66장 12~13절의 말씀을 보자.

"……너희가 그 젖을 빨 것이며 너희가 옆에 안기며 그 무릎에서 놀 것이라 어미가 자식을 위로함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하나님은 자녀들에게 위로가 필요할 때마다, 어미가 자식을 옆에 안고 달래는 것처럼 우리를 위로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신다. 그분은 우리를 그분의 무

릎에 앉히고, 우리와 함께 장난치며, 부드러운 사랑을 베풀며, 우리가 위로를 얻을 때까지 우리에게 속삭이실 것이다. 또 다른 구절에서 하나님은 자신을 어머니에 비유하신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이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사 49:15).

"이제 막 출산한 어머니가 젖 먹는 자식을 버리겠는가?" 하나님은 물으신다. "별로 있을 법한 일이 아니지만, 그렇더라도 나는 너에게 그런 일을 하지 않을 것이다." 아버지들이 자녀들을 버리고 떠나는 것은 그리 흔한 일이 아니다. 어머니들이 그렇게 하는 것은 더더욱 희박한 일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 곁을 떠나지 않으신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우리의 위로자이시기 때문에 완벽한 어머니가 되신다. 그분은 상처받은 성도들을 부드럽게 다독이신다. 시편 기자가 "실로 내가 내 심령으로 고요하고 평온케 하기를 젖뗀 아이가 그 어미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시 131:2)라고 노래했을 때, 그는 하나님을 어머니로서 이해하고 있었음이 틀림없다.

내가 어린아이였을 때, 어머니에게는 나를 편안하게 하는 그분만의 특별한 방법이 있었다. 아마도 내가 다쳐서 울고 있을 때였을 것이다. 아니면, 그냥 어머니의 사랑을 표현하는 시간들이었을지도 모르겠다. 어머니가 그 방법

을 사용하시도록 한 여러 상황들이 있었겠지만, 그것은 나에게 아주 탁월한 방법이었다. 그때마다 내 인생에서 거의 경험해 보지 못했던 그런 평안이 내게 찾아 왔었다.

어머니는 내 머리를 쓰다듬어 주셨다. 아주 간단한 것이지 않는가. 그럴 때마다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 어머니가 그렇게 하실 때마다 어떤 상황들이 있었는지도 모르겠다. 단지 어머니가 내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어 주시던 것만이 기억에 남는다. 그리고 기억나는 것은 내가 그때 느꼈던 감정들이다. 나는 어머니의 사랑을 느꼈다. 그리고 내가 안전한 곳에 있고, 용납되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무엇보다도 위로가 되었다. 상황이 어떠했든지 간에 나는 모든 것이 잘될 것이라고 느끼게 되었다.

아마도 그 습관은 모성적인 본능인가 보다. 나는 멜라니도 우리 아이들에게 그렇게 하는 것을 여러 번 보았고, 심지어 우리 딸이 손자들에게 그렇게 하는 것을 보았다. 그것은 아이들에게 많은 것을 말해 주는, 아주 간단한 모성애의 표현이었다.

아빠들은 이러한 방법으로 아이들을 위로하지 않는다. 혹 그렇다 할지라도 어머니가 하는 것과 같은 사랑과 위로를 주지 못한다. 우리 아이들은 어렸을 때, 다치게 되면 나를 지나쳐서 자기들 엄마에게 달려갔다. 물론 나는 이해했다. 나 또한 어린아이였던 때가 있었으니까. 때로는 어머니가 옆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향한 사랑을 모성애적인 방법들로 표현하신다는 것을

생각하면, 하나님에 대한 친밀감이 더해지는 것을 느끼게 될 것이다. 아마도 당신은 하나님을 어머니로서의 하나님을 생각할 때 더 편안함을 느낄지도 모르겠다. 또는 자라 온 전통적인 문화적 배경 때문에 하나님을 어머니로서 생각하기가 힘들 수도 있을 것이다.

영적인 성장은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는 전통적인 것을 뛰어넘을 때에야 비로소 이루어지기도 한다.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갈 때, 때로는 성경이 가르치고, 성령이 깨우쳐 주는 것들이 처음에는 어색한 것으로 다가올 수 있다. 나는 하나님의 성별에 대한 의식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사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성별이 없다. 내가 의도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볼 수 있는 모성애적인 표현들이 주는 이점을 놓치지 않도록 성령이 당신의 이해를 넓히시도록 내어드리라는 것이다. 어머니와 아이의 관계는 우리가 다른 관계에서 결코 느낄 수 없는 색다른 관계를 경험하게 한다.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이해하고 싶다면 하나님의 부성애와 모성애 모두를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분에 대한 완전한 계시는 이들 모두를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친구로서의 하나님

프랑스의 시인 쟈크 드리유(Jacques Delille)는 다음과 같이 노래했다. "가족은 운명이 골라 주지만 친구는 내가 고른다." 우리는 태어날 가정을 고르지는 못했지만 누구를 친구로 사귈 것인지는 직접 결정할 수 있다. 우리는 평생 만나게 되는 모든 사람들과 친한 친구가 되고 싶어 하지는 않는다. 우리의 인생길에서 만나는 사람들 중에서 더 깊이 알고 싶은 사람이 생기게 마련이다. 우리는 그들과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시간을 투자한다. 그러면 곧 깊은 우정이 싹트게 된다.

얼마 전에 내 친구 데비가 그녀의 놀라운 경험에 대해서 이야기한 적이 있었다. 리차드 닉슨(Richard Nixon) 전(前) 미국 대통령이 대통령직에 있을 때 데비는 고등학생이었다. 그때 당시 학교에서 내준 과제 중의 하나가 대통령의 부인 팻 닉슨(Pat Nixon)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하는 것이었다. 데비는 닉슨 부인의 삶에 대해 연구할수록 부인에 대한 존경과 감사가 자라기 시작했다.

데비가 부인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던 중 부인과 자신의 생일이 같은 날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러던 어느 날 데비는 영부인에게 편지를 써서 존경과 감사를 표하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편지에서 자신의 생일이 영부인과 같은 날임을 밝혔다.

얼마 지나지 않아 데비는 영부인으로부터 답장을 받았다. 그것은 형식적인 편지가 아닌, 영부인이 직접 쓴 개인적인 편지였다. 데비는 이 편지에 대한 답장으로 다시 한번 편지를 보내기로 했다. 그러자 닉슨 부인이 답장을 또 보내왔다. 그 결과 17살짜리 고등학생 데비와 영부인은 펜팔이 되었다. 그들은 몇 년간 계속해서 편지를 주고받았다.

1974년 3월, 대통령 부부는 테네시 주 내쉬빌에서 열리는 그랜드 오울 아프리(The Grand Ole Opry, 1925년부터 시작된 미국의 컨츄리 음악 라이브 방

송)에 주빈으로 초대되었다. 그 개막일은 마침 영부인과 데비의 생일날이었다. 그날 19살이 되는 데비는 닉슨 부인으로부터 손님으로 함께 참석해 달라는 전갈을 받았다. 데비는 매우 놀랍기도 했지만, 기쁘기도 했다. 그리하여 데비는 내쉬빌로 가서 대통령 부부를 맞으려고 기다리는 고위 인사들 틈에 서 있게 되었다. 옆에 서 있던 어떤 부인이 거만한 표정으로 데비를 아래위로 훑어보면서 물었다. "아가씨는 여기에 뭐하러 왔지?"

"닉슨 부인이 초대해 주셔서 왔어요." 데비가 잘라 말했다.

데비는 이야기를 마치며 이렇게 이야기했다. "믿을 수 없는 일이었어요. 주빈의 초대 손님으로, 그것도 영부인의 초대로 그 곳에 서 있었다는 사실이 아직도 꿈만 같아요." 영부인과 잠시라도 시간을 갖기 위해 붐비던 사람들 틈에서 19살짜리 데비 칠더스는 닉슨 부인의 손님으로, 친구로 대접을 받을 수 있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친구로 삼으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갖는 놀라운 면이다. 우리가 하나님과 친구가 되었다는 것은 닉슨 부인과 데비의 그것과는 사뭇 다르다. 그들은 단순한 친구였지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매우 개인적이고, 깊이 있는, 친밀한 관계인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과 누리는 친분이 우리가 전혀 경험해 보지 못하는 단계까지 이르기를 원하신다.

친구는 서로를 잘 안다

깊은 우정을 나누는 사람들이 갖는 유익 중의 하나는 바로 서로 말하지 못

할 비밀이 없다는 사실이다. 진정한 친구는 상대에게 어떤 약점이 있다고 해서 멀어지지 않는다. 랄프 왈도 에머슨(Ralph Waldo Emerson)은 "오랜 친구가 좋은 것은 그들 앞에서는 바보가 되어도 괜찮기 때문이다"라고 말한 바 있다.

하나님도 당신에게 이러한 친구다. 당신의 가장 깊고 어두운 면까지도 하나님과 자유롭게 나눌 수 있는가? 하나님은 당신을 온전히 받아들이신다. 하나님이 당신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완전히 받아들인다는 사실을 이해하고 믿는 것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중요한 열쇠다.

어느 날 저녁, 다섯 쌍의 부부가 함께 우리 집에서 모임을 갖게 되었다. 우리는 찬양도 하며, 웃고 떠들며, 각자 갖고 온 간식들을 먹고 있었다.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되자 한 부인이 우리에게 말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두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고, 말하는 동안 그녀의 목소리는 울먹이기 시작했다. "존(가명)과 나는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이 모임에 오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우리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기도를 부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자신이 간음을 행했으며, 그 사실을 최근에 남편에게 털어놓았다고 고백했다. 그들 부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메리(가명)가 자신에게 어떤 일들이 있었고 그 일이 부부관계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설명하는 동안 그 방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울기 시작했다.

메리가 이야기를 마치자, 내 아내 멜라니가 먼저 입을 열었다. "메리", 그녀가 말했다. "당신이 우선 알아야 할 것은, 당신이 어떤 이야기를 하더라도 우리는 여전히 당신을 사랑한다는 사실이에요." 멜라니가 말하는 동안, 나는 방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나와 같은 느낌을 받았다고 확신한다. 바로 하나님

의 임재다. 멜라니가 메리에게 사랑과 용납에 대한 기도를 시작했을 때, 우리는 모두 그녀를 통해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심을 알았다. 그분의 은혜와 인자하심이 방 안을 가득 채웠다.

우리는 존과 메리를 방 한가운데 앉히고, 그 주위에 둘러섰다. 그리고 돌아가면서 그 부부를 위해 기도했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그들을 껴안으며, 우리가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고 있음을 보여 주었다. 그러한 과정 속에서 그 부부에 대한 치유가 시작된 것이다.

친밀감은 열린 마음을 필요로 한다.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는 좋은 모습만 보이지 않아도 된다. 하나님은 당신에 관해 모든 것을 알고 계시며, 완전한 사랑으로 당신을 사랑하신다. 당신이 무슨 말을 하든지 당신을 향한 그분의 사랑은 줄어들지 않는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격언 "친구란, 나의 모든 것을 알고,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사람이다"는 진리다. "여호와여 주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시므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애 3:22~23). 하나님 같은 친구는 평생에 없을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히 받아들이신다는 사실을 앎으로써, 자기 정죄감에서 빠져 나올 수 있을 뿐 아니라, 죄를 지은 다른 사람들도 사랑할 수 있게 된다. 우리가 예수님께 받은 긍휼을 다른 사람들에게 똑같이 베풀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용서와 긍휼을 받아본 경험이 없는 사람은 그것들을 베풀 수 없다. 모든 것을 용납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해 본 우리가 그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눌 수 있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로레인 한스베리(Lorraine Hansberry)는 그녀의 희곡 『양지의 건포도』(A Raisin In The Sun)에서 한순간의 잘못으로 가족의 꿈과 희망을 송두리째 날려 버리게 된 한 흑인 남자의 삶을 그린다. 그가 가족들에게 그의 잘못을 고백했을 때, 그의 누이는 불같이 화를 내며 입에 담기 어려운 말들로 그를 몰아붙인다.

그들의 어머니가 그런 누이의 말을 가로채며 다음과 같이 말씀하신다. "네 오라버니를 사랑하라고 내가 가르쳤을 텐데." "사랑하라구요? 도대체 오빠의 어떤 부분을 사랑할 수 있겠어요." 그의 누이가 대꾸한다. 그 말에 대한 어머니의 답변이다.

> "사람은 누구나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거란다. 그 사실을 아직도 깨닫지 못했다면, 넌 아직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 거로구나. 오늘 저 아이를 위해서 울어 봤느냐? 너 자신을 위해서도 아니고, 돈을 모두 날려 버렸기 때문에 가족을 위해서 우는 것이 아니고, 저 아이를 위해서 울어 봤느냔 말이다. 그가 무슨 일을 겪었는지, 그 일이 저 아이를 어떤 꼴로 만들어 놨는지, 그런 것들을 생각하며 울어 본 적이 있느냐. 사람을 정말로 사랑해야 할 때가 언제라고 생각하니? 일을 잘하고, 다른 사람들을 편안하게 만들어 주었을 때? 그렇게 생각한다면 너는 아직도 배워야 할 게 많다. 사랑은 그럴 때 베푸는 것이 아니란다. 세상 풍파에 휩쓸려 쓰러져 있을 때, 바로 그때가 사랑이 필요한 때란다. 누군가를 판단할 때는 잘 판단해야 한다. 암, 잘 판단해야 하고말고. 그 사람이 지금 처한 상황만을 봐서는 안 된다. 그 사람을 이 자리에 있게 만든 과거의 좋았던 시절과 힘들었던 시절을 모두 이해한 뒤에야 그 사람을 올바로 판단할 수 있는거야."

하나님은 당신의 삶에 있었던 좋았던 시절과 나빴던 시절 모두를 알고 계신다. 하나님은 당신이 인생을 잘 꾸려 나가고 있던 시절에도, 당신이 방황하던 시절에도 함께 계셨고, 당신을 조건 없이 사랑하고 계셨다. 하나님은 당신

의 모든 것을 그분과 나누기를 원하신다. 당신의 성적표는 십자가 위에서 찢겨졌다. 하나님은 당신에 대해 점수를 매기고 계시지 않는다. 당신이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 당신과 하나님과의 우정이 변하지는 않는다. 오히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것이 당신의 행동을 변화시킨다. 하나님과의 교제는 상대와 함께 있는 것을 기뻐하는 것이다. 그 관계는 영원히 나누어지지 않는 연합인 것이다. 그분은 당신이 그분께 모든 것을 말하기를 원하시고, 그분도 당신에게 그렇게 하실 것이다.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니라(요 15:15)"고 예수님은 말씀하셨다. 당신이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 할수록 그분은 아버지에 대해 더 많은 것들을 당신에 알려 주실 것이다. 그분은 "형제보다 더 친밀한 친구(잠 18:24)"이시다. 에밀리 디킨슨(Emily Dickinson)이 말한 대로, "친구는 나의 재산이다." 예수님도 당신을 향해 동일한 말씀을 하신다. 당신은 그분의 유업이며, 하나님이 그분께 주신 선물이다.

관계 안에서 즐거워하기

공허한 종교주의는 율법에 초점을 맞추지만, 강한 아버지, 품에 안고 위로하시는 어머니, 신실한 친구로서의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것은 우리가 그분과의 관계 안에서 긴장을 풀고 안식할 수 있게 한다. 당신은 아기처럼 애정 어린 손길을 바라며 이 땅에 태어났다. 하지만 이제 당신은 성령이 다음과 같이 속삭이시는 것을 들을 수 있게 될 것이다. "쉿, 아가야. 내면의 눈물을 닦으렴.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신단다! 측량할 수 없는 크나큰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신단다. 영원히 사그라지지 않는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신단다." 하나님만이 사랑을 갈구하는 당신의 울부짖음을 다독여 주실 수 있다. 당신이 할 것은 단지 그분을 신뢰하고, 그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뿐이다. 그러면 당신은 영원히 그분 안에서 안식하며 즐거워할 수 있을 것이다.

사랑하는 아버지,

이 세상에서는 도저히 깨달을 수 없을 만큼 주님의 사랑은 넓고 깊습니다. 사랑이 많은 아버지로, 인자한 어머니로, 가까운 친구로 제 삶 속에서 함께 하셨던 순간들을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주님의 사랑에 대한 이해를 넓혀 주옵소서. 그리고 그 사랑에 대한 응답으로 주님을 향한 나의 사랑이 더욱 불타오르게 하옵소서.

>>> 초대의 응답 <<<

다음의 질문들을 숙고함으로써, 이 책 속에 담긴 진리들이 당신의 삶에 계속적으로 영향을 주게 될 것이다.

1. 이 장에서 우리는 인간이 갖는 기본 욕구 3가지를 다루었다. 그것은 무엇인가? 사람들이 이러한 필요들을 채우기 위해서 교회에서, 일터에서, 가정에서,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취하는 행동은 무엇인가?

2. 육신의 아버지를 당신은 어떠한 형용사로 표현하겠는가? 어떤 면에서 육신의 아버지가 하나님의 특성을 보였다고 생각하는가? 하나님을 아버지로서 표현하는 성경구절 3개를 찾아보라.

3. 당신의 내면에는 '숨겨진 자아'가 있는가?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과 당신과의 관계를 방해하는가?

4. 시편 131장 2절, 이사야 49장 14~15절, 66장 12~13절을 읽어 보라. 이 구절들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지 논의해 보라. 어머니와 같이 당신에게 다가오셨던 하나님에 대해 나누어 보라.

5. 당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진정한 친구의 조건을 5가지만 나열해 보라. 당신과 하나님의 교제를 통해 이러한 조건을 만족시키셨던 때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라.

여섯번째 이야기
은혜의 춤

은혜의 춤

12월 어느날, 나는 베이징에서 3시간 정도 떨어진 외곽에 있었다. 기온은 영하 10도를 밑돌고 있었고, 입김조차 얼어붙을 것 같은 폐공장에서 굶주림으로 피골이 상접한 사람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있었다.

경찰의 눈을 피해 한 명씩 한 명씩 모여든 15명의 사람들은 내 주위에 둘러앉았다. "감옥에 가실 수도 있는데 두렵지 않으세요?" 그 중 한 사람이 내게 물었다. "당신도 마찬가지이신데, 두렵지 않으세요?" 내가 되물었다. 중국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모임을 갖는 것은 불법이었고, 우리 모두는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러나 이 곳에 모인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너무나도 굶주려 있었기 때문에 성경공부 시간에 참석하기 위해서라면 목숨도 내놓을 사람들이었다.

그 날 나는 13시간 동안 강의했다. 저녁이 되어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

며 기도하고 있었다. 우리는 모두 묵상 기도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방 안은 조용했다. 그런데 갑자기 87세의 어느 할머니가 중국어로 된 찬양을 부르기 시작했다.

나는 통역을 통해 그분과 대화를 나눠 본 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분의 개인사에 대해 조금 알고 있었다. 그분은 30여 년 전에 있었던 중국 전쟁 때 남편과 헤어졌다. 어느 날 그녀가 살던 동네에서 총격전이 벌어졌다. 중국 병사들과 일본 병사들은 그녀의 주위에서 싸우고 있었기 때문에 그녀는 어느 건물의 구석에 피해 있었다. 친구들은 모두 하나 둘씩 죽임을 당했지만, 이상하게도 병사들은 그녀를 보지 못한 채 지나쳤다.

마침내 총싸움은 끝이 났고 병사들은 건물을 떠났다. 그때 그녀는 '이 상황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분명히 어떤 신이 나를 지켜 주었기 때문이다. 나는 이 신에 대해서 알아야만 한다' 고 생각했다. 10년이 흐른 뒤 그녀가 살고 있는 동네 근처에 지하 교회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녀는 딸의 손을 잡아 이끌었다. "십년 전에 엄마의 목숨을 살려 주신 신에 대해 배우기 위해 교회에 가 보자." 그들은 그 지하 교회를 찾아갔고, 그날 그녀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다.

20년이 지난 후, 그분은 나와 다른 한 가족과 함께 버려진 공장에 앉아 같이 성경공부를 하고 있었다. 나는 지난 시간 동안 그리스도와의 친밀감에 대해 강의했었는데, 87세의 이 부인은 나의 강의에 새로운 가르침을 주었다. 그분은 눈을 감고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 그분의 찬양은 중국 표준어로 된 부드럽고 아름다운 노래였다. 찬양을 부르는 그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 주름진 볼을 지나 미소 짓고 있는 그녀의 입술을 적셨다. 그녀가 부르는 노래의 가사를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표현하는 것임을 느낄 수 있었다. 갑자기, 나는 하나님의 영이 강력하게 임하시는 것을 느꼈다.

나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다. 주위를 둘러보니 모든 사람들이 울고 있었다. 나는 다시 할머니를 쳐다보았다. 그녀는 이미 우리의 존재를 잊은 채 자신만의 세계에 몰입해 있었다. 그것은 당연한 것이었다. 그녀는 우리를 위해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위해 노래하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얼마 후 그녀가 노래를 멈추자, 주위가 조용해졌다. 그분은 잠시 눈을 감은 채 가만히 있더니 곧 눈을 뜨고 나를 바라보았다. "매일매일 그분은 제가 오기만을 기다리고 계셔요." 그녀는 젖은 눈으로, 마치 천사와 같은 미소를 지으면서 말씀했다. 나는 처음 가르침을 받는 어린아이가 된 기분이었다. 나 또한 젖은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면서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의 신혼집

"그분은 제가 오기만을 기다리고 계셔요." 당신은 이러한 사실을 생각해 본 적이 있는가?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보게 될 때 얼마나 기쁠지 생각한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도 당신을 만날 순간을 얼마나 학수고대하시는지 생각해 본 적이 있는가? 신약에서 예수님은 성도들을 그분의 신부라고 부르신다. 언젠가 그분은 이 세상에 다시 오실 것이며, 그의 신부인 우리들은 영원한 결혼식을 통해 그분과 연합할 것이다. 예수님은 말씀하셨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요 14:2~3).

이전 장(章)에서 나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어머니로, 친구로 생각하라고 제안했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갖게 되는 호칭 중에서 가장 친밀한 관계를 나타내는 것은 신부다. 언젠가 우리는 온 우주를 뒤덮는 소리를 듣게 될 것이다.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마 25:6). 그때가 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멸망받다 없어진 세상에서 살기보다 우리를 위해 죽는 것을 택할 만큼 불타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한 그분을 보게 될 것이다.

신데렐라보다 더 아름다운 해피엔딩

우리는 모두 신데렐라의 이야기를 알고 있을 것이다. 그녀와 사랑에 빠진 왕자가 유리구두를 들고 와서 계모와 언니들에게 구박받던 불쌍한 그녀를 데리고 가서 아름다운 공주로 만든 그 이야기를 말이다. 그러나 당신의 이야기에 비하면 그녀의 이야기는 아무것도 아니다. 신데렐라의 이야기가 허구인 것과는 달리 당신의 이야기는 사실이기 때문이다. 당신의 이야기는 신약에서 무삭제판으로 읽을 수 있으며, 당신이 백마 탄 왕자님에 의해 구조될 것이라는 이야기의 전반적인 줄거리는 이미 구약의 에스겔 16장에 나타나 있다. 에스겔에는 예루살렘에 대해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비유로 나와 있다. 그 이야기는 당신이 처음 발견되었을 당시에 어떤 상태였는지 묘사하는 것으로 시작된다. 당신의 상태에 비하면 신데렐라는 호화로운 몸종이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자.

"네 근본과 난 땅은 가나안이요 네 아비는 아모리 사람이요 네 어미는 헷 사람이라 너의 난 것을 말하건대 네가 날 때에 네 배꼽줄을 자르지 아니하였

고 너를 물로 씻어 정결케 하지 아니하였고 네게 소금을 뿌리지 아니하였고 너를 강보로 싸지도 아니하였나니 너를 돌아보아 이 중에 한 가지라도 네게 행하여 너를 긍휼이 여긴 자가 없으므로 네가 나던 날에 네 몸이 꺼린 바 되어 네가 들에 버리웠었느니라"(겔 16:3~5).

이 이야기는 태어날 때부터 불행했던 한 사람의 이야기다. "네 아비는 아모리 사람이요 네 어미는 헷 사람이라". 말투도 무슨 고소장 같지 않은가? 그러한 출생 배경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비천한 인생을 의미했다. 아모리 사람들은 가나안 거인들의 후손으로 우상 숭배에 빠져 있었고, 하나님에 대해 반항하는 족속이었다(암 2:9). 헷 족속의 타락성은 극에 달하여 그들은 수간(獸姦)도 서슴지 않았다고 전해진다. "잠시라도 네가 좋은 집안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관심을 가졌다고 생각하지 마라." 하나님은 불충한 예루살렘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셨던 것이다.

우리도 마찬가지다. 우리의 영적인 계보에 있는 사람들도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께 대항했었다. 아담의 후손인 우리 속에는 어떠한 영적인 매력도 없다. 불신자들은 자신들이 어떤 특별한 영적인 자질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인간의 가장 의로운 모습도 하나님 앞에서는 가증스러운 것이다(사 64:6).

내가 중국의 시골을 방문했을 때, 어떤 집에서 음식을 대접받았다. 안주인은 내 국수 그릇에 닭의 어떤 부위들을 담기 시작했다. 문제는 내 그릇에 담긴 부위는 모두 닭의 내장이었다. 서구 사람이라면 당연히 먹지 않을 그것들로 내 그릇은 가득 차 있었던 것이다. 그녀는 젓가락으로 무엇인가를 들고 "좀

드셔 보세요"라고 말하는 듯이 내 쪽으로 내밀었다. 나는 그것이 무엇인지도 몰랐고, 그것을 먹을 생각은 더더욱 없었다. 그래서 나는 최대한 예의 바르게 고개를 저어 싫다는 표시를 했다. 곧 그녀는 젓가락으로 잡고 있던 것을 다시 큰 그릇에 집어 넣고는 더 깊숙한 곳을 다시 뒤져서 닭발을 내 그릇에 집어 넣었다! 안주인은 무슨 큰 보물이라도 찾아서 준 것처럼 밝게 웃었다. 나는 겸연쩍게 웃어 보였다. 그리고는 숨을 깊이 들이쉬고 국수를 먹기 시작했다. 먹는 내내 나는 어떻게 하면 안주인 모르게 이 닭발을 가지고 나갈 수 있을까 궁리했다.

구속함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자신들의 최선으로 하나님께 드린다고 해도 그것은 하나님의 비위를 건드려 놓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 불신자의 가장 종교적인 행위도 하나님에게는 마치 그녀가 내민 닭발과도 같은 것이다. 우리가 종교적이든 그렇지 않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처음 다가오셨을 때 우리는 진흙탕에서 뒹굴고 있었던 존재들이다.

생명이라는 선물

당신의 백성을 어떻게 구원하셨는지에 대해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신다.

"내가 네 곁으로 지나갈 때에 네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네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라 다시 이르기를 피투성이라도 살라하고" (겔 16:6).

하나님께서 당신을 그분의 품에 품으실 때 가장 먼저 하신 일은 당신에게 선포하신 것이다. "살라!" 현대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구원에서 가장 중요한 사실은 우리의 죄가 용서되었다는 사실이라고 믿는다.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용서는 사실 구원이 갖는 부차적인 의미인 것이다. 구원에서 가장 우선적인 것은 우리가 생명을 받았다는 것이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셔야 했다. 하지만 그분은 그분의 주된 목적을 이루기 위해, 즉 우리와 함께 영원히 동거하시기 위해 그리고 우리 안에 계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

거듭남이라는 것은 죄로 인해 죽은 영혼을 되살리는 것이다. 구원을 받음으로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섭리 하에 초자연적으로 살아나게 되는 것이다.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까지 당신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갈망하지 않았다. 어느 누구도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롬 3:11).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당신을 원하셨다! 그분은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감당할 수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 하셨다.

죄의 용서는 구원이 갖는 놀라운 부분이다. 하지만 기독교를 용서와 동일시하는 개념은 현대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소극적으로 앉아 천국에 가는 날만을 기다리게 만들었다. 그들에게 믿음은 '이미 이루어진 일' 과 '앞으로 일어나게 될 일', 이 두 가지 사항에 의해 정의된다. 그들은 "내 죄는 사해졌고, 나는 천국에 가게 될 것이다"라고 말한다.

그러면 우리의 죄가 사해진 이후 그리고 천국에 들어가기 전까지의 시간은 어떻게 하란 말인가? 예수님이 약속하신 "풍성한 삶"(요 10:10)은 어디에 있는 것인가? 우리의 죄가 사해지는 것만으로는 진정한 기독교가 말하는 관계를 설명할 수는 없다. 기독교는 두 사람의 사랑이야기다. 바로 '당신' 과 '예수 그리스도' 의 사랑이야기인 것이다. 당신에게 있어서 구원은 개인적인

사건인가, 아니면 당신은 죄를 용서받고 천국에 가려고 기다리는 수많은 사람들 중의 한 사람에 불과한가? 그리스도와의 친밀한 교제는 우리가 그분이 베푸시는 사랑을 개인적으로 받아들일 때에만 이루어진다.

은혜의 춤

그는 여러 가지 소리로 소란한 방 안으로 들어섰다. 음악 소리, 웃음소리 그리고 사람들이 대화하는 소리가 들렸다. 그는 방 안을 둘러보았다. 그는 한 사람을 찾고 있었다. 그 사람을 생각만 해도 그의 숨은 가빠졌고, 그의 심장은 뛰기 시작했다. 그는 그녀를 사랑했다. 그뿐만이 아니었다. 그는 그녀를 원했다. 그녀가 그의 것이 되기를 바랬다. 오늘 밤뿐만 아니라 영원히 말이다.

그는 그녀를 발견했다. 사람이 가득 찬 방 건너편에 그녀는 서 있었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를 평생 동안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 보였다. 그녀는 아름다웠다. 아니, 그녀는 숨이 막히게 아름다웠다. "하나님, 그녀를 제게 주세요!" 그의 모든 존재가 소리치고 있었다. "내 평생을 그녀와 함께 보내고 싶습니다. 그녀를 사랑하고, 부요하게 하고, 그녀를 안고 싶습니다. 그녀를 돌보면서 함께 지내고 싶습니다."

그는 그녀에게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방 안을 가로질렀다. 방 안은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지만, 그의 눈에는 오직 그녀만이 보였다. 그가 다가서자, 그녀는 그를 알아차리고 그의 눈을 쳐다보았다. 그는 이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다. 기억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오랜 시간 동안 그는 이 시간을 바라고 있었다. 부드럽고도 사랑이 가득 찬 어조로 그가 물었다. "저랑 춤 추시겠습니까?"

이 이야기는 실제로 있었던 일이다. 그 두 사람은 그날부터 함께 춤추기 시작했고, 그 이후로 한 번도 멈춘 적이 없었다. 그는 그녀에게 청혼했고, 그녀는 받아들였다. 그는 처음부터 계획했던 대로 살려고 한다. 그의 계획이란 그녀가 자신을 처음 만났던 날을 잊을 수 없을 만큼 그녀를 사랑하는 것이었다.

이 이야기는 사실일 뿐 아니라, 당신도 이 이야기의 주인공들을 알고 있다. 그가 그토록 원했던 그녀는 바로 당신이다. 당신을 그토록 갈망했던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어느 날 그분은 이 세상이라는 방에 들어오셔서 당신을 찾으셨다. 그분은 당신에게 완전히 사로잡혀서 당신을 그분의 것으로 만들기로 작정하셨다. 그분은 자신이 당신을 꼭 필요로 함을 알고 계셨고, 당신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것도 알고 계셨다.

내 말이 의심스럽다면, 그분이 당신에게 쓰신 청혼의 편지를 읽어 보라. 이 말은 내가 하는 말이 아니다.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다. 나는 이 곳에 그 말을 그대로 옮긴 것일 뿐이다.

"아름다워라, 나의 사랑. 아름다워라! 흠잡을 데가 하나도 없구나. 일어나 나오오. 사랑하는 임이여! 나의 귀여운 연인이여, 어서 나오오. 오늘 나 그대에게 마음을 빼앗기고 말았네. 그대의 눈짓 한 번 때문에, 나는 그대에게 마음을 빼앗기고 말았네. 오 나의 사랑, 나를 기쁘게 하는 여인아, 그대는 어찌 그리도 아리땁고 고운가?"

이 편지는 성경, 아가서(표준새번역)에 쓰여 있다. 아가서는 예수님과 당신의 사랑이야기다. 어떤 말들은 너무 생생하고 직설적이어서 이 책이 성경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그러나 당신의 연인은 이 아가서가 성경의 내용이 되도록 확실히 하셨다. 아가서는 당신을 위해 쓰여진

사랑의 시다. 예수님은 8개의 시 내용에서 최소 15번 이상 당신을 아름답다고 말씀하신다!

노르위치의 줄리안 부인은 아가서를 통해 하나님의 마음과 복음의 정수를 깨달을 수 있었다. 그녀가 받은 가르침에 대한 요약은 한마디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들이다"는 것이었다. 예수님은 당신을 향한 사랑으로 불타오르고 있다. 그분은 당신을 이렇게 표현하셨다. "이 여인이 누구인가? 새벽처럼 밝고, 보름달처럼 훤하고, 해처럼 눈부시고, 깃발을 앞세운 군대처럼 장엄하구나"(아 6:10 표준새번역).

당신은 스스로에 대해 이렇게 느끼지 않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렇다고 달라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당신이 믿든 안 믿든, 그분이 하신 말씀은 객관적인 사실이다. 지금 이 사실을 믿지 못한다 할지라도 안심하길 바란다. 그분은 영원토록 당신이 얼마나 아름답고 소중한 존재인지 말씀해 주실 것이기 때문이다. 지금이든 나중이든 언젠가 그의 진리의 말씀이 당신을 변화시킬 것이다.

예수님이 함께 춤추자고 하셨던 그날을 당신은 기억하고 있는가? 그날은 당신이 복음을 받아들인 날이다. 교회에서 일어난 일일 수도 있다. 아니면 친구가 당신에게 복음을 전한 순간이었을 수도 있다. 당신이 홀로 있을 때, 성령님이 당신에게 말씀하신 순간일 수도 있다. 그분이 손을 내밀었을 때 당신이 어떤 기분이었는지 기억하는가? 아가서의 신부가 우리를 대신해서 다음과 같이 노래했다. "나의 사랑하는 자가 문틈으로 손을 들이밀매 내 마음이 동하여서"(아 5:4).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 가셨을 때, 우리 모두는 이러한 마음이었을 것이다.

예수님을 로맨틱하게 생각하는 것이 불경스러운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기 바란다. 우리를 신부로 부르신 것은 예수님이시다. 그분이 우리에게 열정과 낭만이 가득한 편지를 쓰셨고, 우리는 단지 그 사랑에 반응했을 뿐이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요일 4:19). 이 사랑의 관계는 우리가 먼저 시작한 것은 아니다. 그분이 시작하셨다. 우리는 거부할 수 없는 그분의 매력에 이끌려 그 사랑에 응답한 것일 뿐이다. 우리는 믿음으로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구나"(아 2:16)라고 말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신부라면 누구나 그렇듯이 우리는 "나는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구나 그가 나를 사모한다(아 7:10)"는 사실을 발견하고 기뻐하게 되는 것이다.

하나님과 우리가 맺는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 내가 춤이라는 비유를 만들어 낸 것이 아니다. 예수님이 직접 춤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신 것이다. 하나님은 스바냐 3장 17절에서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라고 말씀하신다. 스트롱 주석 사전에서는 '기쁨을 이기지 못하다(혹 기뻐하다로 번역되기도 한다)'를 다음과 같이 해설한다. "주체할 수 없는 감정에 이끌려 빙빙 도는 것"

누군가가 나에게 와서 말했다. "저는 아주 엄한 교회에서 자랐는데요, 저희 교회에서는 춤이 혼전 성관계로 연결되기 때문에 잘못된 것이라고 가르쳤어요. 그런데 박사님은 지금 하나님께서 저를 보시면서 춤추신다는 말씀이세요?" 사실이다. 하나님은 당신을 보시면서 춤을 추신다. 당신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단지, "부드러운 예수님 온유하고 인자하시네"식의 사랑이 아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열정으로 가득 차 있다. 백마 탄 당신의 왕자님은 당신을 위해서라면 검(성령의 검)을 빼어들고 용(사탄, 계 12:9)과 싸우기를

마다하지 않으신다!

당신을 향한 예수님의 사랑은 위대하다! 어떤 의미에서 본다면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19세 이상 관람가로 판정될 수도 있을 것이다. 불순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 사랑의 농도가 너무 짙기 때문이다. 이러한 비유가 당신을 언짢게 만드는가? 마음을 풀기 바란다. 예수님의 사랑은 인간이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친밀하고 강력하다. 당신이라는 진주를 사기 위해서 예수님은 모든 소유를 다 팔아 버리셨다(마 13:45~46). 그분을 향해 열정적인 마음을 품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분의 사랑은 강렬하지만, 그 표현 방식은 부드럽다.

세럴의 이야기

세럴이라는 이름의 한 여성은 역경의 시간을 보내면서 하나님의 강렬한 사랑에 대해서 배우게 되었다. 세럴은 결혼 4년차의 평범한 아내이자 어머니였다. 세럴과 리의 결혼 생활은 처음에 아주 순탄한 것 같았다. 하지만 오래 지나지 않아 모든 것이 변했다. 리는 어느 순간부터인가 그녀에게서 멀어지기 시작했다. 그녀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알아내려고 했지만, 리는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차가워질 뿐이었다. 마침내 세럴이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고 말았다. 리는 가방을 싸 들고, 통장에 있는 돈도 모두 찾아서 하나밖에 없는 차에 올라타고 사라져 버렸다. 세럴과 그들의 두 살 배기 아들에게는 아무것도 남겨 놓지 않은 채말이다.

남편이 떠난 뒤 몇 주일이 지나서야 세럴은 리가 그동안 상사와 동성애를 해 왔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더욱 놀란 것은, 남편이 자유로운 동성애자로 살기로 결심을 했다는 것이었다. 그녀가 앞으로 지고 가야 할 짐은 너무나도 무거웠다. 세럴이 리에 대한 소식을 다시 듣게 된 것은 7년이 지나서였다. 리는 에이즈로 병원에 누워 있었다.

그날 이후로 세럴은 하나님을 향해 마음의 문을 닫았다. 그녀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그녀가 알 수 없는 이유로 그녀를 괴롭히는 사탄이였던 것이다. 절망 속에서 나날을 보내던 세럴은 어느 날, 손에 약병을 들고 앉아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다. 하지만 그날 밤 세럴이 계획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일이 일어났다. 그녀는 그날 밤을 다음과 같이 회상했다.

> 아무런 희망도 보이지 않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저는 결국 자살하려고 마음먹었었죠. 어느 날 저녁, 혼자 어두운 방에 앉아서 모든 고통을 끝내기 위해 한 손 가득 알약을 쏟아 부었어요. 그런데 제가 '나의 사탄' 이라고 생각했던 하나님이 갑자기 부드럽게 다가와서 사랑을 부어 주시기 시작하는 것이었어요. 제 머릿속에서 빌립보서 4장 1절을 읽으라는 목소리가 자꾸 들리는 것 같았어요. 결국, 저는 일어나서 성경을 찾아내고는 그 구절을 찾아서 읽기 시작했죠.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자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하나님은 저에게 말씀하고 계셨어요. 이 말은 저를 괴롭히는 사탄의 말이 아니었고, 나를 향한 뜨거운 사랑과 용납을 말하는 것이었어요. 저를 위한, 그의 사랑하는 자를 위한 말씀이었던 거예요.
>
> 그날 밤 저는 무릎을 꿇고 그분께 완전히 순복하는 기도를 했어요. 이것은 구원을 위한 기도가 아니었어요. 상한 심정으로 드리는 기도였죠. 완전한 항복이었던 거죠. 더 이상 나의 뜻대로 살지 않기로 다짐하는 기도였어요. 그때 당시에는 그분께 완전히 순복하는 것이 무엇인지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했었지만, 아무튼 내가 나의 삶에 대한 통제권을 내려놓고, 그분이 저의 생명이 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죠. 그날 밤 제가 '사탄' 으로 생각했던, 주님이 나를 향한 당신의 사랑을 선포하셨어요. 그리고 내가 그분의 기쁨이요 그분의 면류관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저는 그분의 사랑하는 자였던 거예요.

그날 이후로 셰릴은 오직 예수님만이 그녀를 온전히 만족시킬 수 있는 분이시며, 그녀가 필요한 전부이심을 배우게 되었다. 예수님은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전부가 되신다.

아주 오래된 노래

표준새번역에서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너를 보고서 노래하며 기뻐하실 것이다." 당신은 예수님께서 당신을 향해 달콤한 목소리로 사랑의 노래를 부르시는 것을 상상할 수 있겠는가? 성경에는 그렇다고 써 있다. 예수님은 당신이 그분의 소유라는 사실에 너무 기쁘셔서 노래를 참으실 수 없는 것이다.

어느 날 나는 이 구절에 대해서 강의하고 있었다. 강의 후 헬레나가 나에게 와서 말했다. "얼마 전에 저도 이 구절을 읽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며 노래를 부르신다는 사실이 마음에 다가왔어요. 그래서 주님께 물었죠. '주님, 정말 저를 보시며 노래를 부르세요? 저를 보면서 대체 무슨 노래를 부르고 계시나요?' 곧 제 마음속에 예전에 좋아했던 노래가 하나 떠오르는 것이었어요. 처음에는 그 노래를 제 머릿속에서 지우려고 했어요. '이건 주님이 아니야' 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노래가 머리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저는 그것이 주님이 저에게 불러 주시는 노래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헬레나는 계속 말을 이었다. "주님이 불러 주신 노래가 뭐냐면요, '당신은 나의 해님, 나의 유일한 해님. 당신은 구름이 가득한 날에도 나를 행복하게 한다네. 사랑하는 이여, 내가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당신을 알지 못할 겁니다. 제발, 나의 해님을 빼앗아 가지 말아 주시오.' 그때 저는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저를 사랑하시는지를요! 제가 그분에게 해님이라고 생각하니까 얼마나 감동이 되었는지 몰라요!"

어떤 사람들은 반론을 제기할지도 모른다. "하나님이 왜 그런 노래를 불러 주겠어요?" 백마 탄 당신의 왕자님이 복음성가만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 말기 바란다. 그분은 헬레나의 마음을 흔들어 놓을 곡이 무엇인지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 노래를 부르신 것이다. 그분은 혼잣말로 노래를 부르신 것이 아니다. 그분은 큰 소리로 그녀에게 노래를 불러 주신 것이다. 이처럼 우리의 연인은 멋진 분이다. 그분은 당신이 좋아하는 노래, 당신이 좋아하는 장소, 당신이 좋아하는 모든 것들을 아신다. 그분의 계획은 당신이 이 땅에 있는 동안에는 물론이고 영원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즐기게 하는 분이다. 당신이 살아가면서 좋아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당신에게 불러 주는 사랑의 노래다.

이 땅에서 내가 가장 좋아하는 곳은 브리티쉬 버진 아일랜드(British Virgin Island)다. 캐리비안 지역은 모두 다 아름답지만, 이 섬이 갖는 특별한 뭔가가 나를 황홀경에 빠지게 한다. 멜라니와 내가 휴가로 그 곳에 갔을 때, 나는 톨토라(Tortola)에 있는 케인 가든 베이(Cane Garden Bay)의 어느 해먹(나무와 나무 사이를 이어 달아매는 그물 침대) 위에 누워 있었다. 나는 도저히 읽으려고 들고 있던 책에 집중할 수 없었다. 나는 크리스탈처럼 빛나는 바닷물과 맞닿아 있는 하얀 해변을 바라보고 있었다. 저 멀리 수평선 위에 떠 있는 돛단배들을 보면서 나는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기쁨을 느끼며 기도했다. "하나님, 이곳은 정말로 멋지네요! 여기에다가 아주 멋진 광경을 펼쳐 놓으셨어요!" 그때, 작고 부드러운 목소리가 머릿속에 들려왔다. "이건 아무것도 아니란다. 널 위해 준비해 놓은 것들을 다 보게 될 때 네가 받을 감동이 어떨지 상상도 못할거야!"

그분은 당신을 위하여 기쁘게 노래를 불러 주신다! 백마 탄 당신의 왕자님은 당신을 위해 너무나도 많은 것들을 준비해 놓으셨다.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고전 2:9~10). 당신의 신랑은 매일같이 당신에게 노래를 부른다. 귀 기울여 보라. 음악이 들리는가? 영적인 삶이란 바로 예수님과 영원히 춤추는 것을 의미한다.

당신이 춤을 출 때, 배경 음악은 항상 들려온다. 왜냐면 예수님께서 항상 노래를 부르고 계시기 때문이다. 그분은 복음성가만을 알고 계시는 것이 아니다. 지금 예수님이 불러 주시는 노래가 어떤 노랜지 알아 맞출 수 있겠는가? 그분은 모든 낭만적인 노래들을 알고 계시며, 당신을 위해 매일 수천 가지의 시들도 읊으신다. 아이들의 웃음소리 속에서, 해가 지는 아름다운 풍경 속에서, 당신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노래로, 당신이 좋아하는 음식의 맛 속에서, 결혼의 친밀감 속에서 그분의 노래는 항상 들려온다. 그분은 당신이 가장 좋아하는 노래를 알고 계신다.

엘리자베스 바렛 브라우닝(Elizabeth Barrett Browning)은 그녀의 시 "오로라 레이"(Aurora Leigh)에서 다음과 같이 노래했다.

> 온 땅은 하늘로 가득 찼고
> 모든 수풀은 하나님으로 불타오르네.
> 그러나 눈이 뜨인 자들만이 신을 벗고
> 나머지는 둘러앉아 산딸기만 딴다네.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노래는 온 우주에 울려 퍼진다. 예수님은 말씀하셨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마 1:15). 노랫가락이 들려올 때 당신은 그분의 목소리를 알아들을 수 있겠는가? 온 우주의 연인이 당신을 무도회로 초대하고 있을 때, 산딸기만 따느라고 시간을 허비하지 말기 바란다.

결혼 선물

하나님은 에스겔 16장에서 사랑하는 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신다. "내가 너를 지나가면서 너를 봤을 때, 네가 사랑받을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그래서 나는 내 옷을 네 위에 펼쳐 네 벌거벗음을 가리었다. 그리고 나는 네게 맹세하여 언약을 세우며 말했다. 너는 내게 속하게 되리라!"(겔 16:8의 의역)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다.

언약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깨뜨릴 수 없는 약속을 의미한다. 심지어 언약을 맺은 상대가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 할지라도 어겨서는 안 되는 것이다. 하나님은 당신에게 "네가 무엇을 하든 안 하든지 간에, 나는 너를 향한 나의 계획을 이루고 말 것이다. 너는 영원히 나의 것으로 만드는 데 방해될 것은 아무것도 없다. 너는 나의 사랑하는 자가 되고 말 것이다. 나는 이것을 이루기 위해 무엇이든지 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신다. 그분의 연인인 당신에게 그분이 주신 것들을 에스겔 16장을 통해 살펴보자.

그분은 당신을 영적으로 깨끗하게 하셨다

"내가 물로 너를 씻겨서 네 피를 없이 하며……"(16:9). 예수님은 말씀하

셨다. "너희는 내가 일러 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요 17:3). 과거의 더러움은 모두 영원히 사라졌다. 그것은 예수님에 의해 말끔히 씻겨졌다.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에 의해 당신은 과거의 더러움 대신에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갖게 되었다(롬 5:17).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의로움이 되셨기(고전 1:30) 때문에 당신은 이제 거룩하다(고전 3:16~17).

그분은 성령님을 당신에게 주셨다

"내가…… 네게 기름을 바르고"(겔 16:9). 성경에서 기름은 성령님의 상징이다.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분의 성령을 당신 안에 두셔서 당신을 보호하고 인도하게 하셨다. 어떤 남자도 자신이 목숨보다 더 소중히 여기는 사랑하는 사람을 위험한 곳에 보내지 않는다. 예수님은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히 13:5)고 약속하셨다.

그분은 당신에게 영적 은사들을 주셨다

"(내가 네게) 패물을 채우고 팔고리를 손목에 끼우고 사슬을 목에 드리우고"(겔 16:11). 성경은 신약에서 예수님이 죽음에서 살아나셨음을 강조한다. 그리고 그분은 구속하신 자들에게 선물을 주신다(고전 12:4~11; 엡 4:8). 당신이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은 당신에게 영적인 은사들을 주셨다.

그분은 당신을 왕족으로 부르셨다

"…… (네가) 극히 곱고 형통하여 왕후의 지위에 나아갔느니라 네 화려함을 인하여 네 명성이 이방인 중에 퍼졌음은 내가 네게 입힌 영화로 네 화려함이 완전함이니라"(겔 16:13~14). 하나님은 당신의 정체성을 새롭게 하셨다.

당신이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 당신은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벧후 1:4). 이제 당신은 왕족의 한 사람으로(벧전 2:9) 그리스도의 이름을 덧입게 되었다.

현실이 된 동화

신데렐라의 이야기는 아이들이 즐겨 듣고 좋아하는 동화이지만, 실제로 있었던 일은 아니다. 그러나 당신의 이야기는 완전한 진실이다.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고, 당신을 그분의 영원한 신부로 만들기 위해 모든 피조물들을 사용하신다. 그분은 결혼 준비를 위해 잠시 떠나셨고, 언젠가 당신을 영원한 신혼집으로 인도하시기 위해 돌아오실 것이다. 그동안에는 당신이 올 날을 매일같이 손꼽아 기다리고 계신다. 그분은 당신을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당신이 그분과 함께 얼굴을 맞대고 천국에서 함께 살 날을 생각하시며 초조하게 기다리신다. 그날은 그리 멀지 않았다. 그러니 준비하고 있길 바란다.

19세기 후반에, 프로렌스 마터스라는 어린 소녀가 등대지기 오빠와 함께 조지아 주의 사바나의 등대에서 살고 있었다. 그는 배들이 무사히 항구로 들어올 수 있도록 도와주는 등대를 지키는 사람이었다.

어느 날 프로렌스는 몇 가지 일을 처리하기 위해 시내에 갔다. 그녀는 시내에서 먼 곳에서 온 아주 잘생긴 선원을 만났다. 첫눈에 반한 그들은 짧지만 강렬한 사랑을 불태웠다. 떠나야 할 시간이 다가오자 선원은 그녀에게 청혼을 했다. 그는 항해가 끝난 후 사바나로 돌아와서 그녀와 결혼할 것을 약속했다. 그리고는 수평선 너머로 배를 타고 떠나갔다.

프로렌스는 매일 같이 제방 위에 서서 사랑하는 연인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렸다. 그녀는 항구로 배가 들어설 때마다 그의 배이기를 바라면서 앞치마를 흔들었다. 그녀는 사랑하는 이를 데려오는 배일거라는 설레임으로 배가 들어설 때마다 기대로 가슴이 벅차올랐었다. 프로렌스는 무려 44년 동안이나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곳에 서서 계속 기다렸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그녀의 연인은 돌아오지 않았다.

오늘날 사바나강의 근처에 있는 리버 거리에는 희망을 잃지 않았던 프로렌스 마터스를 기리는 동상이 서 있다. 프로렌스는 1930년에 공식적으로 "사바나의 연인"으로 인정되었고, 1943년 생을 마감할 때까지 그렇게 머물러 있었다. 오늘날 사바나항(港)에 들어서는 배들은 앞치마를 여전히 흔들고 있는 프로렌스 마터스의 동상의 환영을 받는다.

그리스도인들은 오늘날 시간이라는 제방 위에 서서 현재와 영원을 잇는 수평선을 바라보며 서 있다. 어떤 때는 비가 세차게 오기도 하며, 차가운 바람이 매몰차게 불어 오기도 한다. 하지만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 어떠한 어려움을 만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연인이 돌아오기만을 손꼽아 기다린다. 언젠가 당신은 그분을 볼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이 초청해 주시는 말을 들으면서 당신의 마음은 기쁨으로 가득 찰 것이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의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반구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이 피어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그날에 우리는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 자"(벧전 1:8)를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볼 것이다. 우리는 단 한 번도 우리 이외의 다른 곳을 쳐다보지 않고 있었던 눈을 바라보게 될 것이다. 우리는 넓은 그분의 품에 안겨 그분의 목소리를 정말로 듣게 될 것이다. 당신을 만나자마자 무슨 말씀을 하실지 나는 알 수 없지만, 그분이 당신의 눈을 깊게 바라보면서 "춤 추실까요"라고 말씀하신다고 해도 그리 놀라지 않을 것이다.

사랑하는 아버지,
저를 너무나도 사랑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청혼을 기쁨으로 받아들입니다. 신데렐라의 꿈은 저에게 이루어졌습니다! 주님과 함께 나누게 될 집으로 저를 데리고 가실 날을 손꼽아 기다립니다. 그러니 속히 오시옵소서!

>>> 초대의 응답 <<<

다음의 질문들을 숙고함으로써, 이 책 속에 담긴 진리들이 당신의 삶에 계속적으로 영향을 주게 될 것이다.

1. 예수님은 처소를 마련하기 위해 가셨다고 말씀하셨다. 천국이 어떤 곳이라고 상상되는지 구체적으로 묘사해 보라. 당신은 무엇을 가장 기대하고 있는가?

2. 에스겔 16장 6절을 읽어 보라.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찾아오셔서 "살라"라고 말씀하신 때를 설명해 보라. 그분의 목소리는 어떠했는가? 당신의 삶은 그때부터 어떻게 바뀌었는가?

3. 이 장에서 언급하지 않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묘사하는 다른 구절들을 아가서에서 찾아보라. 당신을 위한 그분의 편지를 이 구절들을 사용하여 만들어 보라.

4. 예수님이 어떤 노래를 불러 주시기를 바라는가? 그룹원들에게 그 노래를 불러 주거나, 가사를 읽어 주라. 왜 그 노래를 선택했는가? 노래의 형태 이외에 예수님이 당신에게 사랑의 노래를 불러 주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다른 경우들을 생각해 보라.

5. 하나님이 주셨다고 믿는 영적인 은사 두 가지를 말하라. 그분의 영광을 위해 당신은 이 은사들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

6. 당신이 가장 좋아하는 영화를 보고, 어떤 장면이 가장 감명 깊었는지를 말하라. 그 영화가 주는 감동과 하나님이 당신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것에는 어떤 공통점을 찾아볼 수 있는지 나눠라.

일곱번째 이야기

의무감에서 신뢰로

의무감에서 신뢰로

때때로 나는 내가 영적인 지진아가 아닌가 생각해 보곤 했다. 나는 하나님이 자신들의 삶 속에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셔서, 즉시 올바른 길로 전환했다는 그리스도인들의 이야기를 많이 들어왔다. 나는 이러한 경험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질투하곤 했다. 하나님은 내가 결국 알아듣고, "오! 주님, 그때 그게 주님의 음성이었군요!" 하고 반응하기까지 여러 차례 같은 말씀을 반복해야만 했다. 내가 그분의 음성에 무감각하고 싶어서가 아니다. 나는 단지 그분이 나에게 주셨다고 생각하는 일들을 처리하느라고 너무 바빠서 그분이 말씀하실 때 듣지 못한 것일 뿐이다.

나는 영적인 지진아가 아닐지도 모르겠다. 어쩌면 나는 영적 집중력 결핍 장애가 있는 것인지도 모르겠다. 주의력 결핍 장애가 있는 어린이들은 주위의

수많은 자극들을 걸러 내는 능력에 문제가 있는 아동들이다. 결과적으로 그들은 어떠한 것에도 흥미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모든 것에 관심을 기울이기 때문에 정작 정신을 집중해야 하는 것에는 집중하지 못하는 것이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나의 삶을 잘 설명하는 것이기도 하다. 나는 다른 많은 것에 정신을 빼앗겨 정작 좋은 편(눅 10:38~42)을 놓쳐 버리곤 했다.

이 책의 첫 장에서 내가 설명했던 호숫가에서의 경험을 기억하는가?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과 누리기를 원하시는 친밀감을 놓쳐 버릴 정도로 내가 너무 바쁘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친히 나에게 말씀하신 것이 그때가 처음이 아니었다. 나는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사랑했고, 종종 그것은 나의 말과 나의 시간 계획에 의해 표현되었다.

때때로 하나님을 향한 나의 사랑 표현은 스스로가 기분이 좋기 위해 아내에게 매일 꽃을 사다 주는 남편과도 같았다. 솔직히 말하자면, 나는 가끔 나의 이익과 즐거움을 위해 하나님과의 친밀감을 갖기를 원하기도 했었다. 그러한 부부관계가 과연 얼마나 건전한 것일 수 있겠는가? 어떠한 관계에서든지 자기중심적인 태도는 미성숙의 가장 대표적인 태도이며, 더 나아가서는 진정한 헌신의 부족을 나타내는 것일 수도 있다. 웨스민스터 고백서자 '인간의 궁극적인 목표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과 함께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 이라고 선언한 것에는 논쟁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가장 성숙한 사람일수록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즐거움을 주는 것이 곧 내 자신이 즐거울 수 있다는 것임을 알 것이다. 중요한 것은 기독교는 자아중심적인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 중심적인 사람을 원한다는 것이다.

우리가 아닌 그분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존재하는 분이 아니시다. 우리가 그분을 위해, 그분의 즐거움을 위해 존재한다(계 4:11). 우리가 그분과 친밀해지고 그분에 대해 알기를 원한다면, 관계를 시작하시는 분은 그분이라는 사실을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다. 제프 임배크(Jeff Imbach)는 "생수의 강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과 목적에 의해서다. 우리는 강의 발원지가 될 수 없고, 조류를 만들어 낼 수도 없다"고 말했다.

하나님과 춤을 추기를 원한다면, 그분의 리드를 따라갈 준비를 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당신은 스스로의 발을 밟게 될 뿐이다. 그러나 그분이 리드하는 것을 따라가는 법을 배운다면, 그분이 부르는 영원한 사랑의 노래에 맞춰 일생일대 최고의 춤을 출 수 있게 될 것이다.

선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더 깊은 차원의 친밀감으로 이끄시기를 원하신다. 그분은 우리의 유아적인 접근을 넘어서기를 원하신다. 우리는 수업 시간에 짝사랑하는 이에게 쪽지를 건네 주던 어린 시절의 접근 방식에 만족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피상적인 믿음을 넘어서 더 깊고 성숙한 관계를 맺어 나가기를 원하신다. 당신이 친밀감이라는 단어가 의미하는 모든 것을 누리기를 정말로 원한다면 하나님은 그 수준까지 당신을 이끌어 가실 것이다. 당신이 더 깊은 관계를 갈망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그분이 당신을 더 가까이 이끌어 주시고 계심을 보여 주는 것이다.

나는 하나님께서 그분과의 친밀감을 방해하는 것들에 대해 오랫동안 말씀하고 계셨음을 이제야 깨닫는다. 그분은 내가 그분 안에서 더 기뻐하기를 원

하시며, 그것은 곧 그분이 나를 더 기뻐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분은 이미 스트레스로 인한 발진을 통해서, 내 사랑하는 아내를 통해서, 또한 사랑이 많지만 여전히 염려하는("아들아, 나는 네가 걱정스럽구나") 어머니를 통해 그리고 나의 열정적인 행진이 하나님과의 친밀감을 방해하고 있다는 것을 나보다 더 잘 보고 있었던 친구들을 통해 말씀하고 계셨다.

리차드 포스터가 나에게 최면술을 걸었던들 퀘이커교의 저자인 토마스 켈리의 『헌신의 간증』(A Testament of Devotion)으로 나를 끌어들이지 못했을 것이다. 빡빡한 스케줄이나 열정으로 가득 찬 날들이 없이도 초자연적인 삶을 누릴 수 있다는 그의 약속은 나에게 영적인 오아시스와도 같은 것이었다. 켈리의 책에 쓴 서문에서 리차드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 그때 나의 눈은 [켈리의] 말과 소망의 약속에 머물게 되었다. "우리는 분주한 현실과는 다른 보다 풍성하고 깊은 삶의 방식이 있다는 것을 느끼곤 한다. 분주하지 않은 평온과 여유 그리고 능력이 있는 삶말이다. 우리가 그 중심에 들어갈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나는 본능적으로 그가 내 경험을 넘어서는 어떠한 것에 대해 말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나는 불경건하거나 불손한 사람이 아니었다. 오히려 그 반대였다. 문제는 내가 너무 진지하고 옳은 것을 하려고 신경을 쓰고 있었기 때문에, 나는 나에게 찾아오는 모든 사역의 기회들을 받아들였다는 것이다. 어쨌든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역할 수 있다는 것은 놀라운 기회들이 아니었던가. 그러나 그 결과는, 켈리가 묘사한 것처럼 '나를 숨차게 하는 열병의 참을 수 없는 혼돈' 이었을 뿐이다.

나는 포스터와 켈리의 딜레마를 이해할 수 있다. 아마도 오늘날의 많은 복음주의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우리는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사랑으로 주님을 열심히 섬기지만, 너무 많은 것을 단숨에 해내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친밀한 관계를 놓쳐 버린다. 켈리는 이것을 숨차게 하는 열병이라고 묘사했다. 이것은 아마 현대 교회가 내거는 슬로건일지도 모른다. 슬픈 것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것을 교회를 위한 긍정적인 슬로건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이다.

어느 날 아침, 나는 예수님이 잡히시던 전날 밤에 하셨던 기도를 읽고 있었다. 그분은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요 17:4)라고 기도하셨다. 알 수 없는 이유로, 나는 눈물을 흘리면서 그 구절을 읽고 있었다. 나는 기도했다. "아버지, 눈을 감는 순간에 저의 고백이 이러한 고백이길 원합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습니다."

내 기도의 의도는 아버지께서 내 생애 동안에 하라고 주신 일들을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성취하고자 하는 내 열망을 나타내는 것이었다. 어린 시절부터 나는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일생 동안 해야 할 일들이 세세하게 적힌 목록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다. 나는 우리가 그 목록에 있는 모든 것을 완성했을 때에야 "선한 싸움을 마치고" 세상을 뜰 수 있다고 믿었다. 그러나 최근 몇 년 동안 나는 그리스도인다운 삶은 우리가 그렇게 살기로 결심한다고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생명이 우리의 삶 가운데 흘러가야만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그리고 최근에 들어서는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도록 이끄시지 않는 일들은 하지 않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어떤 이들에게 있어서 '무엇인가를 하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보다 더 쉬운 것이다.

예수님의 기도를 읽으면서 드렸던 그 기도에 하나님은 내 마음에 떠오르는 생각을 통해 즉각적으로 응답하셨다. "내가 네게 하라고 준 일들을 분별해서 그것에만 집중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그분이 말씀하셨다. 그분이 내 마음에 주신 말씀은 지저분한 옷장 안을 카메라 후래시가 밝혀 주듯이 나의 바쁜 삶의 단면들을 밝혀 주었다.

그때에야 비로소 나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내 일생 동안 이룰 어떤 성취 목록에 적혀 있는 일들을 해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분이 원하시는 것은 내가 무의식적으로 만든 목록에 있는 일들을 지우는 것이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시 46:10)는 우리 중 몇몇 사람들은 정말 따르기 어려운 명령이다.

나는 생명이란 그분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분 안에 있는 것임을 알게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게 '그냥 존재하는 것' 보다는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음을 때때로 발견한다. 좌절감에 빠져 있을 때 나는 멜라니에게 말하곤 했다. "나는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는 것에 대해 얼마든지 가르칠 수는 있지만, 그렇게 살 수가 없네 그려." 오래된 습관은 쉽게 없어지지 않기 마련이다. 그리스도인이 성장하는 것은 서서히 이루어지는 과정이며, 때로는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가운데 일어나기도 한다. 옛말에도 있듯이, "나는 원하는 위치에 있지는 않지만, 감사하게도, 예전에 있던 곳에도 머물러 있지 않는다."

나는 오랫동안 어느 노인의 철학대로 살아왔다. 그분은 의사가 하루 한 알씩 먹으라고 처방한 약에 대해서 "한 알이 내 몸에 좋다면, 두 알은 갑절로 좋을 게야"라고 말씀하곤 했다. 그분의 억지스러운 논리는 어쩌면 말은 될지도 모른다. 나는 이러한 말도 안 되는 논리를 내 삶 속에 적용하곤 했다. 사실, 의사가 처방해 준 것보다 더 많은 약을 복용하는 것은 위험한 일이다. 그것은 유독한 것이고, 결국에는 영적인 건강을 해치게 할 문제들을 야기시킬 것이다.

부족한 것이 때로는 더 좋을 수도 있다

일을 조금 덜 하라는 말은 어떤 복음주의적인 사람들이 가진 거룩한 교리에 대한 모독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런 사람들은 자신에게 조금 일을 줄이라는 말을 모욕으로 받아들일 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있어 수동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도 비난한다. "그냥 해봐"라는 신조는 현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리스도의 신성(神性)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되어 버렸다.

그러나 사실 종교적인 과다활동은 하나님과의 친밀감이라는 피를 빨아먹는 거머리와도 같은 것이다. 하나님은 당신을 그분의 몸종으로 부르지 않으셨다. 그분은 당신을 신부로 부르신 것이다. 그래도 우리는 그분을 섬겨야 하는 것이 아닌가? 물론이다. 하지만, 섬김은 그분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표현하는 자연스러운 방법이어야 하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그것은 참된 친밀성을 방해하는 장애물이 될 뿐이다.

선한 의도를 가진 그리스도인들은 뗏목을 타고 바다를 표류하는 사람과 같은 상황에 있는 자신을 종종 발견하게 된다. 그 사람은 너무나도 갈증이 나서 주위에 널려 있는 바닷물을 마신다. 그러나 소금물은 더 갈증을 유발하고

그는 더 많은 바닷물을 마신다. 이러한 악순환은 종국에 죽음을 부르게 된다.

하나님과 더 친밀하고 싶은 갈망을 채우기 위해 더 많은 일을 해야 한다고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같은 운명이 기다리고 있다. 우리의 가장 깊은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는 한 발 더 전진하기 위해서 한 발 후퇴하는 것이 필요함을 이해해야 한다.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이 항상 우리의 방법과 같은 것이 아님을 깨닫는 것이다. 블레이즈 파스칼(Blaise Pascal)은 "인간이 불행한 유일한 이유는 방 안에 가만히 앉아 있는 법을 모르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친밀감을 주는 것은 열정이 아니라 믿음이다.

분주함의 숲에서 길을 잃다

언젠가 나는 숲 속에서 혼자 길을 잃은 적이 있었다. 그날 밤 늦게, 친구와 나는 낚시를 하러 가고 있었다. 우리는 길가에 차를 세워 놓고 배가 있는 물가로 숲을 지나 내려가고 있었다. 우리의 계획은 배까지 필요한 물품을 나른 후에, 친구는 배를 타고 호수를 건너 반대편에 있는 다리까지 가고, 나는 차를 가지고 가서 나중에 합류하는 것이었다.

나는 친구가 타고 있는 배를 밀어 준 후에, 차가 있는 길가로 돌아가려고 숲에 들어섰다. 그러나 나는 어느 길이 우리가 걸어왔던 길인지 헷갈리기 시작했다. 주위는 온통 새까맣고 어두워 그 길이 그 길 같아 보였다. 10분이면 갈 거리를 30분이 넘게 헤맨 후에야 나는 길을 잃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처음에는 조금 걱정이 되었다. 하지만 나는 곧 도로를 찾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스스로에게 되뇌었다. 한 시간쯤 후에, 나는 수풀이 우거진 길을 헤치며 내가 산책로에서도 벗어나 있음을 깨닫게 되었다. 사방에서 알지도 못하는 소리들이 들려왔다. 나는 더 이상 어느 방향으로 나가야 할지 몰랐다. 나는 본능적으로 더 빨리 걷기 시작했다 ……그리고 더 빨리…… 더 빨리. 조금 후에, 나는 속력을 내는 것이 나를 피곤하게 만들 뿐 길을 찾는 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함을 알게 되었다.

나는 쉬려고 잠시 앉았다. 그리고 차분히 이 상황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겠다고 생각했다. 앉은 자리에서 나는 하늘을 올려다봤다. 그리고 그 위에서 나는 해답을 찾았다. 전깃줄이었다. 나는 이 전깃줄이 어디론가 향하고 있으며, 그 선을 따라가다 보면 분명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결론지었다.

나는 그대로 행했고, 내 계획은 맞아 떨어졌다. 오랫동안 걸은 후에, 나는 도로 위로 올라올 수 있었고, 그 도로를 따라 차가 있는 곳까지 오게 되었다. 그 경험으로 인해 나는 다시는 혼자서 밤늦게 숲에 들어가지 않게 되었다.

숲을 헤매었던 내 경험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비유될 수 있다.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할지 확실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더 빨리 걸으려고 한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 채 탈진되고 있을 뿐이다. 우리의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 우리는 노력과 활동을 더 늘리려 한다. 그 결과 우리는 육체적, 정서적 그리고 영적으로 탈진될 뿐이다. 우리는 켈리가 말한 "유아적인 발전"과 "하나님의 왕국에서 종교적으로 바쁜 곤란한 상황"에 빠져 있는 듯하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달리는 것을 멈추고, 앉아서 쉬는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간단한 일을 할 때, 하나님은 처음부터 그 곳에 계속 있었던 전깃줄을 보여 주실 것이다. 그렇게 될 때에만 우리는 숲을 벗어나 그리스도 안에서의 안

식이라는 도로 위에 올라설 수 있는 것이다.

뒤바뀐 선물

우리 주변에서 많이 볼 수 있는, 마치 강박관념에 사로잡혀 있는 듯한 이러한 분주함은 현대 교회라는 옥토 위에서 더욱 잘 자라나게 되었다. 미국에서 가장 빨리 성장하는 교회들 중에 대부분은 녹슬어 없어지기보다는 하나님을 위해서 불타 없어지는 것이 더 좋은 것이라는 기초 위에 성장하고 있다. 이러한 철학은 어떠한 방법이든 우리가 없어진다는 사실을 망각하고 있다. 때때로 우리는 그리스도인다운 삶에 너무나도 바빠서 우리의 분주함 속에 계시는 예수님을 잊어버린다. 하나님은 그분의 사랑을 부어 주시는 도구인 영적인 선물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분의 은혜를 맛보기를 원하신다. 그 선물 자체가 친밀성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지만, 그 친밀성을 즐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준다. 예를 들어서, 다음의 세 가지, 성경과 기도 그리고 교회에 대해 생각해 보자. 이 세 가지는 마치 식탁 위에 밝혀진 촛불이 낭만적인 저녁식사를 만들듯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기 위해 준비된 도구들이다. 이 세 가지는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다. 예수님과 함께 사랑의 노래를 주고받을 수 있는 통로가 되는 것이다.

성경은 안내 지침서가 아니다. 성경은 우리 각자에게 개인적으로 쓰여지고, 성령을 통해서 볼 수 있는 사랑의 편지다. 기도는 두 사람이 서로 사랑을 속삭이는 초자연적이고 신비한 행위이다. 교회 생활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무 대가 없이 주시는, 놀랍고도 풍성한 삶을 즐기는, 왕실의 파티와도 같은 것이다.

율법주의적인 종교는 이러한 것들을 모두 부정하고 주님이 주신 선물들을 하나의 의무감으로 바꿔 버린다. 율법주의는 하나님과의 친밀성이 주는 즐거움을 빼앗아 버리고, 뻔뻔스럽게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선물들을 종교적인 의무로 변하게 만든다. 그것은 마치 당신의 이웃이 당신의 자녀에게 강아지 한 마리를 선물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와 같은 느낌을 준다. 당신의 이웃을 그것을 선물이라고 부르겠지만, 그 강아지의 뒤치다꺼리를 해야 하는 사람은 바로 당신이다. 율법주의는 영적인 훈련을 선물이라고 이름 짓겠지만, 그것은 훈련일 뿐 그 이상의 것이 될 수 없다. 그것을 감내해야 하는 사람은 바로 당신이며, 의무감만큼 성령의 감동을 방해하는 것은 없다.

내가 언급했던 이 세 가지의 선물을 잘 음미해 보고, 행위에 바탕을 둔 율법주의가 그것들에 대해 어떻게 설명하는지 알아보자.

성경공부

성경이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계시임을 인정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말씀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위해 시간을 할애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비합리적인 것인가? 신실한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묵상하는 것은 반드시 해야 할 일로 생각할 것이다. 당신은 매일 성경을 읽으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는가? 당신은 오늘 하루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서둘러 한 단락을 읽어 버리는 사람들에 속하는가, 아니면 계속적인 성경공부에 헌신하는 자들 편에 속해 있는가? 당신이 영적인 성장을 원한다면 성경을 반드시 공부해야 한다(이 순간 성경을 읽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가?).

기도

우리가 적어도 성실한 기도 생활이라도 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 반대할 성도는 그리 많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얼마나 자주 기도해야 하는가? 성경에서는 우리가 반드시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한다고 말씀하신다. 최소 하루 한 시간의 기도가 계속적인 기도가 될 수 있을까? 당신의 가족과 친구들의 필요에 대해 생각해 보라. 아니, 세계의 필요에 대해 생각해 본다면? 당신은 하루에 얼마나 기도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우리의 상황 속에서 일하시기 위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기도라는 값을 지불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가? (아직도 감동을 받지 않았는가?)

교회 생활

많은 사람이 교회를 떠났지만,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성실하게 교회에 나가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사실에 동의할 것이다. 어떤 남자가 대부분의 시간은 아내와 보내지만, 때때로 야심한 밤을 다른 사람과 보낸다면, 그를 성실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 당신은 교회 활동에 성실히 임하고 있는가? 우리가 성도들과 함께 모여야 한다는 것은 상식이 되어 버렸다. 이미 성경에서도 모이기를 힘써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다. 교회에 출석하는 것은 선택사항이 아니다.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다(이제 교회에 나갈 준비가 되어 있는가?).

율법주의는 우리가 성경을 반드시 읽어야 한다고 말한다. 우리는 반드시 기도해야 한다. 우리는 반드시 교회에 나가야 한다. 위의 세 단락이 당신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인정하기 부끄럽지만, 위의 단락들은 써 나가기가 너무나도 쉬웠다. 내가 이미 수년 동안 설교했던 내용이기 때문이다) 당신은 위의 세 단락에 의해 감동을 받았는가? 격려 되었는가? 더 잘해야겠다고 용기를 얻고 기운이 솟는가?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믿는다. 그랬다면 율법주의가 당신의 감정을 상하게 하지는 않는 것이다 – 이 사실로 당신을 일깨움을 받을 필요가 있다. 내가 이 세 가지 영역을 율법주의가 설명하는 방법대로 생각해 보자고 했음을 기억하기 바란다.

나는 행위에 바탕을 둔 율법주의적인 시각이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묘사하기 위해 위의 세 단락에서 반드시라는 말을 의도적으로 10번 사용했다. 율법주의는 우리가 탈진되고, 정죄되고, 심판된다는 느낌을 갖게 한다(고후 3:6~9).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을 뒤집어서 그것들이 우리가 그분께 드리는 선물이라고 말한다.

우리는 율법주의의 노예가 되어서 그분을 위해서 성경을 읽어 드린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할 것이라고 생각하므로 기도한다.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에 나간다.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행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어떤 좋은 것을 드리는 것으로 생각한다. 실상은 이 모든 것이 어리석은 일이다. 이러한 생각은 기독교를 미신행위로 전락시키는 것이며, 진리와는 정반대의 것이다.

영적으로 충만한 삶의 방편들은 은혜 안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에게는 자연스럽게 우러나오는 삶의 방식이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은 율법주의의 덫에 걸린 사람들에게 목에 걸린 맷돌과도 같다. 내가 성경공부와 기도 그리고 교회 생활을 예로 든 이유는 그것들이 율법주의의 주된 목표가 되기 때문이다. 율법주의는 우리에게 진정한 즐거움을 가져다주기 위해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종교적인 행위로 뒤바꿔 놓았다.

성경을 읽거나 기도를 하거나, 교회에 나간다거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행하는 어떠한 것도 그분에게 좋은 것이 될 수 없다. 물론 이러한 것들은 진정한 믿음을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들이지만, 죽은 율법이라는 고여 있는 물속에 빠져 버릴 때에는 생명력을 잃어버리게 된다. 그것들은 더 이상 신자들에게도 하나님에게도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된다.

율법주의에 의해서 성경공부는 더 이상 기쁜 일이 아닌, 해야 하는 일이 되어 버린다. 기도는 더 이상 낭만적인 대화가 아니게 된다. 그것은 마치 어린 아이가 잘못을 저지른 후에 방에 보내어져서 자기의 행동을 반성해야 하는 조용한 시간이 되어 버린다. 교회 생활은 지루한 책임이 되거나 한낱 사회적인 모임이 되고 만다.

종교적인 열정으로 임하게 된 모든 것은 계속적으로 되뇌이게 될 하룻밤의 경험에 불과하다. 하룻밤의 경험에도 미약하게나마 감사가 있을 수 있지만, 아무도 이러한 즐거움을 근본적인 친밀성과 혼돈하지는 않는다. 하나님은 그러한 경험보다 더 많은 것을 당신에게 주신다. 하나님은 그분과 그분이 주시는 선물들을 당신이 은혜의 파도 안에서 누리기를 원하신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종류의 친밀감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의 종교적인 전진을 멈추고, 마음을 가라앉히고 장미의 향기를 맡는 여유가 필요하다. 하나님은 당신이 100m를 15초에 돌파하는 것을 원하시지 않는다. 그분은 단지 당신이 그분 안에서 즐거워하기를 바라시며, 그럴 때에야 당신의 삶의 모든 행위들이 자연스럽게 흘러 나올 수 있음을 알고 계신다.

예수님은 우리를 종교적인 스타로 만들기 위해서 오지 않으셨다. 그와는

반대로, 그분은 정통파가 오랫동안 인정해 온 꽉 짜여져 있지만 공허한 종교생활에서 우리를 구하시기 위해 오셨다. 예수님은 그분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게 하기 위해 오셨다. 예수님 당시에 그분으로 인해 가장 공격을 받았던 대상은, 지금 우리의 시대에서도 마찬가지이지만, 다른 사람들보다 더 반짝이는 황금 우상을 간직한 것으로 유명했던 종교 지도자들이었다.

그들의 우상은 그들이 그리스도인다운 삶이라고 이름 지은 길 위를 빠른 속도로 질주하기 위해 그들이 만들어 놓은 규칙들이었다. 그들의 진열장은 자신들의 개성과 기질에 맞는 특별한 우상들로 가득 차 있었고, 그들은 자신들의 개인적인 기준에 맞춰서 살지 못하는 사람들을 정죄했다. 사람들 자체는 부수적인 존재들이었다. 대신에 종교 지도자들에게 중요했던 것은 사람들의 '행위' 였다.

예수님도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 세워 놓은 기준에 맞는 교인이 아니었다. 예수님은 그들이 생각하는 대로 살지 않으셨다. 그들의 견해에 따르면, 예수님은 어떠한 죄의 자각도 없으셨다. 예수님은 그들의 가치들이 갖는 순수함과 고결함을 헤치는 듯 보였다. 그분은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셨고, 그 당시의 착취자들(세리들)과 먹기를 탐하는 자들(죄인들)과 함께 자리를 하셨다. 그분은 집 없는 자들과 창기들의 친구셨다. 그분은 오늘날의 좋은 교인이라면 함께 있지 않을 천한 신분의 사람들을 멀리하지 않으셨다. 그 당시에 가장 중요하게 여겨졌던 바리새인들의 인정을 얻지 못하셨지만, 그것에 상관하지 않으셨다. 예수님은 명성보다는 관계를 더 중요하게 여기셨다. 그리고 지금도 그러하시다.

참된 그리스도인다운 삶은 강가를 따라 부드럽게 흘러가는 강물처럼 그 근처에 모인 사람들을 회생시킨다. 그러한 삶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화려한 행위의 홍수가 아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러한 행위로 이끌지 않으신다. 오히려 그분은 우리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으로 인도하시며 …… 영혼을 소생시키신다"(시 23).

하나님은 당신을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반드시 해야 하는 의무에서 당신을 벗어나게 하시고 당신을 신뢰로 이끄시기를 원하신다. 당신이 아무리 멋진 행동을 한다고 할지라도 내세울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발바닥에 불이 날 정도로 달리고 있을 때는 작고 세밀하신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다. 하나님은 당신이 멈춰 서서 쉬기를 원하신다. 성경공부와 기도 그리고 교회 생활은 우리가 그분께 해 드리는 것이 아닌,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임을 기억하길 바란다.

하나님은 내가 샤워를 하는 동안에 여러 차례 내게 말씀하셨다. 나는 그 사실에 의아해했다. 그래서 어느 날 그 사실을 아내 멜라니에게 말했다. 멜라니는 아마도 그때가 내가 조용하고 잠잠히 있는 유일한 시간이기 때문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 이후로 나는 하나님께서 나와 대화하기 위해 일부러 샤워를 하시도록 하지 않기로 결심했다. 내가 우선순위들을 재조정하고, 그것대로 스케줄을 짜기 시작하자 나의 삶은 여러 면에서 변화되기 시작했다. 나는 종교적인 분주함이라는 미성숙한 단계를 벗어나 나를 계속적으로 양육하고 계셨던 아버지의 사랑을 더욱 깊이 빨아들이기 원한다.

당신은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자 갈망하는가? 그렇다면 종교적인 쳇바퀴

를 벗어나서 곧장 그분께로 가는 길로 들어서길 바란다. 내가 발견한 것은, 비록 우리가 영적으로 지진아가 되었든, 영적 집중력 결핍 장애가 있든, 우리에게는 어떠한 질병도 고칠 수 있는 위대한 의사가 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저 그분을 신뢰하는 것이다. 그러면 그분이 나머지를 알아서 행하신다.

사랑하는 아버지,

너무나도 많은 것들이 주님이 아닌 것에 집중하게 합니다. 부차적인 것들로 인해 주님과의 친밀감이 죽지 않도록 저의 우선순위를 잘 조정할 수 있게 해 주소서. 제가 종교적이 아니라, 의롭게 살 수 있게 하여 주소서. 제가 하는 모든 것들이 오직 주님을 향한 사랑에서 비롯되게 하옵소서.

>>> 초대의 응답 <<<

다음의 질문들을 숙고함으로써, 이 책 속에 담긴 진리들이 당신의 삶에 계속적으로 영향을 주게 될 것이다.

1. 이 장에서는 '영적인 지진아' 라든가 '영적 집중력 결핍 장애' 등과 같은 영적인 장애에 대해서 가볍게 다루었다. 현대 교회에서 발견할 수 있는 또 다른 영적 장애는 무엇인가? 당신이 경험했던 것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

2. 현대 교회에서 그리스도와의 친밀성을 위협하는 방해물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가? 그리스도인 사역이 이러한 사람들의 장애물을 없애고 진정한 친밀감으로 그들을 이끌기 위해 어떠한 일들을 할 수 있겠는가?

3. "숨차게 하는 열정" 이라는 슬로건이 여러 교회에서 제창되고 있다. 당신이 현재 출석하고 있는 교회의 사역에 영향을 미치는 또 다른 슬로건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가?

4. 요한복음 17장 4절을 읽어 보라. 당신이 이 세상에서의 삶을 마칠 때 이러한 말을 할 수 있기 위해 해야 하는 것들이 무엇일까?

5. 이 장에서는 성경공부, 기도 그리고 교회 생활에 대해 행위에 바탕을 둔 율법주의가 어떠한 주장을 하는지를 이야기했다. 은혜에 기반을 둔 시각으로 볼 때, 이 세 가지를 어떻게 봐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6. 한 단락은 다음의 문장으로 시작한다. "예수님도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 세워 놓은 기준에 맞는 교인이 아니었다." 예수님이 아무도 알아보지 못하도록 분장을 하고 오늘날의 교회에 오신다면 어떻게 비쳐질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예수님이 당신의 교회 교인이셨다면 당신의 교회는 그분의 어떠한 면을 좋아할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그분에 대해서 받아들이기 힘든 부분은 무엇인가?

여덟번째 이야기

태워진 물

태워진 불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실 때는 각 사람 위에 불의 혀같이 임하셨다(행 2:1~3). 불 – 그 단어 자체에는 견딜 수 없는 강도와 꺼뜨릴 수 없는 강렬함이 내포되어 있다. 히브리서의 기자는 "하나님은 소멸하시는 불"(히 12:29)이라고 말한다.

모세가 하나님을 대면하여 산에 있을 때, 백성들은 산 위에서 맹렬하게 타오르는 불만을 볼 수 있었다(출 24:17). 훗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할 때, 그는 "네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요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니라"(신 4:24)라고 말했다.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소망은 당신이 그분으로 인해 소멸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은 마치 지옥의 불과도 같이 타오르며 당신의 모든 존재를 정복할 때까지 꺼지지 않으려 한다. 그분은 질투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당신 인생의

모든 것이 부수적인 일이 될 때까지, 사랑의 불길이 당신을 삼키기까지 쉬지 않고 타오를 것이다.

성적으로 흥분한 사람을 '뜨겁다' 라고 표현하는 것에는 이유가 있다. 동물들도 짝짓고 싶은 욕망이 최고조에 달했을 때에는 달아올랐다고 말한다. 이 단어는 숨기지도 못하고, 꺼뜨리기에는 많은 노력이 필요한 큰 열정에 휩싸여 있음을 내포한다.

불경해 보일 수도 있다는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나는 하나님은 당신을 향해 '뜨겁게 달아오르셨다' 고 지적하고 싶다. 이러한 적용에 마음 상하지 말길 바란다. 이것은 성(性)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성의 본질, 즉 연합에 관한 이야기다. 하나님은 당신과 그분이 나누는 연합의 온전한 즐거움과 완전한 만족감을 당신이 이해하기를 바라신다(고전 6:16~17). 그분의 목적은 당신을 향한 그분의 타오르는 열정 안에서 그분과 당신이 하나 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소멸하시는 불을 경험한 이후에 토마스 켈리는 반복해서 다음과 같이 말했었다. "정말 놀랍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말 그대로 녹아내렸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던 순간들을 표현하는 다른 많은 사람들도 그 때의 경험을 불과 관계 있는 단어들을 사용했었다. 때로는 비유적으로, 더 많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의 표현으로 말이다.

지에나의 캐서린(Catherine of Siena)은 이렇게 말했다. "오, 모든 불을 능가하는 불이여, 당신 홀로 소멸되지 아니하고 타오르는 불이십니다! ……그러나 당신의 불길은 영혼을 힘겹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만족할 줄 모르는 사랑으로 살찌웁니다." 프랑스의 신비주의자 마담 귀용(Guyon)은 다음과 같이 썼다. "나는 지난밤에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당신의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오 나의 주님, 향기로운 기름처럼 내 위에 흘러 불처럼 타오른 당신의 사랑……" 1654년 그리스도와의 대화를 경험했던 블레이즈 파스칼은 다음과 같이 썼다. "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확신, 확신, 감정, 기쁨, 평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변화된 십자가의 성 요한(St. John of the Cross)은 『살아 있는 사랑의 불길』(Living Flame of Love)이라는 책을 썼다.

하나님의 사랑의 모든 면을 알기

내가 하고 싶은 말은 당신도 다른 사람들이 경험했던 것들을 똑같이 경험해야 한다는 것이 아니다. 신부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전 우주적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우리 모두에게 지극히 개인적이고 독특하게 경험된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불타는 사랑이 넓은 의미에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이 되지만, 당신만을 위한 특별한 것이기도 하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을 이성적으로 이해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하나님의 사랑을 지성에만 한정시키는 것은 그분을 기뻐하는 것에 한계를 갖게 한다. 불타오르는 하나님의 사랑은 당신의 생각, 감정 그리고 의지에까지 파고들기를 원한다. 그리고 당신의 영혼을 온전히 뒤덮은 후에, 당신의 인생에서, 당신의 행동을 통해 당신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마치 숲 속의 한 나무에서 다른 나무로 불이 옮겨 붙듯이 옮겨지기를 원한다.

하나님은 당신이 그분의 사랑을 알고, 또한 느끼기를 원하신다. 많은 경우

하나님을 경험하는 데 감정을 배제하고 이성만을 강조하거나, 그 반대로 감정만을 강조하려는 경향을 볼 수 있다. 한 쪽은 다른 쪽을 주정주의(主情主義)로 치부하고, 다른 한 쪽은 상대가 성령을 두려워하거나 성령에 대해서 무지하다고 반박한다. 한 쪽은 자신들이 성경에 따른다고 주장할 것이고, 다른 쪽은 자신들이 성령의 이끄심을 따른다고 말하겠지만, 어느 극단도 하나님의 입장을 따르고 있지 않는 것이다.

하나님은 그분의 사랑이 우리의 전 존재를 덮으시기를 원하신다. 균형 있는 삶은 그분의 사랑을 이성적으로 이해하고, 그분의 사랑을 감정적으로 깊이 경험하고, 그분의 사랑에 따라 의지적으로 살아가는 삶이다. 이러한 삶의 균형이 있을 때, 성경은 우리를 객관적으로 인도하시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주관적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

그분이 주시는 사랑의 중심에 있을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했던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게 된다. 하나님은 당신이 인생을 즐기기를 원하신다. 그분은 당신이 풍성한 삶을 온전히 누리기를 원하신다! 이것이야말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정말로 원하는 것이 아닌가?

제프 임배크는 다음과 같이 이것을 표현했다.

> 우리에게는 하나님과 그분의 생명을 깊이 빨아들이고자 하는 타고난 갈망이 있다. 우리는 생을 마쳤을 때, 우리가 진정한 삶을 살았다고 말하고 싶어 한다. 이러한 갈망이 인간의 영적인 삶의 중심에 있을 때 인생은 완성되는 것이다. 삶은 좋은 것이다!
>
> 그러나 우리에게는 또 다른 한 면이 있다. 우리는 이렇게 사는 것을 갈망하면서도 동시에 공포를 느낀다. 인생과 함께 춤을 출 수 있는 기회 앞에서 우리는 우리에게 금지되어 있는 것들과 우리의 두려움, 무관심이라는 그림자 속으로 우리 자신을 슬그머니 숨겨 버린다. 우리는 발을 구를 수 있겠지만, 우리의 엉덩이가 의자에 단단히 붙어 있다. 우리는 일어나서 춤을 추도록 설득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는다.

일어나서 춤을 추라

나는 인생과 함께 춤을 추고자 하는 갈망을 오랫동안 느껴왔다. 현대 기독교계(界)에 대한 서글픈 언급인지, 내 삶의 부족한 면이 있어서인지는 모르겠지만, 올바른 삶에 대한 이러한 갈망을 내 입맛에 맞게 표현한 것은 교회 밖에서 찾아낼 수 있었다. 아니, 신앙 밖에서 찾았다고 하는 것이 더 맞을 것이다.

헨리 데이비드 소로우(Henry David Thoreau)의 책 『월든』(Walden)을 읽던 중, 나는 그가 기독교인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인생을 보다 깊고 온전하게 살고자 호소하는 내면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생의 정수(精髓)를 빨아들이고자" 하는 그의 갈망은 삶에 대한 나의 열정을 표현하는 것이었다. 우리는 소로우가 자연에서 찾고자 했던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찾을 수 있음을 알고 있었다.

모든 억압을 다 태워 없앨 정도로 하나님의 불이 당신의 삶을 태우는 것을 상상해 보라. 매일매일의 걸음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행진해 나가는 삶을 상상해 보라. 이러한 삶은 상상 속에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실제적으로 존재하는 삶이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가져오는 눈부신 영광 안에 살 때 이러한 인생을 경험하게 된다.

토니 캄폴로는 말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죽음에 안전하게 도달할 수 있도록 발끝으로 살금살금 걷듯이 살아간다. 그러나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만 한다. 죽기 전에 깨어날 수만 있다면 삶은 당신에게서 달아날 수 있다. 단지 맥박이 뛰고 있다는 것에만 만족하지 말라." 우리가 취하려고만 한다면 우리에게는 풍성한 삶이 주어진다. 이러한 삶은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열정으로 살아가는 헌신된 사람들에게 주어진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불타오를 때, 당신은 시편 기자와 같은 노래를 부를 수 있을 것이다. "이 하나님은 영영히 우리의 하나님이시니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라"(시 48:14). 수적으로 우세한 블레셋 군대에 둘러싸여 있었던 다윗과 같은 확신으로 우리는 다음과 같이 말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심인 줄 아나이다"(시 56:9).

이러한 불로 살아갈 수 있는 열쇠는 무엇일까? 현대 교회의 범상함을 넘어서는 삶을 살 수 있게 하는 힘이 과연 무엇일까? 우리가 나면서부터 갖고 있는 권리, 즉 하나님이 주시는 초자연적인 삶을 경험할 수 있는 권리를 되찾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우리는 어떻게 지금의 혼돈스럽고 일시적인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영원하신 분께 깊이 뿌리박고 있음을 알 수 있을까?

그에 대한 답은, 물론, 그리스도다. 해답은 언제나 그리스도다. 우리가 그분 안에서 어떠한 존재이며, 그분이 우리 안에 어떠한 존재인지를 아는 것은 인생의 모든 것을 세우는 초석이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들의 정체성에 대한 책을 이미 여러 권 썼다. 그러므로 우리의 정체성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들을 이곳에서 더 이상 언급하지는 않겠다. 그러나 분명히 말해야 할 것은, 이 장(章)과 다음 장(章)에서 다루게 될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정체성이라는 기초 위에 있을 때 더 좋은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이다.

풍성한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 연합되었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자주 던져지는 질문은 "어떻게 우리가 계속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살고, 그분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도록 할 수 있나요?"이다.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흔히 그리스도 안에 머물기 위한 구체적인 단계들을 나열하는 것으로 끝나 버리게 되기 때문에 편파적인 질문이 아닐 수 없다. 올바른 그리스도인다운 삶의 중심이자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를 잊게 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라는 질문에 접근할 때는 주의가 필요하다. '어떻게'라는 방법론은 은혜로 사는 삶에서도 던져질 수 있는 질문이기는 하지만, 조심스럽게 다루어야 할 것이다.

믿음의 삶에 대한 단계들을 나열할 때, 우리는 율법주의로 흘러갈 수 있는 소지가 다분하다. 사도 바울이 성경에서 매일매일의 삶에 대해 어떻게 살아야 함을 말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도 그리스도 안에서의 정체성에 대한 언급을 먼저 했었다. 예를 들어서,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그의 편지에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 계속 말한다. 하지만, 그가 쓴 가장 첫 말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도 이미 알고 있는 그들의 정체성에 대한 언급이었다(고전 1:2~9). 이러한 기초 위에서만 일상생활에 대한 구체적인 적용이 있었던 것이다.

사람들은 율법주의적인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기 위해 만들어진 단계들도 각자의 가치에 따라 제멋대로 해석해 버린다. 그들의 잣대가 율법주의의 그것이라면, 올바른 이해에 대한 방해가 크기 마련이다. 우리는 "하기를 원하는 것"보다 "해야 하는 것"에 더 빠져 있을 때 은혜로부터 멀어지게 됨을 알고 있다. 율법은 사람들을 복종시키려고 호통치지만, 사람들은 그 율법에 따를 수 있는 힘은 제공하지 못한다. 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삶을 살 수 있

도록 우리에게 언제나 힘과 용기를 준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은 특정한 단계들을 성공적으로 따른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이시며, 그분이 우리를 통해 스스로를 나타내실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기로 선택하고, 지금 그분이 이러한 일을 우리 속에 이루고 계시는 것처럼 행동하는 믿음의 행위이다. 풍성한 삶은 계획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인격 안에서 발견되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하다.

고독과 묵상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위의 사실들을 언급하고 나니, 이제 은혜 안에 걸으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을 종종 경험하게 했던 요소를 설명하겠다. 그분과 내가 연합되어 있음을 놀라운 방법으로 인식할 수 있는 것은 은혜 안에서 행동할 때이다. 그 요소란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고독과 묵상이다. 이번 장에서는 고독에 대해서 다룰 것이며, 묵상의 훈련은 다음 장에서 살펴보도록 하겠다. 나는 고독과 묵상이 하나님과 더욱 친밀하고자 추구했던 나를 놀랍도록 강하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임을 알게 되었다.

하나님과의 연합하기 위해서 고독이 성경적이고 역사적인 도구로 전해져 왔음에도 불구하고, 현대 문화에서는 가장 기피하는 것이 되어 버렸다. 현대 사회는 말의 홍수 속에 출렁이고 있다. 우리가 현재 누리고 있는 복잡한 삶의 방식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소란스러운 방의 저편에서 어떤 사람이 말하는 것을 들으려고 하는 것과도 같은 것이다.

헨리 나우웬(Henri Nouwen)은 우리가 살아가는 '말 많은 세상'에 대해 다음과 같이 묘사한다.

>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말에 둘러싸여 있다. 부드럽게 속삭이는 말, 크게 소리치는 말, 화가 나서 내뱉는 말들, 말로 전해지는 말, 암송하거나 노래로 불려지는 말, 녹음되어 있는 말, 책이나 벽 혹은 하늘에 쓰여 있는 말, 다양한 소리의 말, 수많은 색이나 형태의 말들, 들려지는 말, 읽혀지는 말, 명확하게 보이거나, 스쳐 지나가는 말, 깜빡거리는 말, 천천히 움직이는 말, 춤추는 말, 팔짝 뛰어 오르는 말, 흔들거리는 말. 말! 말! 말! 말은 우리의 존재의 바닥과 벽 그리고 천장 모두를 형성한다.

하나님과의 조용한 친밀감을 즐기기 위해서는 인위적으로 우리의 혼잡하고 말 많은 세상에서 떨어져 나올 필요가 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조용한 장소를 찾아 홀로 나가셨던 장면들을 여러 번 증언한다(마 1:35, 눅 4:2). 예수님께서 그때 당시에도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 세상에서 떨어져 나와야 할 필요성을 느끼셨다면, 오늘날의 우리는 두말할 필요도 없는 것이 아니겠는가?

마가복음의 한 사건은 우리에게 홀로 있는 시간의 중요성을 일깨워 준다. 제자들은 그들이 복음을 선포했을 때, 귀신이 나가고, 병자가 치유되는 등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던 전도여행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돌아왔다. 의심할 여지 없이 아주 흥분한 말투로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의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막 6:30) 고했을 것이다.

그러한 순간에 예수님은 어떤 반응을 보이셨을 거라고 생각하는가? 내가 지난 몇 년 동안 했던 강의를 들으셨다면, 아마도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을 것이다. "잘했다! 여기서 멈추지 말라! 사역에 불이 이제 붙기 시작하니까 계속 불타오르게 하자! 다들 나가서 하나님의 왕국에 대해서 선포해야지!"

나는 오랫동안 이렇게 지도했었다. 나는 사탄에게는 쉬는 시간이 없으니 우리에게도 쉬는 시간이 없어야 한다는 논리를 갖고 있었다. 그러나 예수님의 반응은 내가 했던 반응과는 전혀 다르다.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와서 잠간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막 6:31~32).

모든 것이 잘되어 가고 있다고 제자들이 보고할 때 예수님은 "좋아! 이제 다들 잠시 쉬도록 해!"라고 말씀하셨다. 이러한 조언들은 내 개성과도 안 맞을뿐더러 내가 그리스도인다운 삶이라고 배워 온 것과도 일치하지 않는 것이다. 지금도 이것은 나에게 그리 쉽게 다가오지 않는다. 밤에 잠자리에 들지 않는 한, 내가 휴식을 취하고 있을 때에는, 시간 낭비를 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든다. 잠자리에 들어서도 나의 머릿속은 팬티엄급 컴퓨터처럼 계속 돌아가고 있을 때가 많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쉬라고 말씀하셨다. 그 말이 당신의 내면 어디에선가 울리고 있지는 않은가?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바쁘게 활동하는 것이 홀로 시간을 가지면서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보다는 더 쉬울 것이다. 고독은 우리들이 지금 배우고, 살아가면서 계속 배워 나가야 할 과제이다. 그것은 내가 지금 배우기 시작하는 과제이기도 하다.

성령님께서 나에게, 홀로 고독하게 있을 시간을 내기 위해 나의 스케줄을 재조정해야 할 필요가 있음을 분명하게 말씀하신 이후에, 나는 멕시코에 있는 우리 사역의 사무실에 가야 할 일이 있었다. 이 책의 마감일이 임박했을 때도 바로 그때였다. 나는 방해받지 않고, 다른 일에 신경을 쓰지 않으면서 원고에만 집중하기 위해 구아다라야라(Guadalajara)에서 한 시간 거리의 카팔라 호수(Lake Chapala)에 있는 작은 도시 아이익(Ajijic)에서 일주일간 더 머물기로 결정했다. 나는 가까운 친구들에게 이메일을 보내서 내가 그 곳에 있는 동안 글을 잘 쓸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시기를 기도해 달라고 부탁했다.

하나님은 참으로 유머 감각이 풍부하신 분이시다. 처음 며칠 동안은 하나님께서 내 일에 축복하셔서 글이 술술 잘 써졌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나는 여느 때처럼 일찍 일어나서 노트북을 켰다. 그리고 점심시간이 되기까지 나는 까만 화면만을 바라보고 있었다. 나는 머릿속이 텅 빈 것만 같았다. "어, 주님…… 무슨 일이죠?" 내가 물었다. "주님도 아시다시피, 마감일이 곧 다가오는데요. 제가 글을 쓸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실 때가 바로 지금인 것 같은데요."

남부 조지아의 작은 오두막집에서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나의 마감일을 상관하지 않으시기로 하신 것 같았다. 또다시 나는 글을 쓸 수 없었다.

나는 점심을 일찍 먹고, 머리를 식히기 위해 그림 같은 전경이 펼쳐져 있는 자갈길을 산책하기로 했다. 두 시간쯤 후에 나는 다시 방에 들어가 앉았다.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았다. 하나님은 지금 내가 사역하고 있다는 것을 모르시는 건가? 그분이 나에게 주신 일을 끝마치려고 내가 지금 시간을 일부러 낸 것이 아닌가? 그날 하루가 지나도록 나는 한 글자도 적을 수 없었다.

그날 밤 9시에 나는 미국에 있는 멜라니에게 전화를 걸어서 그날 하루에 대해서 말하면서 못난 아이처럼 칭얼댔다. 내가 말했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내일도 오늘 같으면 난 집에 갈거요." 나는 전화를 끊

고 앉아서 성경을 펼쳐 들었다. "주님" 성경을 열면서 내가 기도했다. "제발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제가 무엇을 하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무엇을 안 하고 있는 건가요? 오늘 일을 끝내려고 했던 것 아시잖아요. 제가 무슨 일을 하시기를 원하시나요?"

그때 일어났던 일을 설명하기가 조금 꺼려진다. 사실 하나님이 이 날 나에게 말씀하신 방법은 내가 그리 추천하고 싶은 방법이 아니다. 그것은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이라면 진저리칠 아주 유아적인 방법이다(아마도 내가 '어린애처럼 굴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러한 방법을 사용하신 것인지도 모르겠다). 내가 성경을 펼쳤을 때, 내가 이미 몇 달 동안 읽고 있었던 시편이 저절로 펼쳐졌다. 성경 위로 눈을 돌렸을 때, 시편 4편 4절이 마치 '제가 무슨 일을 하시기를 원하시나요' 라는 내 질문에 응답이라도 하듯 튀어 올라왔다.

시편에는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라고 적혀 있었다. 나는 큰소리로 웃을 수밖에 없었다. 그 곳에서 나는 홀로 시간을 내어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하는 법에 대해서 글을 쓰려고 노력하고 – 아니, 씨름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곳 이방의 나라에까지 혼자 와서 나는 지름길로 가려 하고 있었던 것이다. 하나님은 내가 세운 계획에 따르지 않으셨고, 그분이 말씀하시기 시작하셨을 때에는 단지 "이제 침대에 누워서 이것에 대해 생각해 보렴" 하고 말씀하고 계셨던 것이다.

내가 이러한 고백을 하는 이유는 당신에게 고독과 묵상이라는 것은 그 누구도 완벽하게 소화할 수 없는 것이라고 말하고 싶었기 때문이다. 우리는 모두 과정에 있다. 우리는 아마도 고독과 묵상을 평생을 통해 조금씩 배워 나가야 할 것이다.

침묵의 소리

소음은 우리의 가장 큰 적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우리의 주위 환경은 우리의 관심을 요구한다. 그리고 정작 우리가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것들에 신경 쓰지 못하게 한다. 15세기 초에 토마스 켐피스(Thomas à Kempis)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이 세상에서 묵상에 잠기는 사람을 많이 찾아볼 수 없는 이유는 창조되고 소멸되는 이 세상에서 스스로를 완전히 분리시킬 수 있는 사람이 적기 때문이다." 토마스는 그 시절이 한심하다고 느꼈을 것이다! 그러나 500여 년이 흐른 지금,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다.

고든 맥도날드(Gordon MacDonald)는 우리가 빠져 있는 딜레마를 다음과 같이 묘사했다.

>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소음의 끔찍한 음모를 잘 알고 있는 사람은 별로 없다. 이 소음은 우리가 내면의 정원을 가꾸는 데 필요한 침묵과 고독을 불가능하게 만든다. 우리는 잘 알지 못하는 사이에 하나님과의 만남을 방해하고, 음성을 듣지 못하도록 주위를 분주하고 소란스럽게 만들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잘 알고 있다. 하나님은 그분의 음성이 당신에게 들리게 하기 위해 소리치시는 분이 아니다. 엘리야가 알게 된 것처럼, 하나님은 정원에서 세밀한 음성으로 속삭이시기를 좋아하신다.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불은 꺼지지 않지만, 소음만큼 그 사랑을 인식하는 불길에 찬물을 끼얹는 것도 없을 것이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말했다. "무릇 기다리는 자에게나 구하는 영혼에게 여호와께서 선을 베푸시는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애 3:25~26). 하나님과의 친밀감과 끊임없는 소음은 서로 배타적이다. 하나님과 의도적으로 친밀감

을 갖기 위해서는 반드시 침묵과 고독의 시간이 필요하다. 하나님은 우리의 문명사회의 소란함을 이기기 위해 큰소리로 외치지 않으신다.

당신은 진심으로 하나님과의 친밀감을 깊이 경험하기를 원하는가? 당신을 보다 단순하고 조용한 곳으로 부르고 있는 내면의 소리가 들리는가? 하늘의 연인은 당신과 그분만의 은밀한 곳으로 당신을 부르고 계신다. 토마스 켈리는 이렇게 묘사한다.

> 당신은 저 멀리 보이는 것을 동경하며 하나님과 함께 안식할 수 있는 놀라운 중심에 들어서기를 원할 것이다. 당신이 동경하는 바에 충실하길 바란다. 당신을 집으로 부르는 것은 영원히 선하신 분이시며, 그분은 당신을 푸른 초장에서 먹이시고,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며, 선한 목자의 보호 아래로 당신을 초대하신다. 이러한 삶은 힘겨운 노력으로 얻어지지 않는 그보다 높은 차원의 것이다.

일반적으로 그리스도인다운 삶이라고 알려져 있는 삶의 분주함과 소란에 더 이상 만족하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 사이에는 개혁이 일고 있다. 그것을 깊은 내면의 삶이나 묵상적인 삶 등 무엇이라고 부르든지, 이러한 질 높은 삶은 하나님과의 친밀감에서 생겨나고 두 연인이 함께 보내는 조용한 시간에서 생겨난다. 소리의 공허감에 만족하지 못하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보다 깊고 풍성한 무엇인가로 그들을 부르는 부드러운 음성을 듣게 된다.

어느 날 내 친구 베리가 〈오늘의 기독교〉(Christianity Today) 잡지를 한 부 건네 주었다. 그 속에는 레이튼 포드(Leighton Ford)와 그의 "새로운 사역"에 대한 기사가 있었다. 레이튼 포드는 빌리 그래햄의 매형이며, 그와 함께 30년간을 빌리 그래햄 전도 협회에서 일했다. 그 기사에 따르면, 레이튼 포드는 "신앙 부흥 전도 집회, 열정적인 강의 그리고 하룻밤에 수천 명의 회심자를 만드는 사람"으로 알려져 있다. 그의 사역은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사역자들이 꿈꾸는 것이었다. 그러나 기사는 거기에서 멈추지 않았다. "하나님과 교의 매제 빌리 그래햄이 부르는 곳이면 어디든지 갔던 전 세계적인 사역을 마치고, 70세의 포드는 대부분의 시간을 하나님의 잔잔하고 부드러운 음성을 듣는 데 사용한다."

"하나님의 잔잔하고 부드러운 음성을 듣는 데 사용한다?" 레이튼 포드의 사역은 매우 잘 알려져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정하듯이 그는 아주 성공적인 사역자였다. 그러나 그의 열정적인 강의들, 수많은 회심자들 그리고 그가 전 세계에 끼친 영향력을 뒤로 하고 그는 조언을 주고받는 수도사의 삶을 살기로 결심했다는 말인가? 이토록 성공한 삶의 방식에서 그를 끌어낼 수 있었던 것이라면, 그가 듣는 음성은 정말로 부드럽고 달콤한 목소리가 아닐 수 없을 것이다.

포드의 결단에 대한 기사는 하나님이 내가 홀로 있는 시간과 묵상의 시간을 위해 조금 더 찬찬히 전진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더 명확하게 하였다. 나는 이미 내년의 몇 가지 계획들을 취소하면서 스케줄을 수정하고 있었다. 포드가 발견한 새로운 삶의 방식에 대한 기사는 더 많은 것을 알고 싶은 열망을 나에게 불어넣었다.

이때 토마스 켈리의 책이 나의 갈망을 더욱 부채질했다.

> 우리가 몇 가지에만 집중할 수 있을 때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단순해질 수 있는지 강

조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우리들은 모두 너무 많은 철을 불 속에 담고 있다. 수없이 많은 좋은 것들이 우리의 관심을 요구할 때, 우리는 집중하지 못하게 된다. 그리고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는 좋은 모임들과 좋은 일들의 과중한 무게에 눌려 숨이 차도록 끌려 다니게 된다. 나는 이렇게 열정에 가득 찬 교회 생활이 온전한 것이 아니라는 것에 두려움을 갖는다. 친구의 부탁을 거절할 수 없어서 우리가 하는 일은 결국 겉치레가 되고 만다. 중요한 모임에서 섬기는 것은 정작 그 모임의 요소에 대한 이성적인 계산에 의해서가 아닌, 우리 내면의 필요성에 의해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중요도에 따라 이끌어지는 삶은 내면으로부터 명령을 받고 조정되어지는 삶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면의 책임감이 이끄는 대로 '예' 라고 말하는 것만큼 '아니오' 라고도 말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불은 고요함에서 타오른다

고요함. 하나님은 공허하고 고요한 곳에 "있으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존재하게 하셨다. 메마른 광야의 고요함 속에서 한 사람이 불타는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을 만나, 그분의 백성을 자유롭게 하라는 소명을 받았다. 밤의 고요함 속에서 베들레헴의 한 아기가 세상의 구원을 선포하며 울었다. 그 아기가 또다시 아버지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울부짖었던 것도 어느 고요한 밤이었다. 이른 새벽의 고요함 속에서 어느 무덤의 돌이 굴러져 그 무덤을 영원히 빈 무덤이 되게 만들었다. 고요함 – 그것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루시는 장소이다.

하나님의 사랑의 불은 고요함 가운데서 활활 타오른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과 사랑을 나눌 때, 세상의 모든 소음이 사라져 버리는 것처럼, 우리를 방해하는 것들이 사라지는 것도 고요함 속에서다. 이 고요함 속에서 비로소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느낌, 의지를 온전히 그분께 자유함으로 드릴 수 있는 것이다.

그 고요함 속에서 우리는 묵상할 수 있다. 아니 우리는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우리가 그 불길 속에서 영원히 태워지기까지 우리를 향해 불타오르는 사랑으로 사랑의 말을 속삭이는 그분께 반응할 수 있게 된다. 이 고요함 속에서 우리는 시편 기자와 함께 소리칠 수 있는 것이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서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불이 붙으니"(시 39:3, 개역 개정판).

사랑하는 아버지,

아버지의 사랑의 음성과 사랑의 노래 소리를 소멸하려는 소음으로부터 저를 자유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와의 조용하고 친밀한 순간들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도 와서 잠깐 쉴 수 있도록 저를 가르쳐 주소서. 주님의 불이 제 마음속에서 영원히 불타오를 수 있도록 저의 책임감을 어떻게 세워 나가야 할지 가르쳐 주소서.

>>> 초대의 응답 <<<

다음의 질문들을 숙고함으로써, 이 책 속에 담긴 진리들이 당신의 삶에 계속적으로 영향을 주게 될 것이다.

1.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날 성령님이 어떻게 임하셨는지를 읽어 보라. 불에 비유될 수 있는 하나님의 성품 4가지를 말해 보라.
2. "일어나 인생과 함께 춤추라"라는 말은 당신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가? 사람들이 완전한 자유 안에서 살기를 원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생명 안에 자신을 온전히 던진 사람의 삶은 어떠하겠는가?
3. 마가복음 1장 35절과 누가복음 4장 42절을 읽어 보라. 예수님이 한적한 곳으로 가신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이 홀로 있는 시간을 가졌을 때 어떠한 이득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당신은 고독한 순간에 편안한가? 그 이유는 무엇인가?
4. 우리 문화에 있는 "소음의 음모"에 대한 고든 맥도날드의 글을 다시 읽어 보라. 당신의 삶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보내는 고요한 시간을 방해하는 주된 요소는 무엇인가? 예레미야애가 3장 25~26절을 읽어 보고, 하나님이 당신에게 어떠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지 말해 보라.
5. 하나님께서 고요한 중에 행하셨던 일 중에서 이 장(章)에서 언급하지 않았던 것 3가지를 찾아보라. 당신의 삶에서 고요한 순간에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것 중에서 가장 의미있는 경험은 어떤 것인가?
6. 다음 달의 계획 중에서 이틀을 온전히 내어서 하나님을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라.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말씀하시며, 그분의 마음을 알게 해 달라고 기도해 보라.

아홉번째 이야기
거룩한 피난처

거룩한 피난처

오늘 하루의 분노는 한낮의 태양에 그림자가 사라지듯이 사라진다. 지금 처리해야 할 긴급한 일들은 마침내 칭얼거리며 잠자리에 든 어린아이마냥 구석으로 비껴 놓는다. 평소에는 무척 중요한 우선순위의 일들이 지금은 사소한 일이 되어 버린다. 이 모든 것들은 해결되어야 할 문제들이며, 때가 되면, 곧 해결될 것이다. 대신에 당신은 시간을 초월하는 비밀 정원에 초대되었다. 이 정원 밖에서의 삶은 또다시 당신의 관심을 얻기 위해 소란스러워질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하늘의 연인 앞에서는 어떠한 것도 중요하지 않다. 그분의 영원한 아름다움 앞에서 시간은 멈춰 버린 듯하다.

이 정원은 당신이 초대된 곳이다. 성령님이 당신을 이 곳으로 이끄신 것이다. 이곳은 묵상 기도가 있는 곳이다. 이곳은 사랑하는 두 사람이 서로의 사랑을

나누는 큰 즐거움을 느끼기 위해 정해 놓은 '거룩한' 만남의 장소이다. 이곳은 당신의 친밀한 교제를 그 어느 것도, 그 누구도 방해할 수 없는 당신과 예수님의 비밀 장소로서 그 곳에서 당신은 그분과의 깊은 교제 가운데 머무를 수 있다.

우리가 이렇게 은밀한 둘만의 공간에서 그분의 용납하심에 안정을 느끼고, 그분의 사랑을 절실하게 느끼게 될 때, 비로소 우리 내면의 깊은 곳에 잠재되어 있던 것들이 기도가 되어 나온다. 어떤 이유로도 우리를 거부하지 않으실 분 앞에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비운다. 밤새 옆에 누워 속삭이는 연인들처럼 우리는 이 곳에서 우리의 가장 비밀스러운 일들을 이야기하며, 우리의 가장 아팠던 순간들을 털어놓는다. 우리는 놓칠 수 없는 꿈들을 이야기하고, 우리를 놓아주려 하지 않는 근심들을 나눈다.

그분이 우리에 대해 얼마나 관심을 가지시는지 우리는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과장된 언어로 횡설수설할 필요가 없다. 그분이 우리를 부드럽게 용납하시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삶에서 나누기 힘든 일들을 억지로 마음에 담고 있을 필요도 없다. 이 거룩한 피난처에서 우리는 드디어 집에 왔다는 깊은 안도감을 느끼게 된다. 우리는 이 곳이 사랑으로 가득한 안전한 곳임을 안다. 이 곳은 우리가 완전히 무방비 상태에서 열려 있기를 소망하는 장소이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이 거룩한 장소가 어디인가? 그것은 기도의 장소이기는 하지만, 그것 이상의 것이다. 그곳은 묵상의 장소다. 수년 동안 나는 계속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큰 도전임을 알게 되었다. 기도는 훈련이었으며, 성경이 하라고 명했기 때문에 해야 하는 것이었다. 나는 대부분의 시간은 기도하고 싶어 하지 않았기 때문에 죄책감마저 느꼈었다. 나는 기도하고 싶어 하기를 원했지만 내 기도는 긍정적인 영성을 생산하는 지적인 훈련일

뿐이었다. 내 기도는 고전적인 율법주의적 기도 –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 투자하는 – 였다. 기도란 내가 행하는 일 때문에 영적인 성장이 따르는 것, 즉 몸에 좋기 때문에 그리 즐겁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윗몸일으키기를 하는 것과 같은 것이었다.

때로 나는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기 위해 심리적으로 격양되려고 노력하기도 했다. 물론 하나님의 임재를 진짜로 느꼈던 시간들도 있었지만, 여전히 나는 설명할 수는 없는 이유로 내 기도가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었다. 내 기도에는 무엇인가를 더 갈망하게 하는 한계가 있었다.

기도를 묵상의 일부로서 이해하기 시작하자 많은 것이 변했다. 나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종교적인 조용한 시간으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그분의 사랑으로 우리를 채우실 수 있는 은밀한 데이트에 우리를 초대하셨다는 사실을 이해하게 되었다. 우리는 아가서의 젊은 신부와도 같은 심정이다.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수풀 가운데 사과나무 같구나
내가 그 그늘에 앉아서 심히 기뻐하였고
그 실과는 내 입에 달구나
그가 나를 인도하여 잔치집에 들어갔으니
그 사랑이 내 위에 기로구나" (아 2:3~4).

아마도 당신은 예수님을 보다 가까운 분으로 경험하기 시작했을 것이다. 아마도 당신은 묵상 기도를 통해서만 알 수 있는 초자연적인 친밀감의 순간들

을 나누기 위해 당신을 부르고 있는 사랑스러운 음성을 듣고 있을 것이다.

당신은 종교적인 훈련을 마치기 위해 불려진 것이 아니다.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사랑을 당신 위에 퍼부으시는 사랑의 관계로 초대되고 있는 것이다. 당신이 그분의 사랑의 품을 한 번 맛보게 되면, 더 이상의 만족을 원하지 않게 될 것이다. 그때부터 당신은 단지 당신의 질문에 해답을 얻거나 어떤 필요가 채워지기 위해서 그분을 찾아가지 않게 될 것이다. 그때부터 당신은 그분 자체를 찾아가게 될 것이다.

잘못 이해되고 있는 묵상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묵상이라는 개념은 신비한 막에 둘러싸여 있다. 어떠한 이유에서인지는 모르겠지만, 묵상이라는 단어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부정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어떤 사람이 "우리가 수용할 수 없는 것들을 무시하려는 경향이 있다"라고 말한 것은 진리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묵상이라는 주제를 수용하지 못한다. 벅 앤더슨(Buck Anderson)은 우리가 갖고 있었던 편견에 대해서 잘 설명하고 있다.

> 묵상이라는 단어는 우리에게 향으로 가득 찬 어두운 방을 생각나게 할지도 모른다. 바닥에는 헌신된 몇몇 제자들이 매우 불편해 보이는 자세로 앉아 있다. 그들은 다같이 그들의 신과 동일시되기 위해 비밀스런 기도를 드린다. "옴~ 옴~ 옴~"

이것이 바로 나의 편견이었다. 나에게 있어서 묵상이라는 것은 이상한 종교에 심취해 있는 사람들이 하는 것으로 생각되었다. 나는 충실한 장로교 교인으로 자라났고, 내 스스로의 틀을 벗어난 것은 모두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쳐다보고 있었다. 물론 때때로 묵상이라는 단어가 들려오기도 했지만, 그것은 성경을 읽는 것을 연상시켰지, 그 단어의 참된 뜻을 의미하지는 않았다. 묵상을 하는 사람으로 내가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라고는 대머리에, 두부를 먹으며 이상한 치마를 입는 사람들이었다. 그리고 그러한 것들은 전혀 나와는 상관없는 것들이었다.

앤더슨은 계속해서 설명한다.

> 어떠한 그리스도인도 방금 묘사한 장소에 들어서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유일한 참신은 하나님이시며, "사람 사이에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딤전 2:5)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우리는 그리스도 이외의 방법으로 하나님께 나가고자 하는 시도는 모두 이방의 것임을 알고 있다.

이러한 것들을 모두 알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어쩌면 아기를 목욕물과 함께 내다 버리는 어리석은 일을 저지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 우리가 위에 묘사되어 있는 묵상을 거절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그리고 어떠한 형태의 묵상도 그리스도인에게는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닌지 모르겠다.

성경적인 견해

성경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의 삶 속에서 묵상이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디인지를 가르쳐 주고 있다. 다음의 말씀들을 고찰해 보고 그것들이 묵상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하는지 알아보자.

"내가 여호와께 청하였던 한 가지 일 곧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나로 내 생전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여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그 전에서 사모(묵상 – 영어성경에서는 meditate라는 단어를 사용함)하게 하실 것이라" (시편 27:4).

구약 시대의 가시적인 성막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셨던 장소로서, 신약 시대 이후로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실 내면의 성막의 모형이었다. 우리의 내면에는 하나님이 거하시고 우리를 만나시고, 우리가 그분으로 인하여 기뻐하기를 원하시는 장소가 있다. 사도 바울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고전 3:16)라고 말함으로써 우리 내면의 성전에 대해서 설명한 바 있다. 하나님은 당신 안에 거하시면서, 당신이 바깥의 것들을 바라보면서 만족을 찾으려고 하는 것 대신에 당신의 내면에 계시는 그리스도를 바라보기를 원하신다.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밤중에 주를 묵상할 때에 하오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음이라" (시편 63:6).

"밤에 한 나의 노래를 기억하여 마음에 묵상하며 심령이 궁구하기를 …… 또 주의 모든 일을 묵상하며 주의 행사를 깊이 생각하리이다" (시편 77:6, 12).

"내가 주의 법도를 묵상하며 주의 도에 주의하며"

(시편 119:15; 119:27, 48, 78, 148).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묵상하며 주의 손의 행사를

생각하고" (시편 143:5).

시편에서 추려 낼 수 있는 묵상의 정의는 바로 이것이다. "하나님의 임재, 그분의 행하신 일, 그분의 방법, 그분의 말씀에 분열되지 않은 마음으로 온전히 집중하는 행위"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하는 데 방해가 되는 모든 것들로부터 마음과 생각을 비우는 것을 의미한다. 성경적인 묵상은 우리가 의도적으로 주님으로 온전히 뒤덮여 있을 때 이루어진다.

기도의 형식으로 이루어지는 묵상은 간단히 말하자면, 우리의 복잡한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비워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채워지는 것이다. 동양의 묵상은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하지도 끝나지도 않기 때문에 잘못된 것이다. 동양의 묵상은 단지 마음을 비우는 것을 강조한다. 완전히 비워지는 것, 그것이 그들의 목적이다. 그러나 성경적인 묵상은 반대로 우리의 마음을 비움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인식으로 가득 채워지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께 그분이 주시거나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는 것들의 목록을 들이대는 일방적인 독백이 아니다(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산타클로스와 혼동한다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묵상 기도는 때로는 말로, 때로는 말없이 하나님과 교통하는 대화이다. 이것은 세상의 모든 생각은 문 밖에 두고 하나님과 단 둘이 있는 비밀스러운 방에 들어가서 그 곳에서의 모든 일을 그분의 손에 맡기는 것이다. 우리는 단지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반응할 뿐이다.

신약에서는 비록 묵상이라는 말을 직접적으로 쓰지는 않지만 그것의 본질

을 꼬집는 본문이 있다.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님은 영적인 것의 필요에 대해서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나누신다. 불신자들이 대부분 그렇듯이 이 여인은 사람이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을 던짐으로써, 자신과 자신의 영적인 상태에 대한 대화의 초점을 바꾸려 하고 있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요 4:20~24).

예수님은 참된 예배는 장소에 한정되어 있지 않고, 본질적으로 영적인 것이라고 말씀하신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공허한 종교적인 의식이라는 겉치레를 넘어서 영적으로 진실되고 궁극적인 진리에 기반을 둔 예배를 드리는 사람을 찾으신다고 말씀하신다. 당신의 삶에서 드려지는 예배는 이러한 말들로 설명되어질 수 있겠는가?

묵상, 기도, 예배 – 이 세 가지는 분명히 구분되는 것들이지만, 하나님과의 친밀감이라는 것의 구성요소가 된다는 사실에는 동일하다. 성령의 이끄심에 의해 행해질 때, 이 세 가지는 우리가 하나님을 아무 생각 없이 만났던 때와는 다르게, 우리의 삶을 완전히 변화시키는 깊은 만남이 있을 수 있도록 우리의 삶에 역사한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예배를 어떻게 경험할 수 있겠는가? 우리의 영혼에서 우러나와서 진리에 의해 인도되는 그러한 예배를 어떻게 드릴 수 있겠는가? 주님은 직접 우리에게 그 방법을 가르쳐 주신다. 진 니콜라스 그로우(Jean-Nicholas Grou)는 다음과 같이 썼다.

> 기도는 초자연적인 행위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 안에 두시도록 부지런히 간구해야 하며, 그분의 인도하심 안에서 잠잠히 행해야 한다. 우리는 우리의 간구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응답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협력해야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지 않으신다면, 우리는 기도의 진정한 본질을 알지 못할 것이다.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기도를 통해 경험하기를 원하는가? 이 글을 읽어나가면서 당신은 하나님을 더욱 깊이 경험하기를 원하는 욕구가 솟아오르는가? 그렇다면 용기를 가지기 바란다. 그러한 갈망은 성령님이 당신 안에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다. 다른 이유로는 그러한 갈망이 생겨날 수가 없다. 그리고 그분이 그러한 열망을 당신의 내면에 불어넣고 계시다는 것은 당신이 무엇인가를 행하기 원하시기 때문이 아니다. 그 열망은 그분이 당신의 내면에 무엇인가를 행하실 것이라는 의미이다. 믿음으로 겸손히 그분께 순복하라. 그리고 다음과 같이 말하라. "네, 주님! 저도 주님의 제자들과 같은 것을 원합니다.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소서!"

토마서 켈리는 말한다.

당신의 영혼을 위한 최후의 안식처는 분명히 있다. 그 곳에서는 절대적인 평화와, 기쁨, 능력과 빛 그리고 안정감이 존재한다. 당신의 인생이 숨어들 수 있는 영원한 중심이 분명히 존재한다. 하나님 안에서의 새로운 위치가 존재한다. 당신은 그 중심에서 그분과 함께 살며, 그분 안에서 당신은 생명의 모든 것을 누릴 수 있게 된다. 당신은 그분을 통해서 빛나는 꿈을 꾸게 되고, 새로운 아픔과 고통이 조금 가미된, 말할 수 없는 기쁨과 가득한 영광을 경험하게 된다.

친밀감으로의 초대

묵상 기도의 은혜를 받기 위해 당신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우리 삶의 다른 모든 요소들처럼 기도는 하나님의 작품이다.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과의 친밀감을 창조할 수 있다고 믿는 것은 영적인 성장을 위한 율법주의적인 접근만을 불러일으킬 뿐이다. 율법주의는 절대로 우리 안에 생명력을 불어넣을 수 없으며, 오히려 항상 죽음과 정죄감을 불러일으킨다(고후 3:7, 9).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능력 있는 기도 생활을 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지만, 결국에는 모두 불성실한 자신의 모습에 대한 좌절에 빠지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을 이끄시기를 원하는 하늘의 연인이 당신을 은밀한 곳으로 초대하고 계심을 느끼고 있을지도 모르겠다. 아마도 그분의 음성이 당신에게 "내가 저를 개유하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호 2:4)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 수도 있다. 당신이 이러한 친밀감을 느끼고자 열망하고 있다면, 안심하라. 그것은 성령님에 의해 배달되어 온 예수 그리스도의 초대장이다. 그분의 초대장을 받아들이길 원하는가? 그분은 당신 귀에 속삭이고 계신다. "나와 함께 가자. 너에게 하고 싶은 말이 너무나도 많단다!"

우리 각자는 놀라운 능력과 평화, 평온한 삶, 자신감이 넘치는 완전한 삶

그리고 간소화된 다양성의 삶을 살 수 있다. 물론 이 모든 것은 한 가지 조건 하에서의 이야기다. 우리가 정말로 그렇게 살기를 원한다면 말이다. 우리 모두의 내면에는 깊이를 알 수 없는 심연, 제한이 없으신 중심, 참마음이자, 참생명이 존재하고 있어 우리를 통해 세상에 말씀하신다. 우리는 모두 이 거룩한 속삭임을 들어본 적이 있다. 때로는 그 속삭임을 따르기도 했고, 생명의 놀라운 평안과 놀랍도록 효과적인 인생이 우리 안에 세워지기도 했다. 그러나 우리들은 대부분 때때로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일 뿐이었다. 우리는 그 목소리에만 집중하기 위해서 나머지 모든 것을 포기하지 못했던 것이다.

기도의 의미를 다시 정의하기

수년 동안 내 기도생활은 지적인 수준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이었다. 그동안 나의 기도는 내 머릿속에 정리되어서 목소리를 통해서나, 마음으로만 하나님께 전해지는 단어들이었던 것이다. 말은 우리 마음의 열매다. 진 니콜라스 그로우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지적으로 보이기 위해 말이 필요하지만, 성령님께는 그것들이 필요가 없다." 사도 바울도 비슷한 말을 한 적이 있다.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롬 8:26).

예수님은 참된 예배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진다고 말씀하셨다. 우리는 하나님과 대화할 때 영으로 말하는데, 그로우는 이것을 "마음의 목소리"라고 부른다.

마음의 목소리가 무엇인지를 나에게 묻는다면, 나는 그것이 사랑이라고

말할 것이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당신은 항상 그분께 말하고 있을 것이다. 사랑이라는 씨앗은 기도를 통해서 자라난다. 당신이 그것을 이해할 수 없다면, 당신은 이제껏 기도도 사랑도 해 보지 못한 것이다. 하나님께 당신의 마음을 열어 달라고 구하고, 그분의 사랑을 조금이라도 그 속에 간직해 보라. 그렇다면 당신은 기도가 진정으로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될 것이다.

기도를 하는 것이 마음이라면, 내뱉어지는 말이나 머릿속에 떠오르는 말의 도움 없이도, 때로 그리고 지속적으로, 마음은 스스로 기도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몇몇 사람들만이 이해하는 사실이며, 어떤 이들은 영원히 이 사실을 부인하기도 한다. 그들은 반드시 명확하고 형식적인 행위가 있어야 한다고 고집한다. 그러나 그들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이며, 하나님은 아직 그들에게 마음의 기도가 어떠한 것인지를 가르쳐 주시지 않은 것이다.

말은 필요가 없을 뿐만 아니라, 때로 그리스도와의 친밀한 교제를 방해하기도 한다. 남편과 아내가 가장 친밀한 시간 속에서는 서로 아무 말도 하지 않을 때가 있다. 말이 필요없기 때문이다. 예수님과의 친밀한 시간 속에서 당신은 말이 방해가 될 때가 있음을 여러 가지 면에서 발견하게 될 것이다.

때로 우리는 말 뒤에 숨는다

때로 말이라는 것은 우리가 온전히 정직하지 못할 때 우리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사용되기도 한다. 술을 먹고 운전을 하다가 경찰에게 걸렸을 때, 사람들은 종종 끊임없이 말을 함으로써 순간을 모면하려고 한다. 그들이 말이 많아진다는 것은 분명 무엇인가 숨길 것이 있다는 의미이다.

때로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이와 비슷한 일을 하나님께 하기도 한다. 우리는 많은 말들 뒤로 우리 스스로를 숨기려고 하고 있을 수도 있다. 그러나 잘 생각해 보라. 하나님은 침묵 가운데서 숨겨져 있던 것들을 당신에게 보여 주실 수도 있으시다. 그 숨겨져 있던 것들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 위해 드러내는 것들이며, 당신의 영적인 건강을 위한 것이며, 궁극적으로는 당신의 형통을 위한 것이다.

때로 말이 우리의 기도를 제한시킨다

우리는 기도를 하기 위해서는 말이 필요하다고 생각함으로써 기도를 머리와 입술에만 한정시킨다. 말을 통하지 않고도 하나님의 영은 우리의 감정의 깊은 곳을 만지시며, 우리에게 새로운 방향을 제시해 주시고, 우리의 의지에 의한 결정을 요구하기도 한다. 우리의 머리는 우리의 깊은 필요를 모를 수가 있지만, 성령님은 알고 계신다. "사람의 마음에 있는 모략은 깊은 물 같으니라 그럴지라도 명철한 사람은 그것을 길어 내느니라"(잠 20:5). 하나님은 그분의 손길과 치유가 필요한 것들을 우리의 마음 깊숙한 곳에서부터 끌어내실 수 있는 무한의 능력을 가지고 계신다. 그분의 사랑이 우리의 묵상하는 시간을 통해서 우리를 씻기실 때 "깊은 (바다)가 깊은 (바다)를 서로 부르고"(시 42:7, 표준새번역, 영문은 deep calls to deep이므로 괄호를 사용), 우리 안에 존재한다는 것을 알지도 못했던 메마른 곳들이 기적적으로 해갈된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받아들이면서 묵상 기도를 드릴 때 이루어지는 치유의 이점은 아무리 강조해도 모자란다.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오는 좌절과 고통은 영원한 현재이신 그분 앞에서 겸허하게 엎드리고, 그분 앞에서 우리는 덧없고, 연기같이 사라지며, 오늘은 있다가 내일은 사라지는 그것들의

실체를 볼 수 있게 된다. 영원하신 생명 앞에서 모든 것은 자신의 본연의 자리로 돌아간다. 자기만족으로 인해 손에 꼭 쥐고 있었을 때에는 너무나도 중요하게 보였던 것들은 우리가 사랑과 순종으로 그분께 우리의 손을 펼칠 때, 그 참모습을 드러내게 된다.

때로 말은 우리에게 잘못된 영적 감각을 심어 준다

우리가 기도의 의미를 재정의해야 하는 마지막 이유는, 우리가 알맞은 시간만큼 필요한 말을 함으로 우리가 기도한 것이라고 믿게 될 때, 우리는 형통에 대한 잘못된 이해를 갖게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단지 "기도를 말로 했다"는 것이 우리가 기도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예수님은 성전에서 기도하는 두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이레에 두 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십일조는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사람이 저보다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에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눅 18:10~14).

율법주의적인 기도는 말에 의해 정의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상태에 의해 정의된다. 양치질한 후, 출근하기 전의 짧은 시간 동안 기계적이고, 습관적이고, 종교적이고, 아무런 생명이 없는 "조용한 시간(QT)"을 가지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모독이 될 수도 있다. 시간을 들이고 낱말을 나열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다. 문제는 우리의 마음이다. 가장 좋은 기도는 그냥 머리를 숙이고 앉아서 하나님의 성령이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말하지 말아야 할지를 알려 주실 때까지 겸손히 기다리는 것이다. 회개와 권리 포기는 마음에서 우러나오지 않는 말의 홍수 속에서 상실되고 잊혀질 수 있다.

현대의 바리새인들은 기도를 일상생활의 한 부분으로 전락시킨다. 오늘 비타민은 먹었나? 했음. 개에게 먹이는 주었는가? 했음. 쓰레기는 갖다 버렸는가? 했음. 오늘 아침 묵상은 했나? 했음. 그리고는 "조용한 시간"을 가졌기 때문에 자신의 영혼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믿으면서 하루의 바쁜 일과를 시작한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다리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영원히 바꿔 놓을 무엇인가를 발견하게 하실지도 모른다.

말보다 깊은 사랑

예수님은 당신이 그분의 사랑을 온전하게 체험하기를 원하신다. 남편과 아내가 깊은 사랑을 표현하는 것은 지루한 대화를 통해서가 아니다. 때로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서로를 안아 주는 것만으로도 깊은 사랑이 표현되기도 한다. 이러한 간단한 행동조차도 말을 초월하여 사랑의 가장 깊은 본질을 전달할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는 당신이 그분의 사랑을 지적으로 아는 것보다 더 많은 것

을 당신에게 주시기를 원하신다. 그분은 당신이 그분으로 즐거워하며, 당신 안에 있는 그분의 생명의 완전함을 당신이 누리기를 원하신다. 그분은 초자연적으로 당신과 그분과의 관계가 잘 맞아떨어지는 것을 당신이 경험할 수 있도록 자신을 당신에게 나타내기를 원하신다. 그분은 당신의 종교적인 신념을 이루는 하나의 끈이 아니다. 그분은 당신의 삶 그 자체이시다.

브래넌 매닝이 이것을 아주 잘 표현했다.

> 우리의 영광의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신학적인 논쟁이나 철학적인 고찰의 주제가 아니다. 그분은 하나의 취미나, 아르바이트 거리, 혹은 좋은 책의 주제가 아니다. 또한 모든 인간적인 노력이 실패로 돌아갔을 때 찾아가는 마지막 보루가 아니다. 그분은 우리의 생명이시며, 우리의 존재에 대한 실제이시다. 그분은 우리 안에 내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이시다.

토마스 켈리는 심장마비를 일으키기 9일 전에 하나님이 우리가 살기를 원하시는 영적인 삶에 대해 탁월하게 묘사한 글을 남겼다.

> 중심에서 우러나오는 삶은 분주함이 없는 평강과 능력이 있는 삶이다. 그 삶은 평온하다. 놀랍다. 승리에 가득 찬 삶이다. 즐거운 삶이다. 시간을 들일 필요는 없지만, 우리의 모든 시간을 써 버리게 한다. 이러한 삶은 우리 인생의 계획을 새롭고 진취적인 것이 되게 한다. 우리는 허둥댈 필요가 없다. 그분이 지휘하고 계시기 때문이다. 우리의 작은 하루를 끝마쳤을 때 우리는 평안 가운데 조용히 누울 수 있다. 모든 것이 잘 되고 있기 때문이다.

모든 사랑의 관계에는 특별한 사랑의 교감이 있는 때가 있다. 당신이 하늘의 아버지께서 당신을 위해 준비하신 친밀감을 경험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은 당신보다 더 깊은 관계를 바라고 계시다는 사실을 알기 바란다. 당신을 향한 그분의 마음의 소망은 한 가지 소원으로 인해 타오른다. "나와 함께 누릴 수 있는 더 깊은 차원의 친밀감으로 내가 너를 이끌 수 있도록 하렴. 나는 너를 계속해서 붙들어 줄 것이다. 네 마음의 깊은 곳에 있는 소망들은 내가 그곳에 둔 것들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게 할 것이다. 있는 모습 그대로 나에게 오렴. 내가 너를 온전히 받아들일 거라는 사실을 믿으며 말이다. 나는 너를 사랑하고 너를 양육할 것이다. 너와 함께 나누고 싶은 비밀의 안식처가 있단다. 나와 함께 가자꾸나. 네 귀에 대고 네가 영원히 잊을 수 없을 말을 속삭여 주고 싶구나."

사랑하는 예수님,

주님의 사랑을 저에게 나눠 주시기 위해 둘만의 장소로 저를 불러 주심에 참으로 감동을 받습니다. 그 생각만으로도 놀라운 것이고, 저도 그곳에서 주님을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그곳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소서. 제가 그곳에서 잠잠히 주님과 함께 대화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 주소서. 때로는 말조차 필요없는 그곳에 있게 하소서. 주님의 심장과 제 심장이 하나인 것처럼 뛰게 하옵소서. 예수님, 주님과 함께라면 저는 안전합니다.

>>> 초대의 응답 <<<

다음의 질문들을 숙고함으로써, 이 책 속에 담긴 진리들이 당신의 삶에 계속적으로 영향을 주게 될 것이다.

1. 이 장(章)을 읽기 전에 당신은 묵상을 무엇이라고 대답할 수 있겠는가? 당신의 대답에 변한 것이 있는가? 만약 그렇다면, 어떻게 변했는가? 묵상 기도의 유익을 세 가지만 나열하라.

2. 요한복음 4장 20~24의 본문을 읽어 보라.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논의해 보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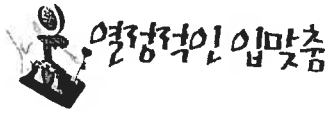
3. 이 장에서 언급하지 않은 묵상에 대한 다른 성경구절들을 찾아보라. 그 구절들에서 찾을 수 있는 적용점은 무엇인가?

4. 당신의 "기도 시간"은 어떠했는지 이야기해 보라. 당신이 그 기도 시간에 얼마나 만족하는지를 1~10까지 표시해 보라. 당신이 기도를 할수록 하나님과의 친밀감이 어떻게 더 깊어질 수 있는지 성령님이 깨닫게 하신 부분이 있는가?

5. 말없이 기도하는 개념에 대해서 설명해 보라. 이러한 기도는 어떻게 드려질 수 있겠는가? 하나님과의 친밀감을 방해하는 말의 예를 이 장에서는 어떻게 언급하고 있는가? 하나님과의 친밀감을 추구하는 우리에게 말이 방해가 될 때는 또 언제인가?

열번째 이야기

열정적인 입맞춤



하나님의 사랑을 말로 표현하려는 노력은 그 시도에서부터 실패하게 될 것이다. 무한대의 범위에 있는 것들은 한계가 있는 도구들로 잴 수 없는 것들이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열거하기보다는 이 세상의 바닷가에 존재하는 모래의 알갱이를 세는 것이 훨씬 쉬울 것이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신다. 이 말은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너무나도 많이 말해져 왔기 때문에, 마치 닳아 무뎌진 칼날처럼 그 감동을 잃어버리게 될 위험이 있다. 그러나 말 이외의 도구로 책에서 사용할 수 있는 매개체 또한 없다. 이 책의 끝에 와서 그 속의 말들이 마치 영화관에서 나가자마자 잊혀지는 영화처럼 당신의 의식에서 흘러 나가지 않게 되기를 바란다.

이 말에 대해서 생각해 보라.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이 말을 묵상

해 보라. 이 단어들에 의해 변화되어 보라. 각 단어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매달려 보라. 당신이 각각의 의미를 경험할 때까지 각 단어에 집중해 보라. 특별한 사랑에서 흘러나오는 생수가 당신 위에 퍼부어지도록 하라. 그 물이 당신의 생각과 의지, 감정의 가장 깊은 곳까지 치유하도록 하라.

결승선을 향해 전력질주하는 육상선수처럼 이 마지막 장을 서둘러 끝내려 하지 말아라. 각 페이지를 천천히 읽어 보라. 필요하다면, 책을 잠시 옆에 내려놓고 영원히 당신만을 바라보고 있을 성령님께서 하늘의 연인의 열정으로 당신의 내면을 적시도록 하라.

당신을 향한 그분의 사랑을 알려고 하라. 당신을 향한 그분의 애정을 느껴 보도록 하라. 그분에게 안겨 보라. 그분의 팔에 안겨 영원히 그 곳을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결심해 보라. 영원한 안식처에서 완전히 자유로워지고, 솔직하게 자신을 드러낸 사람들만이 내쉴 수 있는 그런 한숨을 내쉬어 보라. 그분이 주시는 평화, 그분의 용납하심 그리고 부드러운 그분의 임재를 받아들여라. 그분과 함께 누리는 연합에 흠뻑 빠져 보라. 이 진리를 만끽하라.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신다는 사실이 내포하고 있는 놀라운 진리를 이해할 수 있는가? 인간의 사랑은 변덕스럽고, 예측 불가능하고, 항상 외부의 상황에 영향을 받는다. 여러 가지 환경이나 죽음 등을 통해 인간관계는 끝나 버릴 수 있다. 인간의 사랑은 사랑을 주고자 하는 사람이 있고 그 사랑을 받아들이고자 하는 사람이 있을 때에만 가능하다.

다른 인간에게서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사랑도 불확실한 것이다. 어떠한 사랑의 관계도 죽음을 넘어서지 못한다. 인간관계가 뿌리내리고 있는 땅은 치명적인 질병에 의한 불행이나 끔찍한 이혼, 심지어는 싫증이 나는 것 때문에 쓸모없는 땅이 되어 버릴 수 있다. 시나 노래에서 수없이 이야기하는 약속들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사랑은 시들거나 죽어 버릴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자신만의 독특한 범주를 이룬다. 인간의 사랑이 동반하는 감정은 커졌다가도 약해질 수 있지만, "나 여호와는 변역지 아니하나니"(말 3:6). "대저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리로다"(시 100:5).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며, 그분은 결코 마음이 변하지 않으실 것이다. 그분의 사랑은 어느 때는 평소보다 강하거나 어느 때는 약하거나 하지 않는다. 그분의 사랑은 일정하며 출렁이지 않는다.

여름이 되면 사람들은 바닷가에서 태양의 자외선에 의해 몸을 태우는 것을 즐기기도 한다. 사람들이 잘 저지르는 실수 중의 하나는, 햇빛이 쨍쨍한 때보다 구름이 낀 날에는 덜 탈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구름이 낀 날 하루 종일 바닷가에 있어 보면, 맑은 날과 다름없이 탈 수 있다는 것을 곧 알게 된다. 햇빛은 구름이 마치 존재도 하지 않는 것처럼 구름을 뚫고 나온다. 그 빛은 안 보일 수도 있다. 하지만 자외선은 여전히 같은 강도로 내리쬐고 있다.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가로막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실망, 죄, 의심, 부정적인 느낌, 고난과 핍박의 어떠한 구름도 하나님의 사랑을 막을 수는 없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신다. 그분의 사랑은 당신의 영적인

성실함이나, 헌신도, 심지어 믿음의 정도에 따라 변하지 않는다. 이러한 것들은 당신을 향한 그분의 사랑에 의해 계발되는 그분의 선물이다. 당신은 이러한 것들을 만들어 낼 수도, 지속시킬 수도 없다. 그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다. 우리의 할 일은 그냥 우리의 과거나 미래의 행적에 관계없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는 것이다.

브래넌 매닝은 말했다.

> 때로 우리는 그분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루실 수 없다는 잘못된 사실을 믿게 된다. 우리는 그분이 우리의 적대적인 생각들, 잔인한 상상들 그리고 괴상한 꿈들까지 받아들이실 수 있을지 의심한다. 우리는 그분이 우리의 원초적인 충동과 터무니없는 환상과 이국적인 정신적 탐들을 어떻게 처리하실 수 있을지 궁금해한다. 우리 스스로가 무방비 상태로 있고, 완전히 발가벗겨진 채 스스로를 방어하지 않는 모습이 되기를 거부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예수님, 당신을 믿습니다. 하지만 믿는 데에는 한계가 있네요"라고 말하는 것이다.
>
> 우리의 환상들, 걱정거리들, 기쁨들을 나누기를 거부하는 것은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주인되심을 완전히 인정하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대화 속에서 하나님께 자신을 온전히 내어드리지 않으려고 하는 부분이 있음을 분명히 보여 주는 것이다.

당신은 쓰러져 있거나, 포기했거나, 등을 돌렸거나 아니면 그냥 영적인 것에는 신물이 났다고 생각하고 있을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태양은 여전히 당신 위에 비추고 있으며, 당신이 어떠한 일을 하든, 하지 않든 그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 사람들은 우리의 결함이나 그들의 신경을 건드리는 우리의 방법들 그리고 이기적인 우리의 태도 때문에 우리들을 포기하겠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신다. 그분은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

몇 년 전에 나에게 닥쳐온 어려운 상황들 때문에 하나님께 실망한 적이 있었다. 궁극적으로 나는 그분에게서 마음을 돌렸고 어떤 의미에서는 그분을 떠나 있었다. 한동안 나는 외면적으로는 사역을 하고 있었지만, 내면적으로는 매우 화가 나 있었다. 나는 시무룩해 있었다. 때로는 소리치고 날뛰기도 했다. 나는 하나님께 반항했던 것이다. 그러나 얼마의 시간이 지나자 나는 정신을 차렸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찾아갈 곳은 하나님 밖에 없음을 깨닫게 되었다.

어느 날, 나는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했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이 일은 몇십 년 전에 일어난 일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 당시 일어났던 일을 분명하게 기억하고 있다. 내 머릿속에서 나는 하나님께 돌아가고 있었다. 결국 내가 그분을 떠난 것이었으니까. 그러나 내가 돌아섰을 때 그분은 거기 계셨다. 그분이 내 옆에 서 계신 것을 마치 눈으로 보는 것 같았다. 내가 그분을 떠났을 때 하나님은 나를 따라 오셨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었다! 내가 믿음의 눈을 통해서 그분을 볼 수 있게 되었을 때, 그분의 음성 또한 들을 수 있었다.

"이제 (아이처럼 짜증 내는 것이) 다 끝났니? 좋아! 이제 널 안을 수 있게 이리로 오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 인간이 알고 있는 사랑과 그분의 사랑은 얼마나 다른가! 짜증 내고 칭얼대는 행동은 그분이 당신을 품에 안고 안심시키게 할 뿐이다. 우리가 그분께 반항하고 그분을 떠나 버리려고 할 때에도, 그분은 함께 우리 뒤를 따라 오신다.

어느 날, 이러한 경험을 한 후, 나는 로마서 8장 38~39절에서 사도 바울이

선언했던 진리를 나의 행동에 맞춰 바꿔 보았다.

> 사실이다! 어떠한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내가 확신하노니 칭얼대는 것도, 토라지는 것도, 불신도, 과거에 했던 행동들도, 장래에 할 행동들도, 영적인 성실함이 부족해도, 어떠한 형태의 실패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하나님의 열정적인 사랑에 대한 우리의 생각 위에 구름이 덮혀 있을 수도 있지만, 천 개의 태양보다도 더 밝은 사랑을 가지신 하나님은 "빛들의 아버지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분이시다(약 1:17).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신다. 그분은 절대로 변하지 않으신다. 절대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지에나의 캐서린은 하나님과의 친밀감에 대해 많은 책을 쓴 14세기의 그리스도인이다. 한 번은 어떤 사람이 그녀에게 그녀가 하나님 안에서 했던 여행에 대해 질문했다. 명석하고 열정적인 이탈리아 여성이었던 그녀는 다음과 같이 속삭였다. "그분은 사랑에 취했고, 사랑에 미쳤어요." 당신의 영적인 여행에서 만난 하나님에 대해서 당신은 어떻게 설명하겠는가?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그분의 사랑에 대해서 깨우침을 주시는 분으로 하나님을 알고 있는가?

토드는 그의 경험을 나에게 나누었다. "저는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지적으로는 믿어요. 어쨌든 그분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분은 사랑이시잖아요. 그분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내가 알고 있다고 해도, 그 사실은 매일매일의 삶에서는 그리 도움이 되지는 않아요. 저는 나쁜 습관에 사로잡혀 있거든요. 우리의 결혼은 흔들리고 있고, 너무 바쁜 일 때문에, 우리 아이들과 함께 보낼 시간도 없어 아이들은 거의 나를 몰라요. 저는 주일이 되면 겨우겨우 교회에 가서 의자에 파묻혀서 생각하곤 해요. 내일이면 또다시 처음부터 시작이구나. 도대체 하나님의 사랑을 의미심장하게 경험하기 위해서 제가 무엇을 해야 하는 건가요?"

토드의 질문에 대한 대답은 우선 하나님의 사랑은 이제껏 그가 알아왔던 다른 사랑과는 다르다는 사실을 이해하는 것에서 출발한다. 이 사랑은 두 남녀가 분출되는 호르몬에 의해 열정적으로 나누는 '에로스(eros)' 적인 사랑이 아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필레오(phileo)' 보다도 크다. 필레오는 가족 구성원간에 존재하는 사랑이다. 하나님의 사랑은 서로에게 익숙하고 편안한 두 사람이 느끼는 사랑인 '스토르게(storge)' 도 훨씬 뛰어넘는다. 이 모든 사랑은 좋은 사랑임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은 모두 인간적인 사랑의 방식이다.

하나님의 사랑은 독특한, 본인만의 범주를 갖고 있다. 그것은 '아가페(agape)' 의 사랑이다. 이 사랑은 본성적으로 특별해서 그것을 발휘하거나 지속시키는 데 어떠한 외부의 촉진제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이 사랑은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의 내면의 순결함에서 발휘되지 않는다. 그것의 발원지는 하나님 스스로만이 알고 계신다. 이 사랑은 하나님의 보좌에서부터 흘러 나와 골고다의 십자가를 통해 세상에 뿌려진다.

토드나 나나, 당신이나 그 사랑이 존재하도록 하는 데 아무런 일조를 하지

않았다. 우리가 그 사랑을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았던 것만큼, 그 사랑을 멈추게 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일도 없다. 이 사랑은 불타는 열정으로 넘쳐흐르는 강물과도 같다. 이 강물은 의인들, 즉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 위에 흐른다.

우리는 그 물결 속에서 수영할 필요가 없다. 그냥 그 물결이 이끄는 대로 따라가면 된다. 아이러니컬하게도 우리가 그 강물의 최대 하류까지 따라가다 보면, 하나님의 보좌로 다시 올라가 있음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그 곳까지 가는 동안은 우리가 흔히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알고 있는 예수님과 함께 하는 여행이다.

그렇다면 이렇게 퍼부어지는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의미있게 받아들일 수 있는가? 우리는 그 흐름을 통제하거나 움직일 수 없다. 우리는 로버트 캐폰(Robert Capon)이 부르는 "은혜의 삶의 제2법칙"에 따를 수밖에 없다.

당신이 할 일은 그냥 스스로를 내어놓는 것이다. 무슨 일이 일어나도록 할 필요는 없다. 어떤 특별히 효력이 있는 주관적인 불꽃을 만들어 낼 필요도 없다. 하나님이 더 많은 은혜를 부어 주시도록 특정한 행동을 할 필요는 더더욱 없다. 단지 그 곳에 있으면 된다. 그리고 당신의 연인에게 마음을 열면 된다. 그분 앞에 있는 것은 문자 그대로 당신이 하는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다. 그분은 그 모든 것들을 사랑 안에서 받아들이셨기 때문이다. 당신의 모든 선행은 그분 안에서 입증되기 때문에 받아들이시며, 당신의 모든 나쁜 행동은 그분 안에서 회복되었기 때문에 받아들이신다. 그리고 모든 종교적인 행동도 받아들이신다. 왜냐하면 그분 안에서 그 행동들은 더 이상 거래가 아닌 이미 성취된 일에 대한 기쁨의 행위가 되기 때문이다.

이것은 숨길 수 없는 사실이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신다.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은 영원토록 그분의 선하심을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할 것이다. 당신의 생명과 미래에 대한 어떠한 협상도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협상은 끝났다. 그분은 대가를 주고 당신을 사셨으며, 이제 당신은 집에 가고 있는 길이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1981년, 백인 경찰을 살인했다는 이유로 기소된 조세푸스 앤더소난(Josephus Andersonan)의 재판이 알라바마 주(州)의 모바일에서 일어났다. 재판의 결과 배심원들은 판결을 내리지 못했다. 유죄 판결을 내리지 못하자 그 주(州)에 있는 큐 클럭스 클랜(Ku Klux Klan, 미국의 천주교도, 유대인, 흑인등을 배척하는 비밀 결사, KKK단이라고도 부른다)단의 회원들은 들고 일어났고, 회원 중 두 명의 남자는 자신들의 손으로 이 일의 결말을 맺을 것을 결심했다.

1981년 3월 21일 토요일, 헨리 헤이스(Henry Hayes)와 제임스 노울즈(James Knowles)는 앤더소난의 유죄 판결을 법원이 내리지 못한 것에 대한 복수를 하기로 했다. 그들은 차를 타고 모바일을 돌아다니다가 19살짜리 마이클 도날드(Michael Donald)가 집으로 걸어가는 것을 보았다. 마이클은 학생으로 모바일 언론등기소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다. 헨리와 제임스는 마이클을 억지로 차에 태워, 막대기로 그를 흠씬 때린 뒤에, 다른 주로 넘어가서 그가 죽을 때까지 그 곳에 목매달아 놓았다.

짧은 수사 과정을 통해 그 두 사람은 체포되었고, 1983년 6월에 노울즈는 유죄를 인정받아 무기징역에 처해졌다. 6개월 뒤 헨리 헤이즈도 재판을 받고 유죄를 인정받아 사형을 선고받았다. 재판이 마쳐질 즈음에, 헤이즈는 마이클의 어머니 부엘라 메이 도날드을 돌아보면서 울기 시작했다. "저는 당신의 아들을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없어요." 그가 말했다. "하지만 내가 그 아이와 자리를 바꿀 수 있다면 그렇게라도 하고 싶어 한다는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실 거예요. 그렇지만 그것도 할 수가 없네요."

당신의 십대 아들을 비참하게 죽인 사람에게 당신은 그러한 상황에서 어떠한 말을 해 줄 수 있겠는가? 부엘라 메이 도날드 부인의 대답은 그날 알라바마주의 법정에서 그리스도의 임재를 느끼게 했다. 그녀는 눈에 눈물이 글썽이면서, 자신의 아들을 매달았던 남자에게 다음과 같이 차분하게 말했다. "저는 이미 당신을 용서했어요…… 당신들이 누구인지 알게 된 그 날부터 하나님께 당신들을 돌봐 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그분은 당신들을 돌봐 주셨어요." 그녀가 말하는 동안, 어느 기자는 그곳에 모인 사람들의 눈에 모두 눈물이 흘렀다고 전했다. 부엘라 메이 도날드 부인이 헨리 헤이즈를 용서함으로 가장 단단했던 마음도 녹아내렸던 것이다.

헨리 헤이즈의 고백처럼, 이미 저지른 죄악을 되돌릴 수 있는 방법은 없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죄를 범했고(롬 3:23 참조) 모든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죄인의 모습으로 서 있다. 우리의 죄악을 되돌리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이나 행동은 아무것도 없다. 은혜를 더욱 놀라운 것으로 만드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심하게 맞고, 로마의 십자가 위에 달리시고 돌아가신 것이 당신의 죄에 대한 결과 때문이라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위에 퍼부으셨던 분노는 '당신의' 죄 때문이었다. 예수님은 당신의 잘못에 대한 쓰디쓴 징벌을 완전히 감당하셨다. 당신을 향한 사랑 때문에 그분은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과 완전히 분리되어 영원한 어둠에 삼켜지기까지 달려 계셨다. 그분은 당신을 너무나도 원하셨기 때문에 그 어떠한 대가도 지불할 용의가 있으셨다.

당신이 믿음으로 회개했던 그날을 기억하고 있는가? "주님, 죄송해요! 제발 저를 용서해 주세요." 바로 그날에 예수님의 부드러운 목소리가 들렸던 것이다. "나는 이미 너를 용서했단다. 네가 누구인지를 알게 된 바로 그 순간부터 나는 아버지께 너를 돌봐 달라고 기도했단다. 그리고 그분은 너를 돌봐 주셨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일 덕분에 당신은 이제 긴장을 늦출 수가 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며, 당신에 관한 모든 것을 이미 해결하셨다.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생명이시며,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있다"는 (행 17:28) 계시 앞에서 어제의 후회와 내일의 두려움은 사라진다. 예수 그리스도는 당신이 하는 모든 것의 중심이시며 근원이시다. 그분의 사랑을 깨닫고 머무는 것이 당신의 유업이다. 이제 당신은 모든 것의 중심인 그분의 생명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다.

매일 당신의 마음속에 이러한 사실이 자라도록 하라.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그분과의 관계는 당신이 무엇을 했고 안 했느냐에 따라 결정되지

않는다. 그분과의 관계는 그분이 당신을 향한 사랑으로 인해 이루신 일에 뿌리를 내린다.

"하나님은 어째서 나 같은 사람을 사랑하시나요?" 갓 회심한 그리스도인이 어느 날 나에게 물었다. "저도 같은 질문을 계속 스스로에게 묻고 있었어요." 내가 대답했다. 이 질문은 모든 그리스도인이 때로 묻고 싶은 것이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기로 하신 결정은 그분의 공급하심과 무한한 선에 대한 비밀에 숨겨져 있다. 우리는 아마도 그것을 완전히 이해할 수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믿을 수는 있으며, 그 진리의 빛 가운데서 살아갈 수는 있다.

당신은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신다고 정말로 믿는가?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놀랍게 경험하는 계시는 그분의 용납하심이다. 우리는 그분의 흔들리지 않는 사랑 위에 견고하게 서 있을 때에만 정말로 자유롭게 살 수 있다. 우리가 하나님의 조건 없고, 거부할 수 없는 사랑을 이해하기 전까지 우리는 우리의 행위에 초점을 맞추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 당신의 하늘의 연인은 당신이 그분께 초점을 맞추며 살아가기를 원하신다.

당신의 삶이 어떻게 발전해 나가는지는 당신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어떠한 견해를 갖느냐에 의해 결정된다. 당신은 긴장을 풀고 그분 안에서 여행을 즐길 수도 있고, 그분의 은혜 안에 머물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 의미 없고 불필요한 수고를 할 수도 있다. 로버트 캐폰은 말한다.

> 은혜 안에서의 삶은 마치 젤름발이가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있는 것과 같다. 걸어서 올라가는 것을 생각한다면, 당신은 죽은 목숨이다. 당신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러나 당신은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당신을 예수님께로 이끌어 갈 에스컬레이터 위에 당신을 올려 놓으셨기 때문이다. 당신은 위로 올라가고 있다.
>
> 당신이 올라가면서 당신 스스로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은 즐거운 것이 될 수도 있고, 슬프거나 끔찍한 것이 될 수 있다. 그것은 당신에게 달려 있다. 즐거운 생각은 당신이 공짜인 이 여행을 즐긴다는 의미다. 당신이 에스컬레이터와 씨름한다면 슬픈 생각이 들 것이다. 당신이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있다는 사실을 잊고 다시금 걸을 수 없다는 현실을 바라볼 때 당신은 끔찍한 생각에 사로잡힐 것이다. 그 모든 것이 당신에게 중요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것들은 당신의 길을 막을 수는 없다. 당신은 계속 올라가고 있는 것이다. 당신이 해야 할 일이라고는 그 사실을 믿는 것이다. 그러면 당신의 슬픔이나 공포도 여행의 일부가 되어 버린다.
>
> 은혜의 삶의 마지막 법칙은 그 어떠한 것도 당신을 그것으로부터 분리시킬 수 없다는 것이다. 당신의 잘못도, 당신의 죄악도, 당신이 고집스럽게 십자가를 거부한다 할지라도, 심지어 당신이 그리스도의 상처에 소금을 뿌리고, 그분이 가장 낮은 곳에 계셨을 때 그분에게 발길질을 했다 할지라도 당신은 은혜에서 벗어날 수 없다. 그분은 자원해서 당신을 위해 십자가를 감당하셨기 때문에, 그분은 당신의 그러한 모든 행동을 당신을 받아들이는 대가로 생각하신다. 당신은 그것들 때문에 울 수 있고 그 눈물은 희개의 눈물로 변할 것이다. 하지만 서두를 것은 없다. 하나님은 그분이 당신을 사랑하고 계심을 알고 계시고,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당신은 능력껏 따라오기만 하면 된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신다. 이처럼 간단한 것이다. 그러면서도 너무도 깊은 의미가 있다. 이상하게도 하나님의 사랑이 성경의 가장 중심적인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이 사실을 믿는 데 어려움을 느낀다. 자연스런 사랑의 좁은 강물에 사로잡혀서 많은 이들은 아가페의 파도가 넘실거리는 애정이 가득한 대양(大洋)을 보지 못하고 있다.

"근데, 제가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그분을 놓아 버리면 어떻게 되나요? 그

래도 그분이 저를 사랑하실 거라고 말씀하시지는 않으시겠죠!' "어떻게 당신은 하나님이 저런 죄를 저지른 사람도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실 수 있는거죠?" "네,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하지만 너무 과장해서는 안 되잖아요. 어쨌든 우리가 무슨 행동을 하느냐는 하나님께도 중요한 것이니까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은 사실이에요. 하지만 그분은 진노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시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인간의 거부는 계속된다. 아마 당신도 당신만의 질문들로 씨름하고 있는지도 모르겠다. 나 또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는 면이 있다. 그분의 사랑은 내가 끌어안고 이성적으로 다루기에는 너무 크다. 내가 열심히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을 완전히 분석하지 못했다. 그분의 사랑에 대해 해결되지 못한 질문들이 아직도 있다.

그러나 나는 내 삶을 계속적으로 변화시킬 결단을 내렸다. 나는 나의 한정된 능력이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즐거워하는 데 방해가 되도록 하지 않기로 했다. 물론,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질문들이 있다. 그 해답은 신학자들이 해결할 몫으로 두려고 한다. 그 동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그 사랑이 이제껏 당신이 알아온 그 어떤 것보다 더 크고 더 좋은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겠는가?

존 엘드레즈(John Eldredge)는 좋은 예시를 우리에게 제공한다.

> 키스의 진리는 무엇인가? 기술적으로, 현대적인 의미로 볼 때, 키스는 두 개의 입술이 일정한 시간 동안 서로 맞닿아 있는 것이다. 키스의 놀라움을 이미 경험해 본 사람이라면, 이 말이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사실적이 아니라는 것을 알 것이다. 이 말은 키스에서 느낄 수 있는 모든 아름답고, 신비하고, 열정적이고, 친밀한 요소들을 앗아가 버리고, 차가운 사실만을 남겨 놓는다. 키스를 아는 사람들은 무엇인가를 빼앗긴 기분이 들 것이며, 키스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게 키스의 전부라면, 난 차라리 안 하겠어" 하고 말한다.

나는 인간관계에서 이러한 견해를 상상조차 할 수 없다. 나처럼 많은 사람들은 사업상 여행을 자주 한다. 당신은 출장에서 돌아와 배우자와 함께 있을 수 있다는 기대에 가득 차 있으면 키스의 지적인 의미의 이해만을 가지고 있을 수 있겠는가?

키스에는 심리학적이고 생리적인 부분들이 포함되어 있기는 하지만, 위의 설명은 내가 멜라니가 있는 집으로 갈 때에 전혀 생각하지 않는 것이다. 테네시 어니 포드(Tennessee Ernie Ford, 미국의 가수)는 이러한 순간이 갖는 기본 요소들을 그의 노래 '키스 미 빅' (Kiss Me Big)에서 모아 놓았다. 그 노래에서도 "두 개의 입술이 일정한 시간 동안 서로 맞닿아 있는 것" 이라는 표현은 찾아볼 수도 없다. 그의 평가는 사뭇 간단하고 실질적인 것이다. "커텐을 내리고, 전화 코드는 뽑아 놓아요. 입술을 내밀고 있어요, 내가 가고 있으니까요!'

포드가 표현한 이 마음은 예수님이 당신을 향해 갖고 계시는 마음이다. 예수님은 그분과의 사귐이 당신이 전율을 느낄 만큼 좋은 것이 되기를 원하신다. 그분은 당신을 향한 사랑으로 가득 차 계시다. 그분은 영원토록 당신이 상상도 하지 못할 방법으로 그분의 사랑을 당신에게 증명해 보이기를 원하신다. 그분의 사랑은 순결하지만, 또한 열정적이기도 하다. 이것은 당신만이 느낄 수 있는 주관적인 것을 포함한 객관적인 진리다. 예수님은 그분이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당신이 알기 원하신다. 그분은 당신이 그 사랑을 느끼길 원하신다. 그리고 그 사랑을 보기를 원하신다.

어떤 사람들은 곧바로 편협된 감정주의에 대한 위험성을 지적할 것이다. 물론 어떤 사람들은 그리스도와의 사귐을 감정적인 것에 국한시켜서 이해할 위험이 있다. 이 사실에 반대할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그것과 동일한, 아니 어쩌면 더 큰 위험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와의 사귐을 이성적인 것으로만 받아들이면서 인생을 보낼 수 있다는 것이다.

우리가 맺는 인간관계에서 가장 깊은 관계는 우리의 이성과 감정 그리고 선택에 모두 영향을 미친다. 그리스도와의 관계도 마찬가지다. 그분의 사랑은 우리가 배웠으면 좋겠다는 하나의 진리가 아니다. 또한 우리가 경험하기 원하는 신비한 느낌도 아니다. 그분의 사랑은 이 모든 것들보다 훨씬 큰 것이다.

하나님은 돌아온 탕자의 목을 끌어안고 기쁨의 눈물을 흘리며 웃으면서 소리치는 아버지와도 같으시다. "나의 아들이 돌아왔다! 잔치를 베풀자"(눅 15:20~24). 그분은 자신의 가슴에 잠들어 있는 아기에게 키스 세례를 베푸는 어머니와도 같으시다(시 131:2). 그분은 "나는 당신을 너무나 사랑해서 공공장소에서라도 당신에게 입을 맞추겠어요. 누가 봐도 상관없어요! 아니, 아무도 나에게 뭐라고 할 수 없을 거예요!"(아 8:1)라고 말하는 연인과도 같으시다.

그분은 당신을 자랑스럽게 내밀면서 "내가 만든 작품 좀 보시오!"(엡 2:10)라고 소리치는 예술가와도 같으시다. 그분은 또한 당신에게 사랑의 노래를 불러 주시는 음악가이시다(습 3:17). 그분은 당신을 자신의 소유로 만들기 위해 가진 모든 것을 팔아 버린 부자 상인과도 같으신 분이시다(마 13:45~46). 그분은 왕의 왕이요, 주의 주이시며, 하늘의 영광스러운 보좌를 떠나서 죄악된 이 더러운 세상에 내려오시고, 지옥의 고통으로까지 내려가셨던 분이시다. 이 모든 것은 물론 한 가지 이유에서였다. 그분은 지옥의 불 건너편에서 그분이 구해 주기를 기다리고 있는 당신을 보셨던 것이다.

은혜의 입맞춤으로 그분은 당신을 영적인 죽음에서 깨어나게 하셨다. 그분은 당신을 품에 안고 그분이 예비해 놓으신 하늘의 신혼집으로 당신을 데리고 가고 계신다(요 14:2~3). 그분은 이미 죽음과 지옥의 권세를 이기셨기 때문에 그분의 앞을 가로막을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분의 임무를 방해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

혼인 잔치는 이미 준비되었다. 잔칫상은 차려졌다. 당신은 영원이라는 문 앞에 서서 그 문이 열리기를 기다리고 있다. 문 너머로 노랫소리가 들려온다. 당신이 오기만을 애타게 기다린 하객들이 방안을 가득 채우고 있다. 당신이 시간과 영원의 경계를 넘어서기만 하면 그 하객들의 노랫소리를 들을 수 있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계 19:6~7).

그 순간이 되면 이 세상에서 중요했던 모든 것들은 사라져 버린다. 당신은 돌아서서 영원 전부터 당신만을 바라보고 있었던 눈을 들여다볼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분은 당신의 눈을 깊게 바라보시면서 당신의 이름을 부드럽게 속삭이실 것이다. 그분의 사랑에 가슴이 벅차서 당신은 한 마디 말만을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하지만 그 한 마디는 시간과 영원에서 존재하는 모든 것의 정수를

담고 있는 것이다. 기쁨의 눈물을 흘리며 모든 것이 완벽하다는 것을 깨달으며 당신은 속삭일 것이다. "예수님…… 오 예수님!"

사랑하는 아버지

이 세상에서의 삶이 끝나고 아버지를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보게 될 날을 손꼽아 기다립니다. 당신의 사랑은 저에게 너무나도 과분한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은 제가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크신 사랑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더 깊이 이해하게 하옵소서. 주님은 제게 너무나도 소중하신 분이십니다. 이 시간부터 영원까지 제 자신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을 너무도 사랑합니다.

>>> 초대의 응답 <<<

다음의 질문들을 숙고함으로써, 이 책 속에 담긴 진리들이 당신의 삶에 계속적으로 영향을 주게 될 것이다.

1.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직접 사랑의 편지를 쓰신다면 어떤 말을 쓰실지 한 단락으로 적어 보라.

2. 하나님의 인자와 인내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성경구절을 세 가지만 찾아보라. 이 성경구절을 당신의 말로 바꿔 보라.

3.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비유를 읽어 보라. 이 비유에 나오는 아버지의 사랑과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비교하여 세 가지만 말해 보라.

4.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을 영원한 신혼집으로 데려가실 때, 당신이 그분께 가장 먼저 할 질문은 무엇이겠는가?

5. 로마서 8장 38~39절을 읽어 보라. 당신의 인생 경험에 비추어 이 구절을 당신의 말로 바꾸어 보라.

거룩한 초대의 노래

세릴 부케넌 지음

어둠이 가득 찬 방 안에서 사람들은 절망에 빠져 있네.
나는 헤어진 옷을 입고 먼지 속에 앉아, 나 자신을 돌볼 힘조차 없네.
갑자기, 붉은 옷을 입은 남자가 들어섰다네.
방 안 가득했던 악취와 추위는 사라지고 아름다운 향기가 진동하네.
창백한 잿빛 얼굴들을 돌아보며 그는 누군가를 찾고 있었다네.
열정적으로 그는 사람들의 사이를 지나다니고 있다네.
그때, 나의 눈과 그의 눈이 마주쳤고, 나의 가슴은 뛰기 시작했네.
그의 따뜻한 품을 기다리고 있는 나의 모습을 볼 수 있게 되었다네.

그는 내 앞에 멈춰 서 있었다네, 마치 귀중한 보물을 찾은 듯 보였네.
부드러운 그의 눈은 기쁨으로 가득 찼고, 긍휼한 마음이 잔잔히 전해졌다네.
부드럽게 그는 위로하는 손길로 나의 얼굴에 손을 댔다네.
나의 얼굴을 들어 그를 바라볼 때, 나는 그를 이미 알고 있음을 느꼈다네.
고요한 그 눈빛은 나의 어두운 영혼을 꿰뚫었고
나에 대한 모든 것, 숨겨진 비밀도 모두 알고 있음을 느꼈다네.
노래하듯 부드러운 그의 목소리는 내게 속삭였다네.

내 마음이 오랫동안 기다려온 사랑의 말을 그는 노래하네.
"와서, 나와 함께 춤추자, 나의 연인이여, 나와 함께 춤추자 나의 사랑이여,
와서 춤추자 나의 신부여, 나의 선택한 자여, 나와 함께 올라가 춤추자."
어두웠던 자리에서 일어나자 방 안은 빛으로 가득 차게 되었네.
우리가 춤을 출 때, 그의 옷은 희게 변화되었네.
나를 가까이 붙드는 따뜻한 그의 품에 있을 때
나는 깊은 그의 사랑과 보호를 느꼈다네.
주위에는 나의 영혼을 어루만지는 음악이 들리고
나의 영혼을 살아났다네, 다시 태어난 기쁨, 온전하게 된 기쁨으로
그의 옆에서 나는 그와 함께 천천히 춤을 추었다네.

부드럽고 온화하게 그는 말하네, 나는 그의 신부임을
춤추며 그는 내게 노래하네, 그의 노래가 나를 울게 만들었다네.
그의 노래는 단단한 마음을 녹이고 두려움을 없애는 사랑으로 가득 찼네.
그는 내게 말하네, 나는 그의 보물, 그의 기쁨, 그의 상급이라고.
그의 특별한 작품이요, 그가 사랑하고 애정을 쏟노라고.

그의 노래는 내 귀에만 들리는 시라네.
그의 얼굴 가득한 기쁨은 나의 영혼을 자유케 한다네.

그가 고개를 숙이고 나의 뺨에 입을 맞추네.
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들로 그는 말하기 시작하네.
그는 선물이 있다고 말해 주네, 나를 위해 특별히 준비한
사랑으로 엮어 나를 자유롭게 할 선물이라네.
그는 멈춰 서서 나의 벌린 두 팔을 붙잡고
담대하게 큰 소리로 천군천사께 명했다네.

"그녀의 비단 옷을 가져오라. 팔찌와 금면류관도 가져오라.
그녀의 가죽신과 새하얀 의복도 가져오라.
목걸이와 귀걸이를 가져오라, 포도주도 가져오라.
그녀에게 부을 기름도 가져오라, 그녀는 오늘 나의 것이 될 것이리라.
그녀는 나의 신부요, 내가 선택한 자요, 나의 기쁨이로다.
그녀를 위해 내가 죽었노라, 나의 아름다운, 사랑스러운 신부로다."

즉시 나의 헤진 옷은 아름다운 옷으로 바뀌었네.
그의 영화로 나를 옷 입혔네, 천국의 모든 이가 바라본다네.
내 앞에 서 있는 그의 얼굴은 기쁨으로 빛난다네.
오늘, 그가 나를 거룩하고 순결하게, 은혜로 가득 채웠다네.
그가 나의 손을 잡고 그에게로 이끌어 내 귀에 노래한다네.
영원히 나와 함께 춤을 추겠노라고.
나는 그의 거룩하고 순결하고 아름다운 작품이라고.
또다시 그는 거룩한 초대의 노래를 불러 준다네.

"와서, 나와 함께 춤추자, 나의 연인이여, 나와 함께 춤추자 나의 사랑이여,
와서 춤추자 나의 신부여, 나의 선택한 자여, 나와 함께 올라가 춤추자.
그대를 갖기 위한 대가는 지불되었으니 그대를 내 곁에 둘 수 있게 되었도다.
나의 기쁨, 나의 것, 나의 유일한 사랑, 나의 신부여!"

민족과 국가를 바꾸는 능력의 삶으로 인도하는 가치

하나님 나라 가치

대로우 밀러 지음
양장본 | 정가 5,500원

대로우 밀러는 이 책을 통해,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나라 가치를 가지고 세상에
적극적으로 영향력을
미치는 힘 있는 삶을
살도록 이끌어 줄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란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시는 나라를 뜻한다. 그분이 다스리시는 시간과 장소가 바로 하나님 나라인 것이다. 만약 당신의 인생을 예수님이 다스리고 계시다면 당신은 이미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에 살고 있다. 세계적인 하나님 나라 가치 운동가 대로우 밀러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 가치를 가지고 능력 있게 사는 길을 이해하기 쉽게 안내해 주고 있다. 하나님을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필독서다.

Reflections on the Seven Realities of Experiencing God

헨리 블랙가비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의 7단계

"당신이 하나님을 경험한 마지막 순간은 언제였는가?"

우리가 과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가?
헨리 블랙가비의 역작인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의 7단계"는
이러한 우리의 의문에 가장 분명하고
확실한 해답을 제시해 준다.

이제 본서에 제시된 7가지 원리들을 통해
하나님을 경험하는 충격적이고 위대한 경험으로
당신을 초대한다.

17세기 프랑스의 성녀 잔느 귀용이 들려주는 기도의 비밀! 21세기 초베스트 셀러!

매일 기도를 통해 깊은 하나님의 임재와 안식을 경험하십시오!

잔느 귀용 지음 | 최재훈 옮김 | 값 6,800원

성녀 잔느 귀용이 남긴 기도의 고전!

성녀 잔느 귀용이 인도하는 기도의 길을 따라갈 때, 예전에는 알지 못했던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은혜 영성의 파워

은혜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은혜라는 말을 너무도 많이 들어왔다. 그런데 큰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의 공통적인 경험은 자신을 신뢰하는 사고방식에서 완전히 깨어짐을 경험하였다는 것이다. 은혜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율법에서 자유로워지고 진정으로 주님의 사랑과 능력을 경험할 수 있다. 이미 이 은혜의 영성은 NCD의 건강한 교회 운동과 셀교회 운동의 필수 과정이 되어 있다. 여러분도 '은혜의 영성'의 파워를 이 책 한 권으로 경험할 수 있다.

스티브 맥베이 지음 | 편집부 옮김 | 값 6,800원

은혜의 영성

NCD설문을 통해 우리나라의 가장 장점이라고 여겨졌던 영성부분이 의외로 가장 취약한 최소치라는 것이 밝혀져 세계교회가 깜짝 놀랐다. 스티브 맥베이 목사는 본 강의를 통해 율법적, 행위적 신앙관을 그리스도의 은혜와 십자가를 통해 자유함을 누리는 은혜의 영성에 기초한 신앙으로 바꿀 것을 강력히 제안하고 있다. 한국인의 율법적인 신앙을 재조명해 보고 새로운 각도에서 성도가 건강한 영성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는, 뜨거운 감동을 안겨 주는 강의이다.

스티브 맥베이 강의 | 값 32,000원(테잎 10개 교재 포함)

은혜 영성의 실천

이미 많은 목회자들을 통해 한국 교회에 전파되고 있는 이 은혜 운동은 NCD의 건강한 교회 운동과 터치코리아의 셀교회 운동의 필수 과정이 되어 있다. "은혜의 영성"의 "실천 과정"인 이 강의는 은혜를 생활에서 실천하고 누리며 사는 파워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안내해 줄 것이다. 스티브 맥베이 목사의 3편 시리즈 중 두번째로 진행된 이 강의는 첫 번째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성을 보다 깊은 차원으로 성장시켜 줄 것이다.

스티브 맥베이 강의 | 값 37,000원(CD 3개 교재포함)
| 값 32,000원(테잎 10개 교재포함)